

통권 제396호 | 2022



사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도서관 | 통권 제396호 | 2022

사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들어가기 전에

사서의 과거와 현재를 통하여  
도서관의 미래를 보다

우리는 도서관이라는 멋진 공간에서 책과 다양한 정보를 통하여 경험해보지 못한 과거를 만나고 현재를 이해하며 다가올 미래를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람과 지식,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조력자, '사서'가 있습니다.

이번 『도서관』 제396호에는 사서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도서관과 늘 함께해왔던 사서를 이해하고, 그들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쯤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제1호 사서가 배출된 해가 1966년이니 사서들도 반백 년이 넘는 결코 짧지 않은 역사의 길을 걸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궁금해집니다. 앞으로는 어떤 길을 걷게 될지, 반드시 걸어야 하는 그들의 길은 또 어떤 모습일지…….

그래서 그들의 과거와 현재를 모아보았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였던 역사 속 위대한 도서관학자들의 빛나는 업적뿐만 아니라 도서관 현장의 생생한 지금 이야기들까지 조화롭게 아우르는 과정을 통하여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서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서를 꿈꾸는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그리는 사서의 모습, 우리 사회가 혹은 이 시대의 이용자가 요구하는 사서의 역할을 생각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또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채워나가고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들을 찾기 위함입니다.

이번 호가 사서와 도서관의 미래를 그려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공지능(AI)이 대체할 수 있기에 머지않아 사서라는 직종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고 가보지 않았기에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서들이 도서관을 둘러싼 그 어떤 변화에도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힘을 기르고 성장하는 기회로 바뀌어나간다면 그 속에서 미래 도서관의 희망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목차

총론	사서는 어떻게 단련되고 성장하는가 10 이정수/전 서울도서관장
과거	역사 사서의 역사 29 노영희/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위인 광야에 도서관이라는 씨앗을 뿌린 인물들 53 이용재/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현재	자격 사서의 자격과 역할 74 남영준/한국도서관협회장,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훈련 사서교육훈련,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94 한숙희/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인재개발과 사서사무관
	관중 ‘과학 전문사서’에 한발 더 가까이 114 김금숙/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사료관 사서  ‘빛’의 도서관, 그 안의 ‘나’ 118 최미순/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서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집필진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책이라는 새싹을 틔우도록 돕는 어린이도서관 사서 123  
여현경/중랑숲어린이도서관 사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 그리고 모두의 친구 128  
박연주/의정부미술도서관 사서

군부대에도 도서관, 그리고 사서가 있다 132  
문연희/육군기록정보관리단 육군본부도서관 사서사무관

### 현장

---

미래를 만들어가는 도서관의 현재 138  
은평구립도서관·목포제일여고 도서관 탐방기  
송현경/『내일신문』 기자

## 미래

### 진화

---

소통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미래의 사서 159  
권선영/한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대답

---

사서, 세상과 사람 사이를 잇다 180  
현직 사서와 예비 사서들의 만남  
임민주/마포중앙도서관 사서  
심민지/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생  
황휘현/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생

추천 자료 200



# 사서는 어떻게 단련되고 성장하는가

글 이정수 전 서울도서관장

## 사서와 사서직의 의미와 가치

세상이 변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감염병의 확산으로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도서관은 휴관과 재개관을 반복하였고, 이는 정보서비스의 디지털, 비대면 시대를 앞당기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와 모바일(Mobile)이 핵심 기술인 4차 산업혁명은 물리적 세계와 생물적 세계, 디지털 세계가 융합하는 새로운 기술적 혁신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세계에서는 기계가 단순 반복적인 일을 담당하고, 인간은 전문화되고 기술적인 영역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의 도서관과 사서(Librarian)는 어떻게 될까?

도서관은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인류의 지적 산출물을 수집·보존하고 현세의 사람들이 활용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후대에 전승하는 사회문화 기관이고, 사서는 그 일을 담당하는 주역이다. 따라서 사서는 도서관을 떠나서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도서관은 왕실과 상류 계층의 개인 장서를 보존하고, 교회나 대학교에서 필요한 문헌과 학술자료를 소장하고 제공하였다. 증기기관, 전기로 대표되는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근대 공공도서관이 태동했는데, 차별 없는 정보서비스와 보편적 정보복지를 지향하면서 사서의 지위와 위상도 높아졌다. 그러나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정보사회를 넘어 지능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도서관의 역할에 위기가 찾아왔다. 도서관의 방문자 수는 점차 감소하고, 정보 입수 방법의 다양화로 사서의 지위도 약화되었다. 사서의 전문성보다 기능적 측면이 부각되거나 사서 무용론이 제기되었고, 컴퓨터 기술로 대체되는 직업 명단에 오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인간의 편리한 미래사회가 그려지는 이 시점에 '인간'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폭되듯 '인간' 사서 역할에 대한 고민 역시 커지고 있다.

도서관은 사회 환경에 따라 꾸준히 그 역할이 진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를 지나 급격한 성장을 이룬던 시기까지 공공도서관은 그저 공부방을 제공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민주화 시대를 맞이한 후에야 도서관은 비로소 정보 제공, 독서 진흥, 평생학습과 문화 활동이 가능한 기관으로 성장하였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지식 플랫폼, 교류와 자아실현을 위한 커

뮤니티센터 그리고 지역 이슈를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까지,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도서관의 역할이 확장됨에 따라 도서관 운영의 핵심 일꾼인 사서가 할 일도 다양해졌다. 사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도서관의 여러 기능을 잘 수행하면서 도서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주역이다. 사서직(Librarianship)은 사서를 총칭하는 직업명으로, 사서 개인의 철학과 역량은 도서관과 직결되기 때문에 도서관과 사서직을 동일한 차원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 모든 일의 성패는 사람이 좌우한다. 도서관의 3요소인 ‘자료, 시설, 인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이다. 사서의 역량에 따라 도서관 서비스의 품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윤희윤(2005)은 마이클 고먼(Michael Gorman)의 21세기 사서직의 핵심 가치를 <표 1>과 같이 소개하였다.

<표 1> 마이클 고먼의 21세기 사서직 핵심 가치

핵심 가치	내용
관리(Stewardship)	인류의 기록을 보존·보호한다
서비스(Service)	인간의 발전에 전문적 및 이타주의 자세로 기여한다
지적 자유(Intellectual Freedom)	검열에 저항하고 자료 이용을 보증한다
프라이버시(Privacy)	기밀을 유지하고 기술적 침해를 극복한다
합리주의(Rationalism)	논리적 방법으로 자료를 조직하고 절차에 합리성을 적용한다
해득력 및 학습에 관여 (Commitment to Literacy and Learning)	평생학습을 권장하고 해득력 교육을 제공한다
접근의 공평성(Equity of Access)	접근을 보장하고 이용 장애를 해소한다
민주주의(Democracy)	민주주의 가치를 유지하고 교육과정에 참여한다

고먼은 신(新)도서관학 5법칙을 설파하며 도서관과 사서직의 기본을 지키고 토대를 강화한 대표적인 학자로 사서들이 기술맹신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며, 기술을 잘 활용하라고 조언한 바 있다. 그가 제안한 21세기 사서직의 핵심 가치는 미래의 도서관이 어떤 모습이 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키워드이다.

## 사서의 전문성과 전문직화

2019년에 서울시는 뉴욕공공도서관을 모델로 하여 5개 권역에 연구 중심의 시립도서관 건립 계획을 발표하였다. 당시 서울도서관장으로 재직 중이던 나는 그 원대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도서관 직원들과 뉴욕에 단기 연수를 다녀왔다. 4개의 연구도서관은 물론 퀸즈와 브루클린 공공도서관까지 방문하였다. 퀸즈의 공공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넓고 쾌적한 로비에 위치한 대출 데스크 뒤에는 ‘LIBRARIAN’이라는 큰 사인이 걸려 있었다.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사서를 찾으라는 메시지 같았다. 함께 간 직원들은 “한국에서도 저렇게 큼직하게 ‘사서’라고 걸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하면서도 자신 없는 표정을 지었다.

맨해튼에 있는 뉴욕공공도서관에서는 한국인 사서를 만나 한 시간 넘도록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러시아 자료 담당자로 20년 넘게 근무하고 있었다. 우리를 만나기 얼마 전에는 러시아로 출장 가서 희귀본을 포함한 러시아 자료를 구입하였는데, 그 자료를 도서관 1층에 새로 조성한 갤러리에 전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뉴욕 시민들이 도서관에 새로 들어온 자료를 보고 활용하도록 안내하는 것과 동시에 기업인 등 기부자들에게는 더 좋은 자료를 더 많이 구입하도록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서란다. 그는 말하는 내내 자신감이 넘쳤고, 러시아 관련 정보는 본인이 최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한 사서’라고 자부심을 드러내었다.



[그림 1] 뉴욕시 퀸즈공공도서관 대출 데스크 © 이정수

뉴욕에서 만난 관장이나 사서들은 자신들의 일을 사랑하고, 모든 이에게 유쾌하고 친절하게 대하였다. 이용자는 사서와 대화하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았다. 한 가지 주제 분야에 수십 년간 매진하면서 일반적인 내용부터 전문 정보까지 꿰고 있어 이용자의 정보 문제를 해결해준다면 누가 그를 전문가가 아니라고 할 것인가. 부러운 것은 따라 하면 좋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의 경우 공무원 조직은 순환보직으로, 위탁 도서관은 대부분 한 사람이 동시에 많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시간의 축적’에 의한 전문성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전문사서’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을 종종 본다. 시민들은 사서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요구하고, 도서관계 사람들은 땅에 떨어진 사서의 위상을 회복하는 동시에 정보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한다고 느껴진다. 사서가 전문직이나 기능직이냐의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최근에도 여전하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토록 오랫동안 사서의 전문성을 이야기만 하고 있을까?

직업의 전문성에 대한 고민은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분야에서도 적지 않고,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전문직으로 인식되는 의사나 법조인마저도 최근에는 전문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 전문직은 당대 사회의 요구로 등장하였다. 변화가 빠른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해당 전문직의 서비스를 요구하는지, 그 전문직이 사회가 요구하는 바를 실천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전문성이란 무엇인가? 먼저 전문직(Profession), 전문가(Professional), 전문성(Professionalism)이라는 용어부터 살펴보자. 전문직은 ‘Profession’의 번역어로, 전문성을 가진 직업이라는 뜻이다. 이 용어는 16세기부터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전문 지식을 습득한 특정 직업군에 사용되었으며, 대학교에서는 고등교육과정을 이수한 성직, 법률직, 의료직, 군장교직 등과 같은 배타적 직업군을 지칭하였다. 이들 직업은 철저한 신분제였던 유럽에서 사회적으로 귀한 신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특수 영역이었다. 인간의 삶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힘이 막강했던 이들에게는 특별한 권위와 책무가 주어졌고, 엄격한 직업윤리도 요구되었다. 또 전문직은 특정 분야 연구와 실천, 깊이 있는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직업이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전문직 개념이 다양한 직업군으로 확장되었는데, 이때부터 직업구조가 복잡해지고 배타적 관할권에 대한 투쟁이 치열해졌다(이제환, 2003).

전문가(Professional)는 주로 해당 직업 영역에서 초보자보다 뛰어난 역량과 신속한 문제 해결이 가능한 이를 말한다. 오현석 등(2008)은 전문성의 구성 요소로 지식, 경험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암묵지 형태의 지식 보유율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분야의 지식

을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식은 상호작용적 요소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는 전문성이 될 수 없으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의 축적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은 필요하다. 전문가들의 경험은 축적된 지식을 통한 행위와 반성, 성찰 그리고 실천이라는 과정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문제 해결 능력은 전문성의 핵심적 요소로, 전문가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초보자보다 심층적인 수준으로 분석하고 강력한 자기 모니터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초보자들은 개념적으로 영성하고 피상적인 문제의 표상을 사용하는 반면, 전문가들은 문제를 개념적으로 조직하여 심층적 지식에 의존하는 추상적 표상을 한다. 전문성을 뜻하는 영어 'Professionalism'의 번역은 아직 통일되지 않았다. 학자에 따라 전문직업성 또는 전문직주의라고도 하는데 직업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이나 전문직업이 갖추어야 할 특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윤명희(2020)에 따르면 전문성을 연구한 1세대(1950년대 중~1970년대 초) 학자들은 주로 탁월한 개인을 대상으로 개인이 보유한 특성을 밝히는 데 주목하였으나, 2세대(1970년대 초~1980년대) 학자들에게는 특별히 통제된 조건 아래서 보이는 후천적 습득 기술과 지식, 능력에 초점을 두어 표준화된 환경과 객관적인 수행 수준을 측정하는 실험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전문직화(Professionalization)는 직업이 전문직으로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해가는 과정을 말하는데, 학자들은 공통으로 추상적 지식<sup>1)</sup>체계, 오랜 기간의 교육과정과 훈련, 사회에 대한 이타적인 지향성, 직업윤리 및 전문 단체 등을 전문직화의 요건으로 제안하고 있다.

윤명희(2020)는 사서직의 전문성 요소를 전문 지식과 기술, 국가공인자격증, 전문직 단체, 윤리강령, 배타적 영역의 구축 그리고 사회 구성원의 인정이라는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요소를 사서직에 적용하면,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교 같은 교육기관이 있고, 국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과 한국도서관협회와 같은 단체, 윤리강령의 제정 및 도서관법을 통해 제시된 배타적 영역의 구축 등 외형적으로는 전문직으로서의 특성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 지식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사서자격증 소지자의 배타적 관할권 독점 실패, 전문직 단체의 사서직 행동에 대한 자율적 통제 기능의 제한 등 내용적으로는 사회적 인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그러므로 우선 사서직이 전문직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현재 수준을 정확히 인식해야 하고, 사서가 전문직이 되기 위해 개인적 차원에서 전문적 지식과 능력, 태도,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인정 요소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1)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

## 전문직으로서 사서의 단련과 성장

### 사서 양성을 위한 과정과 한계

우리나라에서 사서는 언제부터 출현하였을까? 일제강점기에 도서관을 건립한 윤익선과 같은 민족의 선각자들이 있었지만, 이들을 사서라고 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백창민에 의하면<sup>2)</sup> 조선총독부 직원록에 사서는 총 36명이며, 이 중 조선인은 4명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1945년 해방 후에 한동안 사서라는 명칭 대신 도서관, 부도서관이라고 불렀는데, 미(美) 군정 시대에 쓰인 'Librarian', 'Library Assistant'를 직역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서라는 명칭은 정부 수립 후 조선도서관협회가 정부에 사서관, 사서라는 명칭으로 개정해달라고 건의하면서 다시 사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사서교육은 1931년 조선교육회가 주최한 제1회 강습회가 시작이다. 이후 1939년에 결성된 조선도서관연맹이 사서교육 관련 강습회를 주도하였으나, 실제로는 조선총독부도서관이 교육을 주관하였다. 이 강습회는 1943년까지 5회에 걸쳐 진행되다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해방 이후 국립도서관의 이재욱 관장과 박봉석 부관장은 국립도서관 소속의 국립조선도서관학교를 설립하여 사서를 양성하였다. 1947년부터는 도서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제1회 도서관 사업 강습회'를 열어 1년 과정으로 운영하였으나 6·25 전쟁이 발발하는 바람에 운영을 중단하였다.

사서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은 1957년 연세대학교에 도서관학과 학사 및 석사과정이 개설되면서 비로소 시작되었다. 연세대학교의 도서관학 교육은 학과 개설 당시부터 기초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뉘어 사서의 전문성을 지향하였다. 미국 피바디대학교의 교육과정을 모델로 삼았는데, 선진 학문을 도입하였으나 우리의 사회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다. 연이어 1958년 이화여자대학교, 1962년 중앙대학교, 1964년 성균관대학교에 도서관학과가 설치되었다. 이들 대학교는 초창기 우리나라 사서교육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대학교에 도서관학과가 설립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 양성 기능은 축소되었으며 1987년부터 사서직의 '계속교육'만 담당하였다.

2) 백창민 (2019. 8. 22.), 대한민국 사서자격증 1호 취득자의 현재. 오마이뉴스.



사서의 자격과 교육에 대한 근거는 1963년에 이르러 「도서관법」이 제정되고서야 마련되었고, 1965년 3월 26일에 발효된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사서직원의 자격과 구분’의 내용을 담으며 사서직원의 자격을 정사서와 준사서로 구분하였다. ‘도서관 업무의 강습’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 직원에 대한 교양 강습 요청이 있거나 업무 지도에 필요가 있을 경우 강습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동법 시행령 부칙에서 국립조선도서관학교 졸업자와 연세대학교 부설 한국도서관학당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문교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8주 이상의 도서관학에 관한 강습을 받은 자에게 정사서 자격증을 부여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초급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문교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도서관학에 관한 학점을 10학점 이상 취득한 자와 3년 이상 사서 업무 종사 경력과 문교부 인정 기관에서 도서관 실무 실습 5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도 준사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1966년에는 3월 23일자로 문교부에서 제정·공포한 「도서관법 시행규칙」의 ‘강습기관의 지정 범위’ 및 ‘교육과정’ 조항에 사서직원의 자격과 관련한 도서관학의 강습 기관 및 교육과정을 명시하였다. 도서관학과가 설치된 대학교와 국립중앙도서관, 문교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은 도서관 단체는 도서관학의 강습 기관으로 문교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사서 양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1966년 5월 23일 이종문, 백린, 리재철, 장일세, 천혜봉과 같은 도서관계 원로를 포함한 191명이 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그림 2] 제1회 조선도서관강습회 기념사진 © 국립중앙도서관

1987년에 전면 개정된 「도서관법」에서는 도서관에 사서직원, 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를 두도록 하였고, 사서직원을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로 구분하였다. 또 1988년 8월 16일 제정된 「도서관법 시행령」에서는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였다. 그 이후에도 사서 자격교육기관인 사서교육원, 교육 내용 및 이수학점 등 사서 양성에 관련된 필요 사항을 끊임없이 법 조항에 담으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2021년 기준 국내 사서 인력 양성기관은 4년제 학부 과정이 32개교, 2년제 대학 과정이 5개교에 있고, 33개교의 일반대학원에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 밖에도 대학교 부설 사서교육원과 평생교육원이 있다.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된 대학교에서는 부전공이나 복수전공 제도를 통하여 사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2급 정사서나 준사서 자격증이 없어도 문헌정보학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면 1급 정사서 취득이 가능하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사서자격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매년 사서자격증 취득자는 증가하는 추세로 연간 2,800여 명이 배출되고 있다.

하지만 사서 양성의 질적 관리 미흡, 1급 정사서 자격증 소지자의 전문성 확보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도서관에서도 신규 사서의 실무교육, 역량 강화 재교육 등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1987년 이후 사서 자격 기준의 변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연구만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 사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

사서직의 전문성 확보는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두는 분야이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2009년부터 5년마다 수립하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 사서 재교육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표 2〉 연차별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사서교육 관련 과제

제1차(2009~2013)	- 도서관 전문 인력의 재교육 프로그램 참여 확대 방안 모색 - 관종별·직무별·이용자 대상별 특화 사서 재교육 활성화 체계 구축 - 사서 연수 기능 강화를 위한 ‘(가칭) 도서관인력개발원’ 설치 추진
제2차(2014~2018)	- 사서 재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교육기관 설립 추진

---

제3차(2019~2023)

- 사서 직무 분석을 통한 미래 역량 확인
  - 사서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교육시스템(교육과정) 혁신
  - 관종별 도서관 조직 진단 및 조직 혁신 방향 설정
-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은 앞선 계획과 달리 사서의 직무 분석에 따라 미래 역량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와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내용적·방법론적 혁신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과 함께 디지털 기술 활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교 및 사서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혁신 과제까지 포함하였다. 이는 사서교육의 질과 사서 배출의 양적 증가로 인한 문제의식과 함께 현장의 직무 분석을 통한 자격제도, 전문성 확보 전략과 연계된다. 도서관 조직 진단과 조직 혁신 방향의 설정 과제는 직무 분석과 함께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한다. 도서관의 역량이 사서의 전문성과 직결되듯이 조직의 역량은 조직 개발에 따라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계획 종료 시한 내에 최소한의 성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사서직 재교육을 위한 국가 지정 전문교육기관으로 전국의 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서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도서관 직원이 5년에 한 번 이상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전국의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사서직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대면 교육의 경우 연간 교육과정이 한정되어 있어 교육 수요만큼 공급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광역 대표 도서관이 해당 지역 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리적으로 도서관 운영 여건이 흡사하여 상황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도서관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이라는 명칭의 교육과정을 2013년부터 개설하였다. 궁극적인 목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모델을 개발하여 대시민 도서관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도서관 혁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나, 장기적이고 치밀한 교육과정을 설계하지 못한 채 10년 가까이 줄곧 교육 수장을 희망하는 개인 대상의 주제별 기초 소양 위주로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의 공공도서관 대부분은 위탁 운영되거나 규모가 작아 운영 주체나 도서관 차원에서 교육제도가 체계화

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프로그램 기획, 북 큐레이션 등 업무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강의를 개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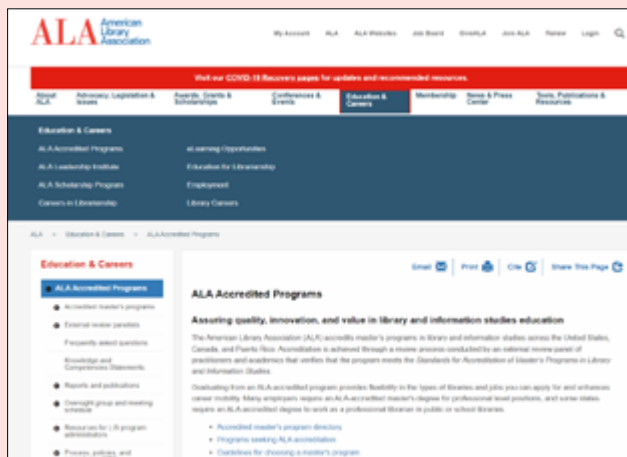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도서관이 휴관한 2021년에는 다른 변화를 시도하였다. 기존의 ‘주제별’ 교육 방식에서 관장, 선임사서 등 ‘직급별’ 과정으로 전환하고, 정보 공유 및 각종 거버넌스와 연계하여 시민의 요구와 인식을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도록 하였다. 교육 방식을 수평적이고 개방형으로 개선하고, 시민이 제안하는 도서관 서비스를 함께 생각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서로 배우며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 것이다.

이외에도 각 단위 도서관이나 도서관협의회와 같은 단체에서 사서들의 역량 제고를 위한 워크숍이나 동아리 활동 등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휴관일에는 매월 워크숍을 진행하여 외부 인사의 강의를 듣기도 하고, 벤치마킹을 위해 외부 활동을 하며 시야를 넓히기도 한다. 최근에는 개인적 차원에서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경우도 늘고 있다. 문헌정보학 관련 대학원 진학은 물론 건축, 도시계획, 행정, 공공정책이나 문화 콘텐츠 등 인접 분야 또는 도서관 업무에 필요한 영역에 진학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도서관의 역할 확장과의 관련이 있을 것이다. 사서직의 전문성 확보,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개인에 이르기까지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외국의 사서 양성과 전문성 확보 노력

외국의 사서 양성 과정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은 어떠하며,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미국은 사서 자격 인증제를 채택하고, 도서관 대표 단체인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가 인증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 ALA는 미국 고등교육인증위원회(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로부터 인정받은 공식 심의기관이다. 문헌정보학 대학원 교육과정을 평가하여 인증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62개 대학교의 문헌정보학 석사 학위 과정을 인증하였다. 미국의 도서관과 정보센터는 사서를 신규 채용할 때 ALA 인증을 받은 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를 선발 대상으로 한다.

사서 재교육의 경우, 미국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은 자관의 신입 사서와 정책정보 서비스 담당자를 위한 인턴십 교육 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있다. 주로 주정부나 주립도서관, 전문직 단체가 도서관 직원의 재교육을 담당한다. 특히 주정부 산하 도서관정책국 또는 각 주립도서관(우리나라의 광역 대표 도서관급)이 사서교육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는데, 워크숍과 이용자 연구, 데이터베이스 및 기술, 프로그래밍, 장서 개발 및 관리, 경영 및 발전 계획, 평가 및 기획 등의 교육을 시행한다. 교육 방법은 오프라인 강좌와 세미나, 토론회, 온라인 수업, 웹 세미나 등 다양한 방법을 적절하게 제공한다.



[그림 3] 미국도서관협회 누리집에 소개된 사서교육과정

ALA도 ‘온라인 교육(Online Learning)’ 과정을 개설하여 도서관의 기초와 발전, 동향 등을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은 장서 개발, 검열, 지적 자유 및 리터러시 같은 이슈와 홍보, 도서관장 대상의 경영관리, 학교도서관 및 도서관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각 산하의 분과에서도 사서 재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웹정크션(Webjunction)<sup>3)</sup>과 같은 기관이나 대학교와의 연계 프로그램 등에서도 사서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영국은 1960년 이후 문헌정보학 교육을 통한 사서 직원 및 연구자 양성을 본격화하였다. 현재 16개 대학교에서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는데, 대학교별 입학 자격과 과정은 모두 다르다. 도서관정보전문가협회(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CILIP)가 영국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서직 전문 단체인데, ‘도서관 정보 전문가’라는 명칭의 공인 자격을 부여하며 공공도서관 사서의 재교육도 담당하고 있다. CILIP의 회원 자격 체계는 전문성과 숙련도에 따라 다른데, 신입 직원 대상의 자격 인증과 정보 전문가로서의 숙련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차터십(Charteriship), 고위직 대상의 펠로우십(Fellowship), 지식 관리 차터십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최초 자격을 인증받은 후에 매년 갱신해야 하며, 자격 인증 과정을 통해 직원의 역량 개발 및 훈련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정보 전문가로서의 숙련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일본은 게이오대학교와 츠크바대학교에 도서관·정보학이 있고, 다른 대학교에는 전공과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2021년 현재 총 203개 대학교(4년제 156개교, 단기대학 47개교)가 도서관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사서 양성 과정과 단기 강습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사서 양성 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교 재학생은 통신교육이나 타 대학교에서 수강할 수 있다. 일본의 사서 재교육은 국립국회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 사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교육 형태는 개별 도서관에 국립국회도서관 직원을 파견하여 교육하는 강사 파견 교육과 집합교육, 원격교육으로 구성된다. 강사 파견 교육은 국립국회도서관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인문, 경제산업 및 과학기술정보 등 전문 분야 정보의 조사 방법과 도서관 자료 보존 등을 교육하며, 집합교육과 원격교육에서는 자료 보존, 법령 및 행정 자료, 도서관 자료의 디지털화, 장애인 서비스, 과학기술정보 등의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일본도서관협회는 연수사업위원회가 사서교육 기획과 시행을 담당하며, 도서관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도 실시한다. 이 연수에서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도서관 서비스, 도서관 전문성 향상 등의 내용을 교육한다.

3) 도서관 직원을 위한 지식, 기술 등의 학습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로 온라인 컴퓨터 도서관 센터(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OCLC)가 운영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우리와 비교해보면, 미국과 영국은 도서관협회 같은 단체가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서 양성과 재교육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대학교의 교육과정을 견인할 정도로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과 자격의 주기적 갱신제도, 자격의 직급별·분야별 세분화를 통해 사회 변화에 따라 사서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일본은 사서 자격 취득의 문호가 넓기는 하지만 취업률이 낮아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상황을 보인다.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의 개선, 자격 갱신 또는 인증제도, 전문 단체의 재교육과정 설계와 실행 등은 우리도 이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및 사서의 가치평가 연구(2020)에서는 현장의 사서들도 사서 양성 교육과정과 자격제도 개선, 재교육과 보수교육 기회의 확대 및 인증제 실시, 정확한 직무 분석과 함께 직무별 전문 재교육 트랙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이제 실행만 하면 된다.

## 현장 사서들의 고민과 실험

요즘 들어 어릴 때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경험 덕에 '사서'를 꿈꾸었다는 사서들을 자주 본다. 하지만 정작 새내기 사서가 도서관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무척 힘들고 혼란스러워한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와 밀접하고 추진 사업도 많아 하루에도 많은 일이 일어나는 역동적인(?) 기관인데,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규모가 작은 도서관일수록 체계화된 오리엔테이션 없이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밖에 없다 보니, 새내기 사서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잡초처럼 성장한다.

사람들은 아직 도서관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종이책 중심의 대출 서비스를 떠올리지만, 이제는 네트워크 기반의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유형의 정보매체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이용 행태는 더욱 복잡해지고 개인화되며 전문화 양상을 보인다. 이런 환경에서 도서관 조직이나 사서 개인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근무했던 서울도서관도 예외는 아니어서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을 탐색할 실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그런 맥락에서 지난 두 해 동안 몇 가지 시도를 하였다. 우선 서울도서관 사

서들은 2020년에 ‘도서관정책실험실 ON’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로부터 도서관 역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외부기관 조사 활동을 통해 도서관의 현재를 되짚어보고 미래의 역할을 탐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또한 지능정보사회에서 디지털 기술로 개인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사회혁신(Digital Social Innovation) 프로젝트를 2년간 진행해 기술 전문가와 사회혁신가, 시민과 사서의 거버넌스 활동을 경험하였고, 기술을 통한 개인의 삶과 사회문제 해결의 장으로서의 도서관 가능성도 타진하였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에는 사서 스스로 역량을 고민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서울도서관이 매년 개최하는 서울지식이음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이자 시민주도형 문제 해결 프로젝트인 ‘아이디어톤 대회’와 연계한 것으로, 일명 사서의 ‘페이스메이커’ 활동이다. 아이디어톤 대회는 정보요구와 문제 해결 과제를 기본으로 하는 대회이다. 참여자들은 이 대회를 통해 도서관 정보 자원에 기반을 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의 핵심 역할을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다. 대회는 시민들이 도서관 서비스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 2개월 동안 주제 관련 조사, 아이디어 전개 과정을 거쳐 솔루션을 제시해 최종 경연대회에서 발표하는 형식을 거쳤다. 사서들은 해당 기간 동안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와 같은 형태로 참여해 시민들의 과제 해결 과정에 함께하였다.

참여 시민들은 먼저 현재 도서관 서비스의 편리성, 정보 적합성, 흥미적 요소와 관련해 이용의 불편 또는 제약 사항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도서관 서비스의 연계, 개인 맞춤형, 트렌드를 반영한 도서관 부가 서비스를 제안해 문제를 해결하였다. 참여자들의 연령, 직업, 지식수준과 접근 방법 등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었기에 사서들은 이용자의 요구를 매우 밀접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이 활동은 기존의 사서 역량 교육과 달리 사서가 직접 이용자와 소통하고, 그들의 요구를 파악하며 스스로 역할과 역량을 진단함으로써 사서들에게 정보 제공자, 정보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사서들은 실질적인 정보서비스와 이용자와의 신뢰 형성, 서비스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능동적 행위의 어려움과 함께 소통 능력의 필요성 또한 알게 되었다.

이 활동에 함께한 시민들이 도서관과 사서를 새롭게 이해하게 된 것도 성과 중 하나이다. 처음에는 사서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참여자들이 회의를 거듭하면서 호칭에 변화가 생



길 정도로 사서를 신뢰하게 되었고 도서관 운영 환경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도서관 조직은 사서가 역량을 연마할 기회를 제공하고, 실패해도 격려하는 조직문화를 제공해야 한다. 사서는 스스로 시민의 정보 욕구와 정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소통하며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런 경험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갈 수 있는 '시간의 축적'이 허락된다면 사서직의 전문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뉴욕공공도서관의 그 사서들처럼 말이다.

## 미래의 도서관, 사서의 도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재난 시기를 지나면서 본격적인 디지털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는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이행되고 정부와 국민의 관계가 수평적 구조를 띠게 될 것이다. 사용자 경험이 중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무너지는 융합이 일어날 것이다. 고객의 이용 행태를 분석·축적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것이며,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위협할 것이다. 다양한 사람이 관계를 맺는 거버넌스가 활성화되고, 삶의 양식과 사회 인프라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기술은 개인과 사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창의성이나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기계가 전담할 것이다.

미래의 도서관은 어떤 모습일까? 이미 종이책을 대체하는 전자책, 듣는 책을 지나 각종 미디어 매체가 전달하는 콘텐츠가 무한대로 급증하고 있다. 도서의 무인 대출·반납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추천 도서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로봇을 활용한 장서 점검도 가능해졌다. 미래의 도서관은 철저하게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고, 정보 플랫폼으로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활발하게 교류하는 양가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공동체가 활성화될 것이며, 더 많은 이해관계자가 상호작용할 것이다. 이에 맞춰 도서관 공간도 재배치될 것이다.

혹자는 도서관이 실존적 위기를 맞았다고 한다.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도서관 디지털 서비스의 확장을 선호하면서도 여전히 종이책의 물성을 탐닉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도서관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다 맞는 말이다. 이용자는 도서관이 수 세기 동안 집중된 '책(종이든 디

지털이든)을 취향에 맞게 선택할 것이고, 도서관은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로 더 확장될 것이다.

미래의 도서관에서 사서는 어떻게 될까? 아마도 'AI 사서'에게 업무 지원을 받으며 '인간 사서'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것이다. 대부분의 정보 제공은 사람보다 똑똑하고 끊임없이 학습하는 'AI 사서'가 담당할 것이고, 심장이 살아 있는 인간 사서의 시선은 사람을 향할 것이다.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양극화와 함께 인간소의 현상이 불가피하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는 정보 부자와 정보 빈자로 이어지며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다. 사서는 가난한 사람, 고립된 사람, 오갈 데 없는 사람을 품어야 한다. 한 사람이라도 더 도서관으로 찾아들게 하고, 이들에게 정보와 콘텐츠를 연결해주는 정보 중개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2009년 ALA는 여덟 개의 '사서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es of Librarianship)'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입문 지식, 정보 자원, 기록된 지식 및 정보의 조직과 정리, 테크놀로지 관련 지식과 기술, 참조와 이용자 서비스, 연구 및 증거에 기반을 둔 실천, 지속적인 교육과 평생학습, 행정 및 운영 관리이다. 2021년도에는 '사회정의' 역량을 추가하면서 공정성, 다양성, 포용의 개념을 전체 역량에 포함하였고 입문 지식에 문제 해결, 비판적 사고, 소통 능력을 추가하였다. 또한 경력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학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는데,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화된 기술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박옥남(2018)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서관 변화에 따른 인재상을 제안하였는데, 표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전공 지식은 물론 정보기술의 융합, 기업이 정신, 소통과 협력 능력, 정보 기획자와 설계자, 공동체에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겸비한 역량을 요구하였다.

4차 산업혁명이 물고 온 지능정보사회에서 도서관과 사서직의 미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도전이 필요하다. 미래의 사서는 지식노동자, 지식 정보 중개자로서 스스로 지식 탐구를 게을리할 수 없다. 또한 기술 사용자로서 능숙해져야 한다. 기술을 문제 해결의 도구로 사용하려면 사서 스스로 기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기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은 필수이다. 사회와 사람에 대한 특별한 관심 또한 필요하다. 미래의 도서관은 사람 간의 대화, 참여, 공유의 플랫폼과 네트워크로 귀결될 것이다. 사서는 많은 이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 속에 사서로서 함께하겠다는 포부를 가져야 한다. 사람들의 인생 마라톤에 기꺼이 '페이스메이커'로 땀 각오를 해야 한다.

이제 사서는 도서관 너머(Beyond Library)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협력의 경험과 함께 다양성, 포용성, 공정성을 배우면 좋겠다. 하고 싶고, 해야 하는 것들을 주저하기보다는 도전하고 실험하고 실패해봐야 단단해진다.

물론 개인적 노력 외에 조직과 국가 차원의 정책적 혁신도 필요하다. 걸림돌이 있다면 함께 건널 수 있는 디딤돌을 놓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사서들이 의지가 충만하다면 많은 이들이 협력하고 도와줄 것이다.

이제 도서관은 장서, 공간의 전통 위에 시민들의 참여 네트워크의 장이자 기술을 통한 사회 혁신의 촉매 역할을 해낼 것이다. 당연히 도서관의 주역인 사서는 사회 혁신의 촉진자가 될 것이다. 지능정보사회 최전선에 사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

---

#### 참고 문헌

- 국립중앙도서관 국제교류홍보팀 (2022, 6. 24.). 호주 도서관 전문가 인증 프레임워크 프로젝트. 월드라이브러리.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 출처: <https://librarian.nl.go.kr/LI/contents/L30101000000.do?schM=view&id=43102>
- 김경집 외 (2017). 도서관 담론-도서관의 미래를 말한다. 수원: 경기도사이버도서관.
- 김기영 (2008).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 논의를 위한 이론적 접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1), 313-333.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21). 사서 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 서울: 동 위원회.
- 박옥남 (2018).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서관 변화와 사서교육 방향에 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1), 285-311.
- 박태연, 한희정, 오효정, 양동민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 도서관 사서의 핵심업무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2), 327-356.
- 백창민 (2019. 8. 22.). 대한민국 사서자격증 1호 취득자의 현재. 오마이뉴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63446&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63446&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오현석, 성은모, 배진현, 성윤주 (2008). 최고 수준 전문가와 보통 수준 전문가의 특성 비교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0(4), 105-135.
- 윤명희 (2020). 공공도서관 사서직 전문성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1), 243-275.
- 윤희윤 (2005). 한국 사서직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3), 45-73.
- 이소연 (2011). 기록관리와 전문성 -실천으로만 보장받는 배타적 특권.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113-138.
- 이제한 (2003). 전문직 이론을 통해 본 사서직의 전문성.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2), 57-87.
-



사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사서의 역사

글 노영희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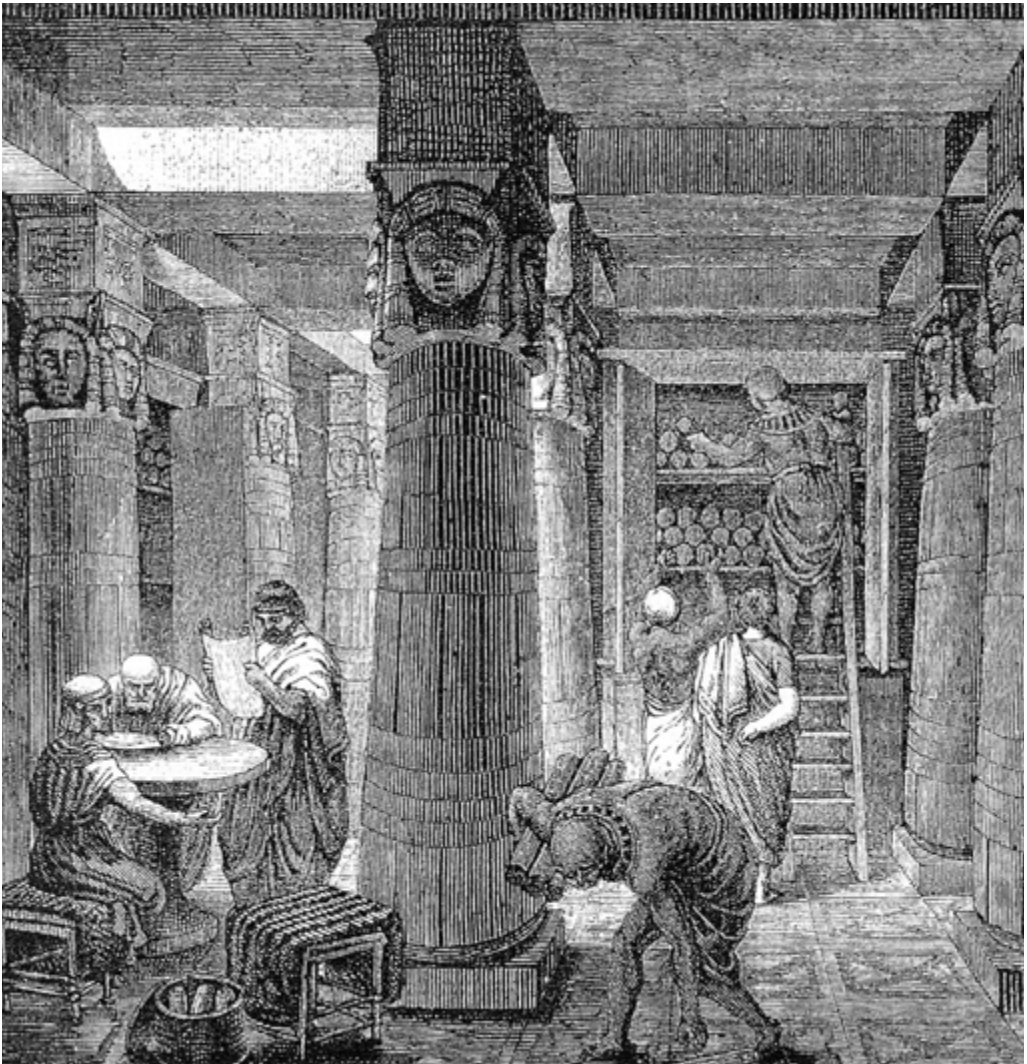
## 사서의 등장 배경과 역할 변화

### 사서직의 탄생과 발전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기록물은 사회·경제적으로, 또 통치 관리를 위해 필요하였다. 그러면서 이를 관리·보존하고, 이용시키는 책임 기관으로 도서관이 요청되었다. 인류 문화의 발달에는 지식과 능력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 도서관의 기능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 어느 시대, 어느 분야든 지식과 능력을 항상 필요로 한다. 그러니 일반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질적으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도서관 정신에 헌신해온 도서관 전문직은 인류 문화의 발달에 공헌한 주요한 인물들임에 틀림없다. 사회생활에서 지식이 지니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강한 신념을 갖고 일생을 지식 추구에 바친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 발전에 헌신하였다. 그 결과, 고대 알렉산드리아도서관(Alexandrian Libraries)의 영광은 산업사회를 거쳐 현재의 지식정보사회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도서관 역사상 최초의 도서관 목록으로 알려진 '점토판 목록'을 만든 수메리안 필사학교 학

생들부터 시작하여 모든 시대에 걸쳐 창조적이고 유능한 학자, 교사, 과학자, 통치자들이 그들의 시간과 재능을 바쳐 도서관의 발전, 운영, 조직에 기여하였다. 역사가들은 고대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의 관장들이 사서이자 선생님이었고 학자였기 때문에 도서관 발전에 더욱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논평하고 있다(Gates, 1968).



[그림 1] 고대 알렉산드리아도서관 © 위키미디어 커먼스

중세에 번창한 수도원의 도서관에서는 기록자(Scribes)이자 도서관 책임자인 수도사들의 노력으로 바티칸도서관과 같은 대규모 도서관이 생겨났다. 중세 말에는 볼로냐, 파리 등지에 대학교가 세워지면서 대학도서관도 함께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인쇄술 발명 이후 많은 책이 생산되었으며 베이컨, 갈릴레오, 데카르트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의 저술은 기록된 지식을 양적으로 증가시켰다. 또한 17세기 후반 이후에는 도서뿐만 아니라 정기간행물, 신문, 팸플릿, 지도 등 새로운 형태의 기록매체가 등장하면서 도서관과 도서관 전문직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Gates, 1968).

1537년에는 프랑스왕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현 프랑스국립도서관)이 설립되었으며, 1638년에는 하버드대학교 도서관이, 1731년에는 프랭클린(Franklin)의 사립 도서관이 필라델피아에 세워졌다. 1814년에는 제퍼슨(Jefferson) 대통령의 자료를 사들여 미국의회도서관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1840년대에 처음으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이 뉴잉글랜드에 세워졌고, 남북전쟁(1861~1865) 이후에는 미국 도서관계가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1876년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ies Association)가 창립되고 멜빌 듀이(Melvil Dewey)가 「듀이 십진분류법(Dewey Decimal Classification: DDC)」을 발표하였으며, 1887년에는 컬럼비아대학교에 최초의 도서관학교가 생긴 것이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도서관 관련 전문 문헌이 많이 발표되었으며, 앤드류 카네기(Andrew Carnegie) 등 많은 자선 사업가들의 후원으로 미국 내에 1,600여 개의 공공도서관이 생겨났다.

20세기 이후 도서관과 도서관학은 눈부시게 발전하였다. 1928년 시카고대학교의 도서관학교에 박사과정이 개설되었고, 1930년대에 마이크로 형태 자료가 개발·이용되었다. 1940년대 이후 전자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 도서관 전문직은 각종 기술은 물론 상상력까지 갖춘 정보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 사서직의 출발, 서기

사서직의 출현은 도서관의 시작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도서관의 출발은 신전도서관으로, 신전에는 행정관이며 정신적 지도자인 대신관을 중심으로 각기 특정한 직분을 가진 많은 신관이 있었고, 이들 밑에는 신전을 관리, 운영하기 위한 직인이 있었다. 이들 직인 가운데 서기가 있었는데, 이 서기를 사서직의 출발로 본다. 서기는 시민들이 세금이나 재물로 신에게 바치기 위해

신전으로 가져온 여러 산물에 대해 기록하고 영수증을 발급했으며, 이러한 기록을 다음 해 재물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보존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제례, 기도, 찬송 등 신과 의식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전파하였다. 이러한 각종 기록은 신전의 한곳에 모이게 되었고 이것이 신전도서관이 되었다. 즉, 이것이 도서관의 출발이자 사서직의 출발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후 나타나는 왕궁도서관도 이렇게 출현하고 서기가 동일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박준식, 1986).

### 지도 계층으로서의 서기

고대사회의 신전도서관과 왕궁도서관이 생겨난 배경과 서기의 역할로 보아 서기는 지도 계층이자 국가 관리인인 동시에 문헌의 기록자이며, 생산자이자 기록의 관리인이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사서직은 문헌을 생산하고 기록하고 보존하며, 후세에 전승하는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서직의 역할은 이후 수메르,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시대를 거치면서 더욱 확고해졌고, 새로운 역할이 지속적으로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 최초 사서의 역할

도서관 생성 초기 사서의 역할은 아시리아 말기의 통치자인 아슈르바니팔(기원전 668~626) 왕대에 이르러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아놀드 C. 블랙만(Arnold C. Brackman)이 지은 『니네베 발굴기(The Luck of Nineveh)』와 기타 역사적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당시 도서관과 국가의 연대 관계를 비롯하여 도서관의 탁월성을 알 수 있다(아놀드, 1990).

첫째는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수집이다. 왕은 수많은 서기를 고용해 점토판을 제작하는 한편, 이웃 나라에 파견해 광범위하게 점토판들을 수집하고 번역하게 하였다. 둘째는 수집 자료가 왕의 통치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학문의 전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이를 정부 관계자와 종교인, 지식인들에게 개방해 당대의 학문이나 지식의 진보에 공헌하였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주제별 자료실 제도, 분류나 목록의 사용, 서지, 색인 등의 원형이 될 만한 개념을 이미 도입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당시 도서관의 우수성을 알 수 있다.

아슈르바니팔 시대의 사서들은 이전의 역할을 대부분 계승하였지만 그 형식은 전혀 다르다. 사서들은 문헌 생산을 위한 기록과 체계적인 수집, 분류와 목록 등의 사용, 주제별 자료실 개념



의 도입 등을 통한 체계적 보존과 전승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더불어 학자나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역할의 시도로 보인다.

## 사서 역할의 극대화

고대사회에서 사서의 역할이 극대화된 사례는 헬레니즘 문명기에 이르러 절정을 맞는다. 도서관과 국가 발전의 상호작용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이 문을 연 것이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역대 왕들은 많은 서기를 고용해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필사하게 하고, 서기들을 이웃 나라로 파견해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원본을 모았다.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의 장서는 전성기 때에는 50만~60만 권에 이르렀는데, 이 도서관에 근무했던 사서들이 학자 문헌사(Scholar Librarian)로서 기능했다는 사실이 가장 두드러진다. 이 도서관이 배출한 학자 문헌사는 무수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문법학자였던 제노도투스(Zenodotus), 연대지와 지리학의 창시자 에라토스테네스(Eratosthenes), 천문학자 히파르쿠스(Hipparchus), 기하학자 유클리드(Euclid)가 있다. 그리고 철학자 헤로필로스(Herophilus), 위대한 기계공학자 아르키메데스(Archimedes),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Ptolemaios)도 있다. 또한 이 도서관이 이교도의 성전이라 하여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시릴루스(Cyrillus) 주교의 사주를 받은 일단의 야만적인 기독교인들에게 머리 가죽이 벗겨지는 참혹한 최후를 맞은 여성 수학자 히파티아(Hypatia)도 이 도서관의 학자 문헌사였다(박준식, 1993).

당시 사서들이 수행한 역할은 아슈르바니팔 시대에 수행하였던 문헌의 기록자 및 생산자(출판인), 체계적인 수집자, 보존과 전승자 등의 역할 외에 몇 가지가 추가된다. 첫째는 문헌의 단순한 정리자가 아닌 서지학자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이 도서관에는 10개의 주제별 연구실이 있었고,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 분야에 따라 한곳에 배정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책으로 저술하고, 이를 분류·편목하고, 관리하였다. 분류·편목도 오늘날 도서관에서 하는 것과 같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문헌학적 또는 역사적인 비평, 내용의 평가와 진위 판별, 판종(版種)의 비교를 통한 정확한 원문의 제작 등 문헌의 정리 그 자체가 학술이고 문화였다. 따라서 이 도서관의 사서들은 단순한 사서가 아니고 학자 문헌사였던 것이다.

## 서비스 제공자 기능 강화

이와 더불어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의 사서들은 오늘날의 도서관 사서처럼 서비스 제공자로서 기능하였다. 도서관이 설치된 궁내의 브루케이움(Brucheium) 지역은 학자들을 위해 완전히 개방되었고, 도서관의 별관이었던 세라피움(Serapeum) 역시 일반인을 위해 공개되고 활용되었다. 이 당시 사서에게 수행되었던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기능은 근세 도서관에 이르러 비로소 부활된다.

## 도서관의 기능 약화와 사서직의 쇠퇴

고대사회에서 정점을 이루었던 사서직의 위상과 역할은 로마 시대로 접어들면서 급속히 약화되었다. 로마는 근본적으로 문명화된 사회가 아니었으며, 그리스를 점령한 다음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 서서히 문명화의 과정을 밟았다.

## 사서 또는 사서 보조가 된 노예

로마는 점령지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을 전리품의 일부로 데려왔고, 이 노예들이 사서 또는 사서 보조의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과거와 같이 문헌을 기록·번역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더러는 귀족의 개인 문고를 돌보며 여러 저작을 외우고, 파티가 있을 때는 주인의 명에 따라 내용을 구술하는 ‘인간 도서’의 역할도 하였다. 그러나 어느 도서관에서도 고대사회의 도서관처럼 문헌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지도, 분석적으로 정리하지도 않았다. 이미 도서관은 과거와 같은 왕의 기록 보존소도, 학문 연구를 위한 학술 도서관도 아니었다. 중세사회가 되기 전에 이미 문화적 암흑기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던 것이다.

## 암흑기와 문명의 후퇴

중세사회는 천년의 긴 기간이 암흑사회로 표현될 만큼 철저하게 후퇴했었고, 도서관이나 사서도 동일한 운명에 처하였다. 도서관은 수도원의 부속기관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장서 몇백 권을 이야기하는 도서관이 어찌 도서관일 수 있겠는가? 중세 초기에는 수도승들이 사서직을 겸직하고 있었다. 일부는 종교 서적을 만들거나 번역하는 일을 주로 맡으면서 최소한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은 중세 후반의 대학도서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이후의 인문주의 시대나 17~18세기에도 도서관의 르네상스는 오지 않았다.

## 근대 도서관의 상황과 사서의 역할

### **교육 활동과 불가분의 관계가 된 도서관**

도서관 활동에 상당한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반 이후이다. 이때부터 미국의 공공도서관들이 장서를 포함한 여러 방면에서 충실해져 1870년대 중반까지 발전을 가져왔고, 대학도서관들도 1870년경부터 학술 활동 재편을 계기로 새롭게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교수법이 개선돼 도서관이 교육 활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자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이 날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객관적인 상황들은 결국 '도서관 이용 지도'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Samuel, 1953).

### **교육자로서 사서의 역할**

이 시기에 새롭게 형성된 사서직의 역할이 교육적인 역할이다. 그 당시 사서들은 도서관은 시민의 대학교로, 사서는 교육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용자가 도서관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위 '이용자 협조(Aids to the Readers)'가 교육의 근간이었다. 이는 오늘날 인본주의적 서비스의 토대가 된다. 이 시기의 인적 협조는 이용자에 대한 지도이자 안내로 다분히 계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교육적 신념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서 소위 '가르치는(Teaching)' 활동으로 방향이 전환되었고, 이는 도서관의 핵심 기능으로 자리 잡게 된다.

### **주제 전문가로서 사서의 역할**

20세기 전반의 가장 중요한 진전은 대규모 공공도서관들이 주제 부문 제도를 시행한 것이다. 주제 부문 제도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사서들의 역할을 변용시켰다. 하나는 사서를 주제 전문가로 바꾸어놓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주제 전문가는 이용자 서비스를 보다 전문화해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다른 하나는 이용자 지향적 서비스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용자 지향적 서비스의 모형은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것

보다 특정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이용자를 보다 전문적으로 돕는다는 의미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Virginia, 1995).

### 차원 높은 수준의 정보서비스 제공자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기업체의 연구·개발 부문 도서관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도서관 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선진화된 도서관에서는 사서가 문헌을 탐색하고, 그 유용성을 평가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초록(抄錄) 속보를 만들고, 통계자료를 수집해 관리하며, 자료를 번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서비스의 수행은 주제 전문가에 의한 정보서비스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전문도서관이 도서관 서비스의 발전에 기여한 점은 장서 구성이나 소장보다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서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점이다(Thomas, 1977). 이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차원 높은 수준의 정보서비스를 시행한 것으로 평가되며, 과거 공공 및 대학도서관에서 선호되었던 지도와 안내 기능은 퇴조되고 정보 제공이 강조된 것도 이 시기의 한 특징이다.

이상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에 걸쳐 사서직이 수행했던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는 교육적 역할, 독서 상담자 역할, 그리고 정보 제공자 역할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전통적인 사서의 역할

인류는 오래전부터 문자와 서사 자료를 통해 기록을 남겼다. 사서는 그 기록을 수집·정리·보존해 지식의 보고인 도서관을 만들고, 그 지식을 후세에 전승하고 서비스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 오랜 기간에 걸쳐 다져진 사서의 역할을 고먼(Gorman, 2000)은 <표 1>과 같이 일곱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표 1〉 고먼이 말하는 사서의 역할

사서 역할	주요 내용
자료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 출판된 저널, 악보, 녹음본, 필름과 비디오, 원고, 마이크로폼 등 다양한 자료를 도서관 장서에 포함</li> <li>- 승인받은 도서관 수집 계획에 의해 수집 자료의 종류 결정</li> <li>-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일환으로 전자 자원을 찾고, 구매하거나 구독</li> </ul>
자료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적인 주문이나 수집 계획에 따른 구매</li> <li>- 저널이나 전자 자원 구독</li> <li>- 수증, 교환</li> </ul>
자료 조직과 접근점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또는 국제표준에 따른 목록 작성</li> <li>- 물리적인 자원의 조직과 온라인 시스템의 주제 검색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자료 분류</li> <li>- 온라인 시스템의 생성과 유지</li> <li>- 국가서지와 종합 도서 목록에 서지 레코드 포함</li> <li>- 도서관의 물리적인 장서 유지</li> </ul>
자료 보존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리적인 장서가 최상의 상태로 미래 이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 보존</li> <li>- 물리적인 마지막 카피(Copy)본을 보존하기 위해 다른 도서관들과 협력</li> <li>- 전자적인 도서와 자원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협력</li> <li>- 특정 매체의 변환</li> </ul>
이용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도서관 이용자에게 훌륭하고 접근 가능한 참고봉사 제공</li> <li>- 도서관 자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도서관 환경과 시스템도 이용자 친화적으로 생성, 유지</li> <li>- 도서관 이용자들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장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지</li> <li>- 모든 형태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li> </ul>
이용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인 도서관 이용법, 기본적인 컴퓨터 기술,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평가하고 활용하는 방법, 특정 질문에 관련 답변을 구하는 방법, 창의적 사고법 등을 이용자에게 교육</li> <li>- 정규 이용자 교육이 실행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한 환경일 때는 선행 기술에 대한 교육을 참고 서비스에 통합</li> <li>- 이용자 교육 시에는 가능한 최신의 교육학적 방법론 활용</li> </ul>
도서관 운영과 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의 전체적인 운영과 경영</li> </ul>

고문이 정리한 것처럼 사서는 다양한 형태의 인류 지식을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조직·정리해 최상의 방법으로 서비스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런 사서의 기본적인 역할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내용이 점점 추가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본질과 가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 국내 사서직의 출발

### **최초의 사서 양성**

한국에서 사서 양성이 공식적으로 처음 시작된 곳은 ‘국립조선도서관학교’로, 당시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이었던 이재욱과 부관장 박봉석이 주축이 되어 설립되었다. 1946년 2월 19일 미군정 당국과 협의만 마친 상태에서 2월 25일부터 1기생 모집이 이루어졌고, 3월 19일에 정식인가를 받으면서 4월 1일부터 사서를 양성하는 전문직 교육기관인 국립조선도서관학교가 정식으로 개교하였다. 이후 이 학교에서 총 77명의 전문사서가 배출되었는데 졸업자 중에는 박희영, 이재철, 천혜봉, 이철규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최초의 사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직원록에는 이금중, 성달영, 이재욱, 박봉석 등이 도서관 사서로 등재되어 있지만, 최초로 사서자격증을 발급받은 사서는 1966년 2월 2일 ‘준사서’ 1호로 등록된 이규동(원암 이규동)이다. 그는 1953년 5월 28일부터 1958년 6월 13일까지 경북대학교 초대 도서관장을 지냈고, 1955년부터 1959년까지 한국도서관협회 이사로 활동하였다. 국내 최초로 ‘정사서’ 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이종문으로 알려졌다. 그는 1966년 5월 23일에 자격증을 받았으며, 그 당시 한국도서관협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정사서 자격증 2호 발급자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오랫동안 사서로 일하고, 『한국도서관사연구』를 저술하기도 한 백린이다. 1966년에는 그 밖에도 리재철, 장일세, 박희영, 천혜봉 등을 포함한 총 191명이 사서자격증을 발급받았다.

## 정보사회의 도래와 사서직의 변화

인류가 문자와 서사 자료를 발명하여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후부터 기록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 보존하고 이용하도록 하는, 오늘날 정보센터로도 불리는 도서관은 핵심적인 지식의 보고였으며 사서직은 지식을 다루는 정보전문직(Information Professional)의 역할을 그 어느 정보전문직보다 오랫동안 수행하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출현한 정보학과 정보기술의 발전은 정보의 중요성을 더 광범위하게 인식시키고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정보전문직을 탄생시켰다. 오늘날의 정보전문직은 사서직을 포함하여 회계사, 고문서관리자, 기록관리자, 정보시스템분석가, 경영학자, 박물관의 큐레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를 다루고 있다(Mason, 1990). 앞으로 정보전문직이 종사하는 직종은 더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정보전문직임을 주장하는 직종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서직이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하여 자료를 수집·분석·정리·추적·보존 및 이용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직종이라면 보다 넓은 의미의 정보전문직은 도서관이라는 기관의 한계를 벗어나 정보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확인하고 수집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분석해 조직하거나 추적하여, 이용자들의 정보요구가 발생했을 때 가장 적절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정보관리자의 기능을 맡는다.

정보전문직 기능은 사서들이 오랫동안 수행해온 것처럼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도서, 문헌, 잡지의 형태로 수집하고 이용자들이 필요로 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서직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기능과 큰 차이는 없다(Mason, 1990). “사서들은 늘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정보를 모아 추적해 검색할 수 있는 형태로 보존하고, 보존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들을 해온 것이다. ‘정보사회’가 왔다고 그러한 기능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도구가 다른 것이다”라는 베링(Berring)의 언급이 이를 잘 표현한다.

메이슨도 “무엇보다도 정보전문직에게는 정보와 정보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지식은 올바른 고객에게 적절한 자료에서 적합한 정보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 형태로, 아울러 이용을 합리화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제공하는 정보전문직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다”(Mason, 1990)라는 말로 정보전문직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이 말도

오랫동안 사서직의 도서 선택에 적용되었던 “적서(適書)를, 적시(適時)에, 적자(適者)에게”라는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도서관학이 ‘문헌정보학’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도서관을 통해서만 자료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매체와 통로가 다양해지면서 학문의 중심이 도서관에서 정보와 이용자 중심으로 옮겨진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야기된 것이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정보전문직과 문헌정보학과가 배출하는 정보전문직은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사서직을 포함하는 정보전문직은 도서관을 기반으로 하든, 그렇지 않은 특정 이용자들을 위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 축적과 보존, 그리고 이용이라는 경계를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확대되는 사서의 역할

사서직을 포함하는 정보 전문직은 이용자와 정보를 연결하는 매개자 역할을 한다. 셰라(Shera)는 인류 문명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기록 자료의 사회적 유용성을 최대화하는 것”(Shera, J. H., 1972)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실현하는 것이 사서들의 몫이다.

정보전문직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정보를 확인해서 수집하고, 이용하기 쉽게 조직하여 보존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 교육, 학습, 연구, 문화 및 오락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바지한다. 오늘날 도서관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이용자들이 독서를 하거나,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결과와 혜택에서 유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도서관의 목적은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도서관과 이용자가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사서의 매개자(Mediator) 역할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사서직은 현재까지도 정보 매개자 역할을 통해 인류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정보전문직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았던 사회는 없었을 것이나 정보가 주 자원인 정보사회에서 정보전문직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으나, 정보사회는 쉽게 말해 사람들이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좋은 정보가 많이 만들어지는 사회이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는 사회가 정보사회의 핵심 요건이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곳이 도서관이고 제공해주는 사람이 사서들이기에 도서관의 발전과 도서관 서비스가 널리 보급되지 않은 정보사회는 알맹이 없는 공허한 구호일 뿐이다.

정보사회의 또 다른 특징은 정보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사서직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정보의 범람 속에서 헤매다가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려는 의지마저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서가 더욱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미래 정보 전문가가 되려면 고객의 정보요구를 예측하고 만족시켜야 하며,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고객 개인의 요구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시스템과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미래의 정보요구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미래의 사서는 정보와 정보요구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고, 정보를 계획하는 사람, 정보봉사의 관리자, 그리고 정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처럼 정보 전문가들이 새로운 정보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면, 계속 증가하는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헌자가 된다는 것이다(Rubin, 1998).

무엇보다도 분명한 것은 정보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전문직의 봉사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이제는 사서들에게 인쇄, 전자, 마이크로 형태의 정보에 관한 모든 지식과 판단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기심을 버리고 지적 자유에 헌신하면서 전문적인 정보봉사를 제공하고, 고객들의 정보요구에 봉사함으로써 지적이고 인간적인, 중요한 가치를 보호하는 문화 용사(Cultural Warrior)의 역할까지 제안되고 있다(Ostler, L. J., Dahlin, T. C. and Willardson, J. D., 1995).

정보와 이용자를 매개하는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이용 능력(Information Literacy)'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정보사회에서 정보 전문직이 맡아야 할 새로운 역할이다. 이용자가 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필요한 형태의 정보를 파악하고 적절한 정보원을 이용해 원하는 정보를 찾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정보사회에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다른 전문직이 할 수 없는 사서직 고유의 임무이다.

## 지식 기반 사회에서 사서의 역할 변화

사서의 역할은 그 직업이 성립된 이래로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이 있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주어지는 것도 있다.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은 문헌의 수집, 정리, 보존, 전송처럼 조직 내 부적(대내적)인 속성을 지닌 것들이다. 이러한 역할은 각 시대적 특성에 따라 그 형식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근원적으로 도서관을 형성하는 기본 요소로서 필요하고 가치를 가지는 것들이다(박준식, 2000). 반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주어지는 것은 정보 전문가와 지식 관리자로서의 역할이다. 니콜라스 베스트(Nicholas Best)는 사서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그 명칭을 다음과 같이 33가지로 나누어 표현하기도 하였는데(김현희, 1999), 명칭의 다양성만큼 역할도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가상사서(Virtual Librarian), 교섭자(Negotiator), 그래픽디자이너(Graphic Designer), 기업가(Entrepreneur), 데이터베이스 관리자(Database Manager), 데이터베이스 셋업 계약자(Database Set-up Contractor), 디지털라이저(Digitizer), 랜 관리자(LAN Administrator), 디지털 공학자(Digital Technologist), 레코드 관리자(Records Manager), 리패킹 전문가(Repackaging Specialist), 마켓 연구자(Market Researcher), 배포자(Disseminator), 분석가(Analysts), 세일즈맨(Sales Person), 수집물 개발자(Collection Developer), 시스템 관리자(System Administrator), 웹마스터(Webmaster), 인터넷 안전 분석가(Internet Security Analyst), 전략가(Strategist), 전자 저널리스트(Electronic Journalist), 조직자(Organizer), 중개인(Broker), 지식 생성자(Knowledge Worker), 창조자(Creator), 초록 작성자(Abstractor), 컨설턴트(Consultant), 팀멤버(Team Member),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 코더(Hypertext Markup Language Corder), 학습 지원자(Learning Assistor), 항해자(Navigator), 훈련자(Trainer)

---

또한 박준식(2000)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에 걸친 시기에 사서의 역할을 교육적 역할, 독서상담자 역할, 정보 제공자 역할로 요약하며, 새로운 정보환경에서 사서의 새로운 역할 모델로 교육 전문가, 상담 전문가, 탐색 전문가, 정보 중재자, 주제 전문가, 문화 기획자 등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 도서관 자료의 이용 방법뿐만 아니라 전체 정보 자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전문가
- 독서상담, 독서치료, 논문 작성에 대한 협조, 연구자들의 연구 협조와 자문 등의 역할을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상담 전문가
- 전자적 탐색 기법에 능숙하고, 정보탐색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개인이나 단체의 의사결정을 바르게 도울 수 있는 탐색 전문가
- 해답을 탐색하고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그 정보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그 정보가 요구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자문해주는 정보 중재자
- 분야별로 정보서비스를 전문화시키고, 정보의 탐색과 정보 중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제 전문가
- 도서관 이용과 재정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문화 기획자

그 밖에 김현희(2000)는 디지털도서관 환경하에서 사서의 역할을 정보 컨설턴트, 정보검색사, 지식공학자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2015년 이후 데이터 관련 기술이 급성장하면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는 표현을 사용할 만큼 초연결되고 초지능화된 사회에 놓이게 되었다. 도서관은 ICBM<sup>1)</sup>으로 대표되는 기술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고, 정보전문직 역시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식정보화사회는 이미 지능정보화사회로 나아가고 있으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능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인간은 점점 단순 노무나 반복 업무에서 멀어지며 창의성의 발현이 더욱 중요해진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문화다양성을 아우르는 지역공동체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도 중요해진다(한희정 외, 2018). 도서관은 인류 지식의 보고라는 역할을 이어가면서도 인간이 급변하는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동시에 서비스 발굴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또한 중요하다(박옥남, 2018).

박태연 등(2018)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서관 핵심 업무를 밝히기 위해 미래 사서 핵심역량과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의 능력 단위 요소를 매핑해 사서 직무 8개 영역(도서관 및 정보전문직의 윤리·가치, 도서관 및 커뮤니케이션 역사, 지식사회

1)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의 약자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뜻한다.

에서 도서관 및 사서의 역할 변화, 도서관 및 사서의 권익 옹호 활동, 커뮤니케이션 기법, 도서관 서비스와 저작권, 저작권 및 라이선스 계약, 개인정보 관리)과 56개 항목을 구성한 바 있다.

## 데이터와 지식을 다루는 사서의 역할

정보를 다루던 전통적인 사서의 역할은 이제 데이터와 지식을 다루는 범위까지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정보과학자로서 사서는 데이터 수명주기 및 수집, 사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간단한 예시로 아래와 같은 업무가 추가될 수 있다(Marchionini, 2016).

-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윤리적 및 법적 조건(예: 사전 동의, 개인정보 및 법적 규정)
- 데이터 평가, 데이터 품질이나 정제
- 기계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사람들이 해석할 수 있도록 문서 맥락(예: 측정 단위, 센서 조건 및 어휘 제어)에 메타데이터 할당
- 데이터 저장과 보존(예: 복제 및 인증 정책), 관련 처리와 사용(예: 데이터 정리, 적용된 분석 알고리즘과 전체 작업 흐름)
- 데이터 탐색과 분석을 기반으로 결론을 평가하고 데이터와 작업 흐름을 찾고 재사용

그 밖에도 다양한 사서 업무가 등장하고 있다. 셰리넷(Cherinet, 2018)은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분석해 새롭게 떠오르는 사서의 역할을 데이터 관리인, 정보 관리자, 지식 관리자, 기술자, 교육자, 연구자, 출판가, 디지털 사서, 혁신가, 기업가, 파트너, 컨설턴트, 교과과정 개발자, 정책 고문, 미디어 전문가, 독서 옹호자, 저작권 감시 단체, 개인정보보호 옹호자, 필터, 데이터 전문가, 임베디드 사서(Embedded Librarian,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서), 사회복지사, 혼합 사서(Blended Librarian, 전통적인 사서 역량과 기술력을 모두 갖춘 사서), 라이선스 협상가, 사서 2.0 등으로 정리하며 이것이 새로운 시대를 맞는 사서의 역할이라고 말하였다.

## 기술을 다루는 사서의 역량

홍현진(2000)은 문헌 연구를 통해 미래의 정보전문직에게 필요한 능력을 정보원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경영 능력, 기술 능력, 대인관계 기술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능력, 정보 자원과 서비스에 관련된 능력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능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경영 능력은 전략·정책 수립 및 적합한 경영 기법 활용 능력, 도서관 내외부에서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찾으며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주요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계획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전문협회에 가입하여 지식과 기술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유연하며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관리자들을 위한 핵심 능력으로는 정보환경에 대한 이해, 팀 형성, 리더십, 마케팅 능력 등이 있다.

둘째, 기술 능력은 늘 새롭게 변화하는 정보환경에 직면하는 사서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익숙해야 하며 자동화된 시스템의 특성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컴퓨터 전문가나 벤더(Vendor)와 더불어 동등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정보사회에서 정보전문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들을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이 기술들을 적용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란 정보검색 도구들이 계속 발전하고 검색기법들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정보전문직이 이러한 정보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이용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대인관계 기술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능력을 바탕으로 한 이용자 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기 때문에 정보화사회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능력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정보 자원, 정보서비스에 관련된 능력 요소들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보전문직에게는 필수적인 능력이다. 정보원에 대한 전문 지식과 정보원 평가 능력, 전문화된 주제 지식 획득, 효과적인 정보서비스 개발 및 개선 능력, 정보서비스 결과를 평가하고 정보 관리 문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능력이 여기에 포함된다.

사서는 업무 환경에서 더 다양한 기술을 접하게 되는데, 늘어나는 기술의 종류와 함께 사서가 다루어야 할 지식과 경험은 다음(44쪽)과 같이 정리된다(Ratledge & Sproles, 2017). 이는 미국도서관협회의 구인 코너에 실린 정규직 대학도서관 사서 공고를 참고로 하여 지식, 경험의 필요성을 추려낸 것이다.

- 
- 기술지식의 적용
  - 서지 유틸리티/ILL 시스템/라이브러리 기술/경험/지식
  - 예산 관리 경험
  - 의사소통/개인 기술 및 능력/협업 능력
  - 교과과정
  - 컴퓨터 프로그래밍 경험/지식
  - 저작권 경험/지식
  - 고객센터 경험/지식
  - 디지털 컬렉션 관리 경험
  - 디지털도서관/제도적 저장소 경험/지식
  - 디지털 보존 지식
  - 정량/정성 데이터 사용 경험
  - 일반 IT/서버/네트워킹/프록시 경험/지식
  - 보조금 작성 경험

- ILS 경험/지식
  - 교육 경험/지식
  - 도서관 경험/지식
  - 물리적 요구 사항
  - 프로젝트 관리 경험/기술
  - 판촉/임시 요건
  - 참조 경험/지식
  - 학문적 의사소통 경험
  - 소셜 네트워킹 경험
  - 감독 경험/능력
  - 시스템 경험/지식
  - 기술 서비스/메타데이터 경험/지식
  - IT의 문제 해결/문제 해결
  - 웹 기술 및 디자인/전자 자원 경험/지식
-

#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

## 전문직의 정의

일반적으로 직업은 자격이나 조건 없이 누구나 원하는 때에 종사할 수 있는 직업과 소정의 교육이나 절차 혹은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한 직업으로 구분한다. 후자의 경우가 대부분 전문직에 속하는 직업이다. 영어로는 ‘Profession’이나 ‘Professional’의 의미로 보통 누군가가 특수한 기술이나 재능을 가진 경우, 혹은 어떤 일에 매우 능한 경우에 아마추어의 경지를 넘었다고 칭하며 ‘프로페셔널’을 줄인 ‘프로’라고 부르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무엇인가에 능통하다는 의미의 전문직이라는 용어는 널리 알려져 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은 전문직(Profession)을 ‘특정 분야의 학문이나 과학에 대한 전문 지식을 타인의 일에 적용하거나, 또는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한 기술을 실제로 사용하는 직업’으로 정의하면서 특히 신학, 법학 및 의학 등 세 학문 분야의 전문직에 적용돼온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더 학술적인 정의의 전문직은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업으로, 이러한 지식과 기술은 전문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최소한 그 일부만이라도 이론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교육과정에서 습득돼야 한다. 아울러 대학교나 다른 인정된 기관에서 어떤 형태로든 테스트를 받고,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객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권위를 갖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는 대부분 상품을 만들어 배포하는 데 종사하기보다는 특정 직업의 구성원들이 봉사하는 직업을 의미한다”는 것이다(Gould, Julius and Kolb, William L., 1964).

최성진(1992)은 전문직을 한 문화 안에서 사회제도와 실행기관 간의 상호관계로 이루어지는 사회조직의 틀 속에서 활동하며 사회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쉽게 말해 전문직은 의사나 변호사처럼 사람들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봉사를 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 동안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고,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 전문직의 특성

전문직과 전문직의 조직은 19세기에 들어와서 의학, 법학 그리고 과학처럼 이론적인 지식과 훈련이 많이 요구되고, 오랜 학문을 바탕으로 실행되는 것이 인정된 여러 분야의 직업에서 나타났다. 전문직이 되는 과정은 전문직에 들어오는 이질적인 종사자들을 일련의 동일한 기준이나 규칙에 따라 통합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는 전문직의 인가 기준, 자격증, 윤리, 자율 규제를 위한 협회 및 법적 인정과 보호들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것들과 아울러 전문적인 업무가 가진 상대적인 자율성, 전문직의 활동에 부여되는 명성들이 다른 형태의 업무와 업무 종사자들의 조직을 전문직과 구분하는 것이다(Calhoun&Craig, 2000). 여러 학자의 저술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전문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Kuper&Adam and Kuper&Jessica, 1996).

- 이론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한다
- 훈련과 교육의 기회가 제공된다
- 구성원들의 능력을 시험하는 제도가 확립돼 있다
- 조직을 구성한다
-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 남을 위한 봉사 정신이 요구된다

전문직은 특정 직업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있으며, 이러한 지식과 기술은 종합대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등 전문직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이기적인 목적이 아닌 타인을 위한 봉사로, 고객을 위한 봉사 정신이 요구될 뿐 아니라 철저하게 자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봉사를 제공한 전문직에게는 이에 따르는 책임이 주어진다.

이처럼 분명하게 명시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전문직의 업무 수행을 독점하게 된다. 이들은 철저하게 정해진 윤리강령과 자격제도를 통해 업무의 수행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직의 발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협회를 구성한다. 아울러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한 것도 일반 직업과 비교되는 전문직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 정보전문직의 판단 기준

전문직의 특성은 전문직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기본 조건으로서 이는 곧 전문직으로 성립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 또는 기준을 말한다. 아브라함 후레스너(Abraham Flexner)는 다음 여섯 가지를 전문직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1) 개인적인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지적 활동이다. 2) 전문직의 지식과 기술은 학문을 통해 얻는다. 3) 지식과 기술은 실제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4) 필전(秘傳)되는 특수한 교육을 가진다. 5) 자율적인 통제가 따른다. 6) 활동은 이타적 동기에서 출발한다.

반면 미론 리버만(Myron Liberman)은 1) 사회봉사, 2) 지식(장기간의 교육훈련), 3) 자율성, 4) 자치 조직, 5) 윤리강령 등을 전문직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정필모, 2001). 또한 김중한(1970)은 전문직의 기준으로 1) 사회가 깊은 학문적 배경이 필요한 전문직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사회적 가치에 합당한 보수를 주는 동시에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발부한다, 2) 전문 지식과 학식을 갖추고 능숙한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3) 고객에 대한 봉사 책임을 진다, 4) 전문 단체에 대한 관계가 소속 기관과 거의 같을 정도로 충실하다, 5) 직업단체와 분리된 학술 단체에 속한다 등 다섯 가지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 마무리하며

역사적으로 도서관들은 당시의 문명과 문화의 산실로 기능해왔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수메르 문명이 전성기를 구가하던 기원전 2400년에는 에블라 왕국의 에브룸왕궁도서관이 있었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서관으로 일컬어지는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은 헬레니즘 문명기에 만들어졌다. 이처럼 도서관의 발생부터 약 47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서들은 그 역할을 비교적 잘 유지해왔다고 평가받는다(박준식, 2000).

사서들은 정보를 모아 축적해 검색할 수 있는 형태로 보존하고,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들을 수행해왔다. 사서직이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하여 자료를 수집·분석·정리·축적·보존 및 이용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직종이라면, 보다 넓은 의미의 정보전문직은 도서관이라는 기관의 한계를 벗어나 정보의 특성을 이해하고, 대상 이용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수집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분석해 조직하거나 축적하여, 이

용자들의 정보요구가 발생했을 때에 가장 적절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지식정보화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보량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한 정보의 범람 속에서 사서들은 이제 이용자들이 미래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예측해야 하고,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원을 수집하여 제공해야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해 이용자의 미래지향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사서의 위상을 높이려면 도서관의 사회·문화·교육·경제적 가치를 끊임없이 발견하고 이러한 가치를 실현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사서의 역사는 찬란하게 계속될 수 있다. ●

---

## 참고 문헌

- 김중환 (1970). 도서관계 전문직과 관계 학문의 재규정. 도서관학(한국도서관학회), 제1집, 133-134.
- 김현희 (1999). 대학 디지털도서관의 사서 역할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보, 36(4), 20-29.
- 박옥남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서관 변화와 사서교육 방향에 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1), 285-311.
- 박용부 (2001). 박봉석의 도서관 사상. 도서관 사상사 논고집(미발행). 연세대학교, 3-16.
- 박용부 (2001). 버틀러(Pierce Burtler)의 사상. 도서관 사상사 논고집(미발행). 연세대학교, 209-233.
- 박준식 (1986). 고대 도서관사의 재조명-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도서관, 41(5), 9-10.
- 박준식 (1993). 사서직의 지적 전통: 그 역사적 변용과 전망. 도서관, 48(2), 8-9.
- 박준식 (2000). 정보환경의 변화와 사서의 역할변용.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2), 21-40.
- 박태연, 한희정, 오효정, 양동민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 도서관 사서의 핵심업무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2), 327-356.
- 아놀드 C. 블랙만 저, 안경숙 역 (1990). 니네베발굴기. 서울: 대원사.
- 정필모 (2001). 문헌정보학원론. 서울: 구미무역.
- 최성진 (1987). 도서관학 통론. 서울: 아세아문화사.
- 한국도서관협회 (2021). 문헌정보학의 이해.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희정, 박태연, 서진원, 양동민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도서관 구축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2), 73-102.
- 홍현진 (2000). 21세기 정보전문직의 역할과 능력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3), 277-307.
- 草野正名 (1971). 圖書館の歴史, 東京: 學圖書, 48.
- Calhoun, Craig, ed. (2002). Dictionary of the Social Scienc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herinet, Y. M. (2018). Blended skills and future roles of librarians. Library Management, 39(1/2), 93-105. <http://dx.doi.org/10.1108/LM-02-2017-0015>
- Feather, John and Sturges, Paul, eds. (1997).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London: Routledge.
- Gates, Jean Key (1968). Introduction to Librarianship. New York: McGraw-Hill.
- Gorman, M. (2000). Our enduring values: Librarianship in the 21st century. Chicago and London: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Gould, Julius and Kolb, William L., ed. (1964). A Dictionary of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The Free Press of Glencoe.
- Harris, Michael H. (1965). History of Libraries in the Western World. New York: The Scarecrow Press, 24-25.
- Keenan, Stella and Johnston, Colin, ed. (2000). Concise Diction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ondon: Bowker.
- Kuper, Adam and Kuper, Jessica (1996). The Social Science Encyclopedia. London: Routledge.
- Lilley and Trice (1989). A History of Information Science 1945-1985. CA: Academic Press.
- Marchionini, G. (2016). Information Science Roles in the Emerging Field of Data Science. Journal of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1(2), 1-6.
- Mason, Richard (1990). What is an Information Professional?.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1(Fall), 122-138.
-

- 
- Nathan M. Smith (1986). Changes in Library Education: The Dean's Reply. *Special Libraries*, 77(Fall), 217-225.
- Ostler, L. J., Dahlin, T. C. and Williardson, J. D. (1995). *The Closing of American Library Schools: Problems and Opportunities*.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Ratledge, D., & Sproles, C. (2017). An analysis of the changing role of systems librarians. *Library Hi Tech*, 35(2), 303-311.  
<http://dx.doi.org/10.1108/LHT-08-2016-0092>
- Rubin, Richard E. (2000). *Foundat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New York: Neal-Schuman Publishers, Inc.
- Samuel Rothstein (1953).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Reference Service in American Libraries, 1850-1900, *Library Quarterly*, 23(1), 5.
- Shera, J. H. (1972). *The Foundations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New York: Becker and Hayes.
- Thomas J. Galvin (1977). Reference Service & Libraries. *Encyclopedia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25, 215-216.
- Virginia Steel & Brigid Welch ed. (1995). *The Future of Information Services*. New York: The Haworth Press, 134.
-

# 광야에 도서관이라는 씨앗을 뿌린 인물들

글 이용재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시간의 모래밭

시간은 물처럼 흐른다. 바닷가 모래밭을 산책하면 모래 위에 발자국이 남는다. 하지만 밀려 오는 파도는 곧 그 발자국을 지운다. 역사의 시간도 마찬가지이다. 인류가 걸어간 발자국이 시간의 모래밭에 남는다. 그러나 바람, 물결, 전쟁, 욕망, 종교, 무지 등이 그 발자국을 지운다.

역사 이전의 시간, 선사(先史)시대에서도 인류는 자취를 남겼다. 나뭇잎, 나무껍질, 갈대, 대나무, 조개, 동물 뼈, 진흙, 돌 등에 기억을 남기고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인류의 발자취는 자연에 대한 두려움, 이승 너머 세계로의 여행, 소수 특권층의 비밀 등을 담았다.

인류의 발자취와 함께 도서관이 탄생하였다. 고대의 도서관은 비밀의 밀실이였다.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밀실이었고, 지배자를 위한 기록보관소이자 ‘영혼의 쉼터(The Soul’s Dispensary)’였다. 비밀의 언어를 다루는 자들만이 출입하였다. 중세의 도서관도 여전히 내밀한 보물 창고였다. 효과적인 기록매체인 종이 사용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파피루스, 양피지가 공존하였다. 권력을 가진 자, 종교에 종사하는 자, 지식을 가진 자들이 주로 도서관을 이용하였으며, 민중은 접근할 수 없었다.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는 자들조차 관리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엄중하게 폐쇄된 도서관에 겨우 들어가서 쇠사슬에 묶인 책을 볼 수 있었다. 중세 지식인

은 여전히 폐쇄회로의 언어를 다루며 지식을 독점하였다. 근대의 여명이 밝아오자 민중은 혁명을 일으켰으며 지배자의 목을 잘랐다. 중세 천년 밀실에 갇힌 책들이 풀려나오고, 근대 시민사회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도서관을 조직하였다. 현대사회에서 도서관은 ‘민중의 대학교(People’s College)’가 되었다.

시간의 모래밭에서 도서관은 문명과 함께 피어나고,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사라지거나 종교의 이름으로 불태워졌지만, 지식의 샘물과 함께 끊임없이 생겨났다. 인류 역사의 파노라마와 시간의 씨줄과 날줄에서 도서관은 부침을 거듭하였다. 이러한 천로 역정의 도서관 행진에서 근대정신과 함께 도서관 생각을 품고 사람들 사이에 도서관을 구현한 인물들이 있었다.

도서관은 코스모스(Cosmos)이다. 도서관은 질서와 조화를 가진 우주이다. 도서관은 혼돈(Chaos)에서 코스모스를 구현하는 공간이다. 근현대 들어서는 공유의 공간이자 과거의 다양한 현인을 만나는 공간이 되었다. 도서관에서 과거의 비밀과 편견은 공공연한 사실이 된다. 또한 도서관은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이자 삶과 일에 대한 어른들의 질문에 답해주는 공간이다.

이러한 근대정신을 구현한 도서관 인물을 만나는 시간여행을 떠난다. 시간의 모래밭에서 도서관을 키운 거인은 많지만, 이번에는 세 사람의 시공으로 떠나보자. 멜빌 듀이, 량가나단, 박봉석이 그들이다.

## 멜빌 듀이

### 카오스와 코스모스

멜빌 듀이(Melvil Dewey, 1851~1931)는 미국 도서관학의 개척자이자 사서들을 키운 교육자이다. 도서관학에서 그의 업적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 전체에 그 영향을 미친다. 그는 '도서관 마술'을 만들었다. 우리는 도서관에 가거나 웹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때마다 도서관 마술을 경험한다. 우리 각자가 도서관에서 원하는 책을 삼시간에 찾을 수 있는 것 말이다. 이러한 마술이 일어나는 것은 「듀이 십진분류법」 덕분이다.

시간의 양탄자를 타고 그의 어린 시절로 날아가 보자. 그는 1851년 12월 10일 미국 뉴욕주의 서북쪽 끝, 제퍼슨 카운티의 아담스 센터(Adams Center)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듀이는 질서를 좋아하는 아이였다. 그는 혼란스러운 부업에 질서를 부여하고는 하였다. 부업 찬장에 물건의 이름표를 붙여 질서 정연한 세계를 만들었다. 또한 사물의 변화를 기록하는 것을 즐겼다. 자신의 키, 몸무게를 표시하고, 모은 돈을 기록하였다. 듀이는 책을 무척 좋아하는 아이였다. 그가 돈을 모아 먼 길을 걸어가 서점에서 구입한 책은 사전이었다. 사전이야말로 질서 정연한 세계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지식을 찾을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듀이가 태어나고 자라난 19세기 중엽 미국 사회는 혼돈 속에서 새로운 도약이 이루어지는 시기였다. 노예제 문제 등으로 갈등이 깊어진 미국의 남부와 북부는 남북전쟁을 치렀고, 결국 1865년 북부의 승리로 끝났다. 이후 북부의 공업이 남부의 농업에 우위를 차지했고 교통의 발달, 자원의 개발 등이 이어지며 산업자본주의가 약진하였다. 산업자본주의가 진행됨에 따라 각지에 공업도시가 생겨났다. 반면 이로 인해 빈부 격차와 슬럼가 형성, 범죄의 증가, 노동운동도 함께 일어났다.

이러한 혼돈과 격동의 시기에 청소년 듀이는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는 교육이야말로 정신을 개혁하는 가장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듀이는 16세가 되는 1867년 4월 뉴욕주의 교사자격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고, 그해 12월부터 중등학교인 헝거포드학교(Hungerford Collegiate Institute)에서 수업을 받았다. 1868년 겨울, 교실에서 불이 났을 때 그는 많은 책을 옮기려다 심한 감기에 걸렸다. 의사가 1년 이상 살지 못할 거라고 말할 정도로 그

의 병세는 심각하였다. 어린 나이부터 죽음에 직면한 듀이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관조하였으며, 시간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다행히 그는 건강을 회복하고 1870년 10월 애머스트대학교(Amherst College)에 진학하였다. 그는 대학도서관에서 학생 보조원으로 일했는데, 이때 일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된다.

## 터닝 포인트

젊은 나이에 죽음과 마주했던 듀이는 시간을 아껴 효율적으로 많은 일을 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대학교 입학 후에는 대학도서관에서 학생 보조원으로 일하면서 도서관 책을 분류하는데 눈을 뗐다. 당시 애머스트대학교 도서관의 책은 주제가 아닌 서가 번호로 분류돼 있어서 하나의 서가에 너무 많은 책이 꽂혀 있을 경우에 전체 장서를 다시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어릴 때부터 혼돈과 비효율을 싫어하던 듀이는 도서관 이용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듀이 십진분류법」을 고안하였다. 장서의 혼돈과 도서관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다.

2학년을 마칠 무렵 듀이는 일생을 바쳐 추구할 만한 소명을 발견한다. 그는 자신의 삶에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다짐을 마음에 새겼다. 그 다짐들은 첫째 미터법에 의한 도량형의 단일화, 둘째 영어 철자법의 간소화, 셋째 속기법 사용, 넷째 교육이었다. 특히 듀이는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에 투신하기로 결심한다. 이러한 발견은 어쩌면 그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항상 삶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했기 때문이다. 도량형의 통일, 철자법의 간소화, 속기법의 사용은 이러한 그의 삶의 지향점을 사회적 차원으로 적용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듀이는 미국 사회를 형성하고 미국으로 이주하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에 주목하였다. 그가 공공도서관에 눈을 뜨게 된 전환점은 책 한 권에서 비롯되었다. 그 책은 그가 애머스트대학교 도서관에서 일할 때 읽은 책으로, ‘영국 공공도서관의 아버지’이자 ‘공공도서관 운동의 개척자’인 에드워드 에드워즈(Edward Edwards, 1812~1886)가 쓴 『도서관 회고록(Memoirs of Libraries)』이다. 듀이는 이 책을 읽고 도서관의 중요성을 다시 확신하면서 평생 공공도서관을 통한 대중의 사회교육에 힘쓸 것을 다짐하였다. 이처럼 듀이가 무료 공공도서관



(Free Public Library)을 통한 대중교육을 필생의 소명으로 삼게 된 계기는 당시 시대 상황과 맞물려 있기도 하다. 당시 시대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1872년의 미국 뉴욕주로 날아가 보자.

당시 미국에는 복잡한 도량형 단위와 어려운 철자법 등에 기초해 기본적인 읽기, 쓰기, 산수 정도를 가르치는 소규모 초등학교와 대학교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중등학교가 있었다. 듀이는 대부분의 미국인이 초등학교에서 기본적인 영어와 산수를 배운 후에는 바로 취업하고, 그 후로는 자신의 발전을 위한 교육을 중단하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 그가 특별히 관심을 가진 것은 ‘좋은 독서’를 할 기회가 제한되었다는 것이다. 듀이는 사람들이 초등교육 이후에도 비정규적인 교육을 축적한다면 그들의 삶은 상당히 개선될 수 있으며, 이러한 비정규 교육의 가장 좋은 도구는 좋은 책으로 가득 찬 무료 공공도서관이라고 생각하였다. 듀이에게 공공도서관은 인류의 이상 세계를 구현하는 기관이었다(고인철 외, 2005).

### 도서관인들이여! 뭉치자!

평생 효율을 추구한 듀이는 도서관에서 책의 세계를 조직할 뿐만 아니라 사회를 조직하는 데도 앞장섰다. 그는 1876년 10월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미국독립백주년박람회(Centennial Exposition)에 참가한 103명(남자 90명, 여자 13명)의 도서관 관계자들과 함께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를 창설하였다. 미국 독립 100주년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고 도서관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도서관인들 사이에 공유되었으며, 듀이는 서기장인 동시에 재무관으로 선출되었다.

듀이는 이후 15년간 무보수로 서기장을 맡았고 1891년과 1893년에는 회장을 맡았다. 듀이는 스스로 세운 일생의 사명인 ‘도서관을 통한 사회교육’을 위해 도서관인들을 규합하고 조직을 운영하며 헌신하였다. 또 미국도서관협회의 모토(Motto)를 정하면서, 개인과 사회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자신의 생각을 반영하였다. 그 모토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독자들을 위한 최선의 독서(The best reading, for the largest number, at the least cost)”였다.



멜빌 듀이



저스틴 윈저



아자리아 스미스 루트



윌리엄 프레데릭 폴

[그림 1] 1876년 미국도서관협회 조직위원회 참여 인물들 © 위키미디어 커먼스(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Collection)

## 사서들을 키우다

듀이는 사서를 양성하는 데에서도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다. 세계 최초의 사서 양성기관인 '도서관학교(The School of Library Economy)'를 컬럼비아대학교에 설립한 것이다. 1883년에 컬럼비아대학교의 도서관장이 된 듀이는 이듬해에 대학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도서관학교를 창설하였다. 도서관학교는 1887년 1월 5일 공식적으로 개교하였고, 20명(남자 3명, 여자 17명)의 학생이 등록하였다.

듀이는 외골수였다. 때로는 독단적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자신이 생각한 것을 과감하게 추진하였다. 당시 컬럼비아대학교에서는 여성을 직원으로 쓰거나 학생으로 입학시킨 사례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런 환경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성들을 적은 임금으로 고용해 도서관을 운영하였다. 그가 창설한 도서관학교의 수강생 역시 대부분 여성이었다. 이러한 듀이의 방식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도 많았지만, 반대로 싫어하고 갈등을 겪는 사람도 많았다.

듀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뿐 아니라 부정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겠으나, 사서를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에서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학교에 여자를 받을 수 없다는 당시의 지극히 보수적인 사고를 뛰어넘은 점은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듀이는 혁신적인 사고와 결단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림 2] 1888년 컬럼비아대학교의 도서관학교 학급 학생들과 듀이(맨 위 줄 왼쪽에서 네 번째) © Librariana(<https://librariana.wordpress.com/2011/12/25/librariana-deel-8-2007/>)

결국 듀이는 1889년 도서관장직을 사직하고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컬럼비아대학교를 떠났다. 이후 그는 뉴욕 올버니(Albany) 소재 뉴욕주립도서관의 관장직 제의를 수락하는 동시에 자신이 이끌어온 도서관학교를 올버니로 옮기는 데 성공하였다. 이후 도서관학교는 듀이 주재 아래 뉴욕주립도서관학교(New York State Library School)로 재조직돼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

### 듀이의 어깨 위에서

듀이는 근현대 도서관학의 토대를 놓은 개척자이자 도서관인들을 규합해 도서관협회를 조직하고 이끈 도서관 운동가이며, 대학교에서 사서들을 양성한 도서관 교육자이다. 그가 고안한 「듀이 십진분류법」은 오늘날 전 세계 도서관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다. 그는 결국 도서관 장서에 질서를 부여하고, 모든 사람이 쉽게 책을 찾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었다.

우리가 ‘도서관계의 거인’ 듀이의 어깨 위에 선다면, 무엇을 볼 수 있을까? 혼돈에서 질서로

나아가는 세계, 비효율성에서 벗어나 효율을 추구하는 것, 도서관에서 책을 쉽게 찾는 마술 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우리는 이 거인의 어깨 위에서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도서관의 가능성과 전망을 발견할 수 있다. 듀이는 기존 현상에 대한 안주에서 벗어나 사회를 위한 개혁을 일으키고 대중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도서관’을 생각하였다. 사회적 공동선을 위하여 집요하리만큼 자신의 생각을 적용하고 구현하며 지식의 세계와 사람들의 세계를 조직하였다. 거인 듀이의 어깨 위에 선다면 현 단계 도서관과 지식, 사회의 문제에 대한 지혜를 찾는 것은 물론 공유 광장으로서 도서관 미래의 새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다.

## 랑가나단

### 영웅 이야기와 수학의 세계

이제 시간의 양탄자를 타고 인도로 날아가자. 고대 문명의 발상지, 여러 신화와 종교의 나라, 수학의 나라 인도에서 우리는 근현대 도서관계의 현인이자 도서관학의 석학을 만난다. 그는 시야리 랑가나단(Shiyali Ramamrita Ranganathan, 1892~1972)이다.

랑가나단은 인도에서 도서관 운동을 펼쳤을 뿐 아니라 인도를 넘어 세계에 도서관학을 정립한 석학이다. 인도에서 길이 추앙받는 국가 대표급 학자일 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원리와 정신을 선포해 세계 도서관계와 사서들에게 영향을 미친 도서관 사상가이다. 그는 1965년에 인도 정부가 수여하는 도서관학 국가연구교수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받았으며, 인도에서 그의 생일은 매년 ‘국립 사서의 날(National Librarian’s Day)’로 기념된다. 그가 선포한 ‘도서관학 5법칙(The Five Laws of Library Science)’은 근현대 도서관 정신을 꿰뚫고 세계에 도서관의 역할과 사명을 밝혀왔다. 의사가 자신의 사명으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외치듯 사서가 자신의 금과옥조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도서관학 5법칙이다.

우리를 태운 시간여행 양탄자는 19세기 말 인도 남부 마드라스(Madras)주<sup>1)</sup> 탄주르(Tanjur)<sup>2)</sup> 시야리(Siyali)<sup>3)</sup> 마을로 날아간다. 랑가나단은 이 마을에서 1892년 브라만족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중산층 지주였던 아버지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산스크리트어로 쓰인 고대 인도

1) 그 당시 마드라스주는 현재의 타밀 나두(Tamil Nadu)주이다.

2) 타밀 나두주에 있는 도시로서 탄자부르(Tanjavoor)라고도 불린다.

3) 현재 시르카지(Sirkazhi).

의 대서사시 『라마야나(Ramayana)』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즐겼다. ‘라마야나’는 ‘라마왕행전’이라는 뜻으로 고대 영웅 라마왕의 무용담을 담고 있다. 랑가나단은 세 살 때 아버지가 매일 야자나무 잎으로 만든 『라마야나』 필사본을 읽는 모습을 보았고, 이후 이 필사본을 신기한 보물처럼 여기며 자라났다.

랑가나단은 성장하면서 인도의 고전문학, 힌두 신비주의 등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는 나중에 그의 저서에도 반영되었다(고인철 외, 2005). 또한 그는 명징한 수학의 세계에도 이끌려 대학교에 진학할 무렵 수학자의 꿈을 품었다. 그는 마드라스기독교대학교(Madras Christian College)에서 수학을 전공해 1913년에 학사학위, 1916년에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대학교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가르치다가 1921년에 마드라스의 프레지던시대학교(Presidency College)에서 수학 교수가 되었다.

## 터닝 포인트

수학자 랑가나단은 어떻게 도서관 학자가 되었을까? 그가 처음 도서관계로 들어온 것은 보수가 더 좋았기 때문이다. 1924년 동료들 따라 우연히 마드라스 주정부 관료를 만난 그는 마드라스대학교 도서관장 채용 소식을 들었다. 보수 면에서 조건이 더 좋은 사서직에 지원해보라는 동료의 적극적인 권유를 받아들여 도서관학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도서관장이 되었다. 그런 그에게 도서관은 감옥과 다를 바 없었다. 그는 수학과 도서관학의 두 갈래 길에 섰다. 그러다 1924년 9월 영국 유학길에 올랐다. 영국에 가서 도서관 경영 방법을 배워 오는 조건으로 채용됐기 때문이다.

랑가나단이 도서관과 도서관학에 눈뜨고 인생을 전환하게 된 터닝 포인트는 영국 유학 생활이었다. 그는 런던대학교(University of London) 도서관학교(School of Librarianship)에서 유학하면서 필생의 멘토 세이어스(W. C. Sayers) 교수를 만났다. 분류 이론가이자 영국 공공도서관 운동가인 세이어스 교수는 랑가나단에게 도서관학이 수학만큼이나 매력적인 학문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도서관학 중에서 수학적 요소가 가장 강한 분류 분야를 연구하도록 권유하였다. 또한 세이어스의 배려로 그는 크로이던(Croydon)의 공공도서관에서 실습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 내 100여 개 도서관을 둘러볼 수 있었다.

그는 시찰한 도서관 대부분이 지역사회의 구심점으로 독서·평생학습 센터 역할을 하고 있고, 어린이·여성·노동자 등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봉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소규모 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서관 봉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조직된 도서관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고인철 외,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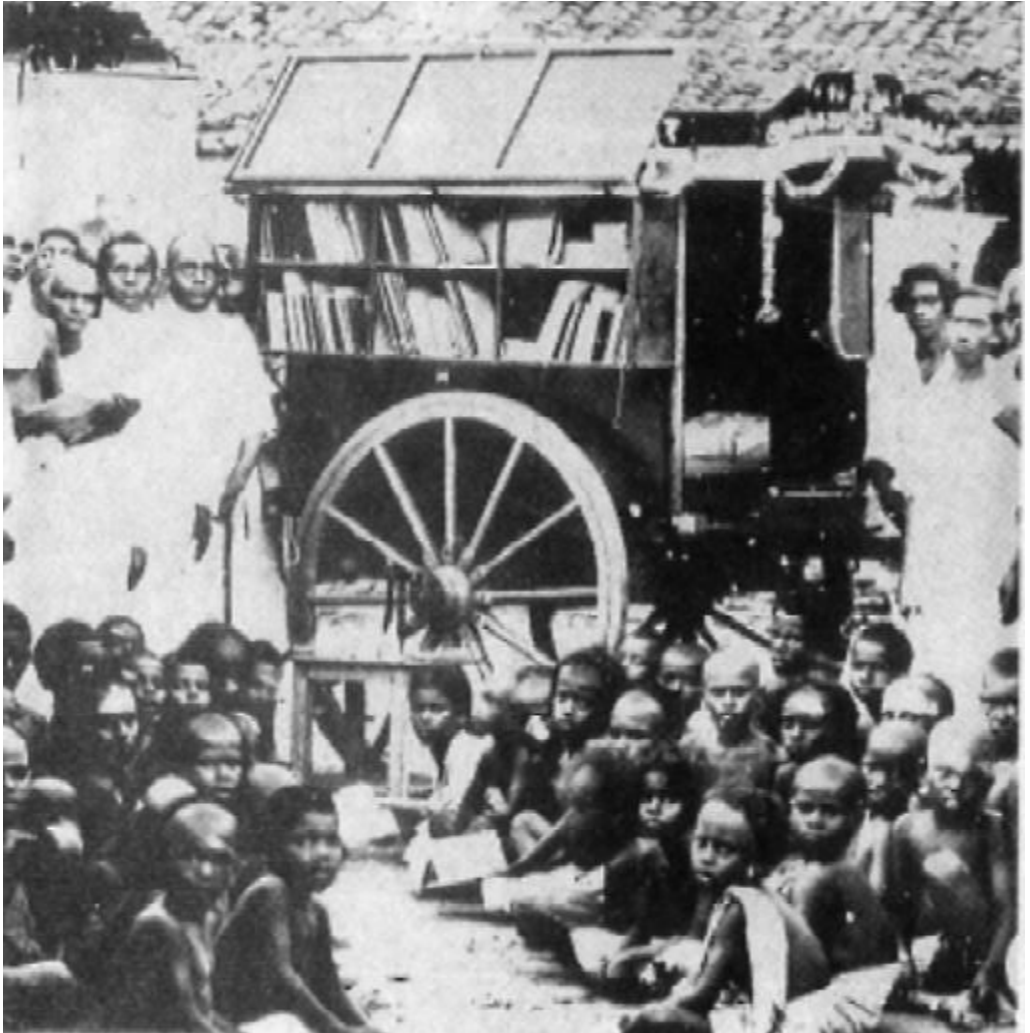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듀이가 그러했듯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소명을 발견한다. 자신의 조국 인도에 영국과 같은 공공도서관과 도서관망(Library Network)을 만드는 것, 그리고 도서관학을 학문의 반열에 올려놓는 일이었다.

### 우마차를 끌고 민중 속으로

랑가나단은 영국에서 연구·관찰을 마치고 1925년 7월에 인도로 돌아왔다. 마드라스대학교 도서관으로 돌아온 그는 도서관장으로서 환희를 느낀다. 유학을 통해 도서관학 지식을 쌓고 도서관에 눈뜨게 된 그에게 도서관은 이제 감옥이 아닌 천국이였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 도서관부터 바꾸기로 결심한다. 조직을 개편하고 폐가제를 개가제로 바꾸어 이용자를 위한 편리한 환경을 만들었다. 또한 마드라스시에 있는 도서관들 사이에 상호대차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재임 기간 동안 인도 도서관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하며 도서관 장서를 비약적으로 증가시켰으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개관 시간을 점차 늘렸고, 참고사서를 다수 배치해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 주민에게도 대학도서관을 개방하였다. 랑가나단은 20년의 재임 기간 동안 마드라스대학교 도서관을 이용자를 위한 새로운 방식의 봉사를 실험하는 장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노력과 변화를 통해 이 도서관은 현대적인 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이것은 랑가나단 자신뿐만 아니라 인도 사회에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도서관에 대해 무지했던 그는 도서관학으로 무장하고 조국 인도와 민중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1928년에 그는 마드라스도서관협회를 창립하고 인도를 독서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도서관 운동을 펼쳤다. 이러한 도서관 운동을 남인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지역까지 널리 확산시켰다. 영국처럼 조국 인도에도 사람들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였으며, 인도의 민중이 도서관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구현하고자 도서관 운동에 매진하였다. 당시 그는

“지금 일상적인 방식으로 인도의 도서관 봉사를 발전시키기에는 너무 늦었다. 우리는 몇 단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도서관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온 나라의 도서관을 능가할 수 있다”고 심정을 밝혔다(고인철 외, 2005).



[그림 3] 1931년 마나르구디(Mannargudi) 서쪽 멜라바살(Melavasal) 마을에서 랑가나단 주재로 탄생한 인도 최초의 이동도서관. 소가 끄는 수레로 만들었다. © Indian Statistical Institute(<https://www.isibang.ac.in/~library/portal/Pages/Photo/ma02.JPG>)

## ‘도서관학 5법칙’을 선포하다

1929년 랑가나단은 사서를 양성하기 위해 마드라스도서관협회의 도움으로 도서관학교를 설립하였고, 15년 동안 이 학교의 교장을 역임하였다. 마드라스대학교 도서관에 재임하는 동안 『도서관학 5법칙(The Five Laws of Library Science)』(1931), 『콜론분류법(Colon Classification)』(1933), 『분류목록규칙(Classified Catalogue Code)』(1934), 『도서관경영(Library Administration)』(1935) 등 도서관학 분야의 기념비적 저작을 계속 펴냈다.

『도서관학 5법칙』은 근현대 도서관 운영의 원리, 인류 정신문명의 발전을 위한 선언, 지식 해방과 공유의 선언, 사서 정신의 천명, 전문직으로서 사서의 윤리, 과학적 법칙으로서의 도서관학을 표방한다. 방대한 저작으로 일기, 회고록, 역사서, 사례 보고서, 기행문, 희곡, 유머집, 시집, 수필, 잠언집, 연표, 통계서, 법률서, 규정집, 서지, 이야기책 등 실로 다양한 면모를 가진 대서사시이다. 이 책에서 랑가나단이 말하는 도서관학 5법칙은 다음과 같다(S. R. Ranganathan, 1931).

제1법칙: 책은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Books are for use)

제2법칙: 모든 사람에게 그의 책을(Every person his or her book)

제3법칙: 모든 책은 그의 독자에게(Every book its reader)

제4법칙: 독자의 시간을 절약하라(Save the time of the reader)

제5법칙: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이다(A library is a growing organism)

## 랑가나단의 어깨 위에서 서서

우리는 이제 도서관계의 거인 랑가나단의 어깨 위에서 서 있다. 그의 어깨 위에서 있으니 왠지 신성한 기운이 느껴진다. 고대의 신화, 중세의 폐쇄적인 도서관, 대중의 곁에 세워진 근대 영국의 공공도서관, 인도와 세계를 향해 선포한 ‘도서관학 5법칙’ 등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친다.

우리는 이 거인의 어깨 위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그가 엄숙하게 선포하는 법칙에 기대어보면 우리는 책의 해방, 해방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만인을 위한 도서관, 무엇인가를 탐구하고 지



식을 찾고자 하는 사람을 돕는 사서, 인류와 지식과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에 대한 그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

랑가나단은 선진국 도서관 현장을 답사하며 도서관에 눈떴고, 조국 인도의 민중을 위해 뛰벽뛰벽 나아갔다. 또한 도서관학을 지식·사회와 소통하는 학문으로 정립하였다. 이러한 거인의 어깨 위에 서면 우리는 도서관학(문헌정보학)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수천 년 동안 진행된 지식 해방의 역사에 발을 딛고서 미래를 봐야 한다는 것, 인류를 위한 공유 광장인 도서관의 역할을 제시하고, 도서관을 통하여 사람을 키우는 사서 정신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 박봉석

### 암흑의 시대와 조선 도서관인

앞서 살펴보았듯 미국에서는 멜빌 듀이가, 인도에서는 랑가나단이 도서관 교육으로 사서를 키우고 문헌 분류를 고안하고 도서관인을 규합해 도서관협회를 조직하고 대중을 위해 도서관을 조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매진하며 도서관과 도서관학의 기틀을 다졌다. 국민을 위한 지식의 조직과 보급 및 공유를 할 수 있는 도서관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게 하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 초석을 놓은 도서관계 거인들이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거인이 있다.

그는 박봉석(朴奉石, 1905~ ?)이다. 오늘날 한국의 도서관과 도서관학(문헌정보학)의 기반을 구축한 인물로 ‘한국 도서관계의 선구자’, ‘한국 도서관학의 개척자’, ‘한국의 멜빌 듀이’, ‘한국 도서관계의 대들보’ 등으로 불린다. 나는 여기에서 ‘한국 도서관의 토대를 구축한 건국 영웅’, ‘도서관의 혼이 되어 1인 10역을 해낸 초인’, ‘사서 정신을 보여준 도서관 운동가’, ‘민족의 정신과 기록을 수호한 도서관 사상가’ 등의 별명을 추가하고자 한다.

박봉석은 1905년 8월 22일 경남 밀양(密陽)에서 태어났다. 때는 대한제국 시기로 국운이 점차 기울어지고 있었다. 그가 태어난 해 11월에는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을사늑약(乙巳勒約)까지 체결하였다. 박봉석의 호는 용재(榕齋)이며, 필명은 그가 몸담았던 표충사가 있는 재약산에서 따온 재약산인(載藥山人)을 즐겨 사용하였다(이철교, 2001).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아직 탐구할 부분이 있다. 장남 김기홍은 부친에 대해 “저의 아버지는 일찍이 한적한 고을에서 태어나 어려서 서당을 다니시다가 12세 되던 해 스스로 느낀 바 있어 40리나 되는 산길을 넘어 표충사에 내왕하면서 스님에게 글을 배웠으며, 18세 되던 해 스님의 경제적 주선으로 경성부 중앙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고 회고한다(오동근 편, 2000). 이처럼 그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배움의 열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청소년 시절을 보내며 표충사 스님에게 글을 배우고 불교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

1922년 4월 경성부 중앙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으며, 1927년 3월 같은 학교를 졸업하였다. 졸업 후 고향 밀양의 표충공립보통학교에서 약 1년간 교편을 잡았다가, 다시 상경하여 1928년 4월 불교계의 고등교육기관인 불교전수학교에 입학하였다. 당시 나이는 24세였다. 재학 중 결혼하였으며 아내의 정성 어린 내조에 힘입어 1931년 3월, 중앙불교전문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 학업을 마쳤다(이철교, 2001). 박봉석은 다재다능했고 불교뿐만 아니라 문학, 역사 등에도 관심이 많았다. 또한 어려운 살림에도 평소 책을 많이 사서 읽었으며, 운동을 좋아해 축구선수로 경기에 여러 번 출전하기도 하였다.

## 터닝 포인트

중앙불교전문학교를 졸업한 1931년에 박봉석은 조선총독부도서관에 입사해 도서관인의 삶을 시작하였다. 입사 당시 고원(雇員, 고용원) 신분이었던 박봉석은 이곳에서 조국이 광복될 때까지 약 15년 동안 고서(古書)의 분류와 편목 업무에 종사하였다(이철교, 2001). 불교, 한국의 역사, 문학 등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지식을 연마한 박봉석은 식민지 상황에서 최고의 도서관에 입사해 우리나라의 불교와 역사를 연구하고 문헌을 정리하는 길이 곧 최선의 방도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림 4] 박봉석이 도서관인의 삶을 시작했던 조선총독부도서관 전경 © 국가기록원

박봉석은 도서관에 근무하면서 불교서지학과 도서관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조선총독부 기관지 『조선』, 조선총독부도서관 관보(館報) 『문헌보국(文獻報國)』, 조선도서관연구회지 『조선지도서관(朝鮮之圖書館)』, 『불교』 등의 간행물과 「고려대장경판의 연구」, 「의천(義天) 속장(續藏)의 현존본에 대하여」, 「대장경의 목록과 그 분류」, 「대장(大藏)의 명칭 유래와 그 통섭」, 「조선공공도서관 도서분류표 사안(私案)」, 「신라 찬술 불서(佛書) 서목에 대하여」 등 여러 연구를 발표하였다(이철교, 2001).

이처럼 박봉석은 도서관 현장의 업무뿐만 아니라 학문에 대한 열정도 넘쳐 어떤 강습회라도 기회가 닿는 대로 수강하였고, 1936년 사서검정시험에 대한 법령이 공포되자마자 당시 발간되

있던 도서관학 관련 도서, 정간서를 모두 탐독하였다. 결국 그는 입사 8년 만인 1939년에 사서검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서검정시험은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다양한 과목(국어, 한문, 국사, 도서관관리법, 도서목록법, 도서분류법, 사회교육개론, 국민도덕요령, 외국어)의 필기 시험뿐만 아니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해야만 사서 자격이 주어졌다(오동근, 2000). 광복될 때까지 한국인으로서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박봉석과 최장수(崔長秀) 두 사람뿐이었다.

1940년 박봉석 사서는 식민지 조선을 일본과 동급에 내세우는 분류표를 제시하였다. 당시 개성에 중경문고(中京文庫)라는 새 도서관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박봉석은 개관 준비 업무를 의뢰받게 되는데, 신분상 위험이 따르는 일임에도 그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분류표를 새로이 편찬함으로써 장서를 완전하게 정리하여 중경문고를 개관하는 데 힘을 보탰다(박상균, 2004).

## 광복된 조국에 도서관을 열다

1945년 8월 15일 압제와 수탈을 일삼던 일제가 물러가고 우리나라는 광명을 되찾았다. 박봉석은 광복을 맞이하여 “건곤일척(乾坤一擲)에 조선의 여명(黎明)은 오고야 말았다”라고 말했다(이철교, 2001). 박봉석은 우선 도망을 치는 일본인들이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 장서를 훔치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 광복을 맞이한 다음 날 박봉석을 비롯하여 조선총독부도서관에 남아 있던 우리나라 직원들은 도서관을 접수할 것을 결의하여 ‘도서관수호문헌수집위원회’를 조직했고, 박봉석은 위원장이 되었다. 박봉석은 일본인에게 서고의 열쇠를 넘겨받은 후 모든 장서를 접수하였고, 일본인들이 귀중본을 빼가는 등 혹시 있을지도 모를 도난이나 훼손으로부터 장서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인 직원들과 함께 불침번을 서가며 장서를 수호하였다(고인철 외, 2005).

박봉석은 해방을 맞이한 조국에서 도서관 수호와 개관의 선봉에 섰다. 1945년 9월 1일 건국 준비위원회는 박봉석을 문화시설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총독부도서관과 철도도서관을 책임지고 수호할 것을 요청하였다. 박봉석은 해방된 조국에서 조선총독부도서관의 간관을 내리고 국립도서관을 개관하는 일을 주도하면서도 관장은 맡지 않았다. 대신 대구로 낙향해 있었던 이재욱을 관장으로 강권하다시피 설득하여 추대하고 국립도서관을 개관하였다. 이재욱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 박봉석과 함께 일했던 인물로, 조선총독부도서관의 부관장을 역임한

바 있었다. 박봉석은 사실상 개관 관련 모든 업무를 떠맡았다. 1945년 10월 15일 오전 9시 역사적인 개관을 하게 된 국립도서관에서 박봉석은 부관장이자 총무부장, 사서부장, 열람부장을 겸하였다. 이재욱과 박봉석, 이 두 사람은 도서관 동지로서 의기투합해 해방된 조국에서 국립도서관을 열고 많은 일을 함께하였다.

## 한국 도서관과 도서관학의 기둥

사서 박봉석의 진가는 광복된 조국에서 여지없이 발휘되었다. 새 나라 조국과 국민을 위하여 도서관의 모든 기틀을 다졌다. 그는 조선도서관협회 창립(1945년), '문헌수집대' 조직(1945년), 조선도서관학교 개교(1946년), 조선서지학회 창설(1947년), 「조선집진분류표」 편찬(1947년), 「조선동서편목규칙」 편찬(1948년) 등 한국 도서관과 도서관학의 제반이 되는 대들보와 기둥을 세웠다.

박봉석은 사서로서 자신이 할 일을 분명히 인식하였다. 해방 정국의 혼란 속에서도 시내 도서관을 돌면서 도서관인들의 협동과 단결을 촉구하고 도서관협회 결성에 합의하였다. 1945년 8월 19일 개최 예정이었던 결성준비위원회는 8월 30일로 연기되어 실현을 보았고 결성준비위원회를 '결성대회'로 변경하여 규약을 통과시킨 후 박봉석이 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고인철 외, 2005).

특히 문헌수집대 조직은 박봉석이 진정한 사서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해방 정국의 혼돈 속에서도 문헌수집대라는 명칭의 조직을 결성하고, 부하 직원 박희영에게 수서과장의 직책을 맡기면서 이 조직을 이끌도록 하였다. 문헌수집대는 완장을 두르고 거리로 나가 등사판 또는 활판으로 인쇄되어 뿌러지거나 판매되는 모든 인쇄물을 수집하는 데 전력을 다하였으며, 이렇게 수집한 자료들을 '해방 1주년 전시회'에서 전시하였다.

박봉석은 우익과 좌익이 충돌하는 해방 공간에서 건국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 것이다. 그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도서관 자료의 입수를 위해서라면 사서들이 도서관 밖으로 나가서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박봉석은 문헌수집대에게 건국준비위원회, 정당, 사회단체 등에서 쏟아져 나오는 건국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자료가 오늘날 국립중앙도서관에 잘 보존되어 있다면, 해방 정국의 시대상은 물론이고 광복 후 한국의 정치, 사회, 문화 등 제반 영역의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해방 이후 도서관 업무를 담당할 사서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급선무였다. 이에 박봉석은 이

재육 관장과 의논해 도서관학교 설립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그 뒤 1946년 도서관학교 1기 입학생을 모집하는 공고를 내고 3월 19일 미군정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다음, 4월 1일 사서 양성기관인 국립조선도서관학교를 개교하였다. 이 학교는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5회에 걸쳐 총 7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는데, 이들은 이후 각급 도서관 발전의 중추가 되었다(이철교, 2001).

박봉석은 도서관학교 설립뿐만 아니라 국립도서관 주관으로 강습회를 개최하고 ‘분류’, ‘목록’, ‘도서관학개론과 철학’ 등의 과목을 강의하였다. 또한 동국대학교 문화과의 도서학을 강의하면서 교육자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는 국내 서지학 연구자들과 함께 조선서지학회를 창설하였는데, 1947년 8월 25일 박봉석, 이재육, 이병기, 송석하, 홍순혁, 김구경을 발기인으로 하는 조선서지학회를 조직하여 연구 발표회와 서지학에 관한 전시회를 개최하였다(고인철 외, 2005). 또한 멜빌 듀이와 랑가나단처럼 분류법을 연구하였다. 앞서 언급한 중경문고 개관을 준비하면서 그는 이미 조선을 일본과 대등하게 두는 분류표를 제시하였으니, 이것이 곧 「조선공공도서관 도서분류표(私案)」(1940)이다. 그는 중경문고 설립에 대한 개관 준비 업무를 의뢰받고 식민 치하 조선에서 신분의 위협에도 개의치 않고 조선의 문헌을 잘 분류할 수 있는 분류표를 고안하였으며, 이를 과감하게 조선총독부 도서관 제98회 관원연구발표회(1940. 5. 28.)에서 발표하였다.

당시 중경문고는 고서만 해도 1만 권이 넘는 도서관으로, 기존 일본 중심의 분류표는 적합하지 않았기에 조선총독부도서관도 박봉석의 분류표 발표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물론 이는 분류법이 아닌 분류표라는 점, 조선을 일본 다음에 두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조선의 지식과 정체성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엄연히 존재하는 시기에 조선인 사서로서 이러한 분류표를 고안해 발표하고, 실제로 그에 따라 장서를 분류하여 도서관을 개관했다는 것은 대범하고 치밀하면서도 민족의식이 녹아 있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박봉석은 우리나라 도서관에 적합한 분류법을 연구하여 「조선십진분류표(KDCP)」(1947)와 「조선동서편목규칙」(1948)을 편찬하였다. 「조선십진분류표」는 해방 이전의 일본을 중심으로 두어 우리나라 실정에는 전혀 맞지 않는 「조선총독부도서관 도서분류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점과 전국 통일 분류표를 위한 초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다. 「조선공공도서관 도서분류표(私案)」가 일본·조선의 공통 전개인 반면, 「조선십

진분류표」는 우리나라 위주의 전개를 택하고 있다. 또한 과학적 분류를 중시하고 실무적 분류를 고려했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의의는 이것이 현대 도서관 장서 분류를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적인 분류표라는 것이다.

「조선동서편목규칙」의 편찬을 살펴보면 박봉석은 우리 도서관계의 실정에 맞는 목록 규칙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리하여 미국의 기술적 장점을 최대한 취하는 동시에 독일의 과학적 원리를 가급적 살려서 우리나라 실정과 정신에 적합한 목록법을 편찬하였다(박상균, 2004). 이처럼 박봉석은 해방된 조국에서 전국 도서관과 도서관인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분류법과 목록법을 연구하는 데 매진하였다.

이 외에도 박봉석이 국내 도서관과 도서관학의 기초를 놓은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해방 이후부터 1950년 7월 13일 납북되기 전까지 한 사람의 사서가 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많은 영역의 일을 지치지 않고 수행하였다. 그는 이 땅의 학생들이 도서관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1947년 문교부 편수국과 협의하여 초등학교 교과서에 도서관에 관한 내용을 넣기로 하고 부하 직원 박희영에게 글을 쓰도록 지시하였다. 이렇게 한국 도서관의 미래까지 생각하는 박봉석의 남다른 노력 덕에 당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에 ‘도서관(제17과)’이라는 내용이 수록되었다. 또한 그는 국립도서관 부관장으로 재직하는 5년 동안 1군 1관의 실현과 분류표의 통일, 그리고 도서관을 통한 평생교육을 위해 불굴의 의지로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 박봉석의 어깨 위에 서서

이제 도서관계의 거인 박봉석의 어깨 위로 올라가 서보자. 그는 기골이 장대했고 축구선수로 출전할 정도로 스포츠에 강하였다. 불교전수학교 재학 때는 교우회 체육부 간사를 3년 내리 맡았고, 스포츠로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는 쾌남이었다. 동시에 지식을 치열하게 탐구하고 불교, 문학, 고서, 역사 등 여러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내는 학자였으며, 시를 쓰는 시인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 거인의 어깨 위에 서면, 불운했던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혼란의 시기에도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하고 사람들을 이끌었던 그를 느낄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일’이라고 느끼면 어려움과 위협이 있어도 과감하게 맡았고, 어둠 속에서도 여명을 보았으며, 해방 공간에서 진정한 사서로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초인적인 의지로 수많은 일을 해내었다.

우리는 이 거인의 어깨 위에서 무엇을 보는가? 그가 조직한 조선도서관협회는 현재 한국도서관협회가 되어 여전히 건재하다. 해방 직후 그가 중심이 되어 개관한 국립도서관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변모하여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그에게서 시대를 기록하는 사서 정신, 도서관 교육을 중시하는 교육자 역할, 미래 세대에게 도서관을 알려주는 안내자 역할, 도서관과 도서관인들의 협력을 도모했던 리더십 등을 배울 수 있다.

이 거인의 어깨 위에서 나는 어떤 지역에서든 사람들 곁에 존재하는 도서관, 우리 사회에 적합한 문헌 분류의 개발과 도서관들의 협력, 시대정신과 사회에 부응하고 사람과 지식을 잇는 사서, 남북한 평화통일, 그리고 문화대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본다. ●



[그림 5] 1950년 박봉석의 모습 © 오동근 (2000). 도서관인 박봉석의 생애와 사상. 태일사

---

#### 참고 문헌

고인철 외 (2005). 위대한 도서관 사상가들. 서울: 한울아카데미.

박상균 (2004). 도서관학만 아는 사람은 도서관학도 모른다. 부산: 한국디지털도서관포럼.

오동근 엮음 (2000). 도서관인 박봉석의 생애와 사상. 대구: 태일사.

이용재 (2013). 도서관인물 평전. 부산: 산지니.


이철교 (2001). 박봉석(朴奉石)의 생애와 저작에 대하여. 도서관, 56(3), 101-118.

Rajagopalan, T. S. ed. (1986). Ranganathan's Philosophy: Assessment, Impact and Relevance. Delhi: Vikas Publishing House.

Ranganathan, Shiyali Ramamrita (1931). The Five Laws of Library Science. London: Edward Goldston.

---





사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사서의 자격과 역할

글 남영준 한국도서관협회장,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사람들은 누군가를 비난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 “너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 이때 자격이란 어떤 의미일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자격을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이라고 설명한다. 자격은 사람이 가진 신분이나 지위에 부여된 일련의 기대감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격은 두 가지 양면성을 갖는다. 권한과 책임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라는 자격에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권한과 함께 아버지로서 지켜야 할 책임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권한과 책임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자격이 없다고 표현한다. 이와 같은 정성적 관점의 자격과는 별도로 법과 제도적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의사라는 직업군이다. 의사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법·제도적으로 의사 자격을 명시한 것이다. 즉 의사는 ‘법적으로 의사라는 자격에 필요한 사항들을 모두 갖춘 집단’을 의미한다. 하지만 법·제도적으로 모든 자격을 갖춘 의사라 할지라도 의사로서의 권한과 책임은 꼭 갖추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서관 현장에서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맡은 역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사서에게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것일까? 사서에게는 정성적인 것과 법·제도상의 정량적인 것이 모두 필요하다. 이러한 사서의 역할을 두고 문헌정보학 분야의 모든 전문 서적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명시하지만, 「도서관법」에서는 사서의 정의를 단순하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서”란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서관 또는 제3조에 따른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도서관법』 제2조 7의2)

이에 비해 『문헌정보학용어사전』에서는 사서를 “고등교육기관에서 문헌정보학을 이수하고 각종 도서관, 자료실 및 정보기관에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보자료의 수집, 정리, 보관 및 이용에 종사하는 사람을 총괄하여 일컫는 전문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한국도서관협회, 2010). 또한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행한 『도서관편람』에서는 사서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정성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서는 도서관 자료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자료가 있고 아무리 좋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도 이용자와 이러한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는 사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도서관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사서가 지녀야 하는 전문적 지식은 크게 문헌의 내용에 관한 지식과 이용자의 문헌 요구에 관한 지식 그리고 이 둘을 연결시켜주기 위한 전문 지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서에게 요구되는 전문적 지식과 정보는 계속 추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는 사서의 자격으로 역할과 책임, 필요한 조건과 능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도서관편람』에서는 사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전문 지식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를 요약하면 사회의 발전과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자격 기준과 시간·장소에도 변하지 않는 자질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서의 자격과 자질을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요구하는 사서의 자격, 두 번째는 현재 시점에서 사서가 갖추어야 할 자질이 그것이다.

## 사서 자격과 법

우리나라는 법을 통해 사서의 자격 취득 방법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서 양성의 방법도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3년에 최초로 「도서관법」(법률 제1424호)을 제정하고 제6조에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서는 아무나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사서 직원 또는 사서교사로 그 주체를 한정하였다. 이때 법을 통해 사서직원과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의 자격과 양성이 이루어지는 건국 최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표 1> 「도서관법」(1963) 사서직원의 배치 규정 중 일부

법령	주요 내용
1963년 「도서관법」 제6조(사서직원의 배치)	①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서관자료 및 운영에 관한 사서직원 또는 사서교사를 두어야 한다. ② 사서직원 또는 사서교사의 자격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최초의 「도서관법」을 근거로 1965년에는 「도서관법 시행령」을 통해 사서의 자격을 정규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정사서와 준사서로 구분하였다. 더불어 대한민국 정부를 '사서자격증' 발급의 주체로 명시하였다. 정규교과과정을 통한 사서 자격 취득과 함께,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은 비인가단체를 법에서 명확하게 배제한 것은 사서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미래지향적 조치였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에는 조선교육회와 조선도서관연맹의 사서교육 강습회를 통한 1년 이하의 단기 교육과정으로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행령을 통해 고등학교 졸업자와 초급대학교 졸업자도 일정 교육을 받으면 정사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사서 자격요건을 확대한 첫 번째 법적 조치였다. 그리고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교육 이수 시간을 법에 명시하여 사서 자격 취득에 대한 국가 관리 체계를 확립하였다. <표 2>는 1965년 「도서관법 시행령」 중 사서직원의 자격과 구분을 설명한 법조문의 일부이다.

<표 2> 「도서관법 시행령」(1965) 사서직원의 자격과 구분

법령	주요 내용
1965년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사서직원의 자격과 구분)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중 국·공립의 공공도서관 또는 국·공립의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직원의 자격은 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며, 사립의 공공도서관 또는 사립의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직원은 그 자격에 따라 이를 정사서와 준사서로 나눈다. ② 정사서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으로부터 그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 1. 대학의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2.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문교부장관이 규정하는 기관에서 도서관학에 관한 학점을 20학점이상 취득하거나 도서관학에 관한 강습을 320시간이상 이수한 자.

3. 준사서로서 사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도서관학에 관한 학점을 10학점이상 취득하거나 도서관학에 관한 강습을 160시간이상 이수한 자.

③ 준사서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으로부터 그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

1. 초급대학졸업자(실업고등전문학교 졸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재학중 또는 졸업후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도서관학에 관한 학점을 15학점이상 취득하거나 도서관학에 관한 강습을 240시간이상 이수한 자.

2.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사서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도서관학에 관한 학점을 20학점이상 취득하거나 도서관학에 관한 강습을 320시간이상 이수한 자.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지정과 도서관학에 관한 강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

이 시행령은 1967년과 1977년에 일부 개정하였으나 사서 구분과 자격에 대한 기준은 크게 달라진 바가 없었다. 이후 1987년 「도서관법」(법률 제3972호)을 전부 개정하면서 이를 근거로 1988년 「도서관법 시행령」에서는 사서의 자격을 기존보다 세분하였다. 기존 법에서 정사서와 준사서로 구분하던 2단계 사서 자격을 1급 정사서와 2급 정사서, 준사서로 구분하여 사서의 전문성을 더욱 세분화한 것이다. 정사서 자격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한 것은 국내의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도서관 현장으로 유입되는 고급 인력의 활용적 측면을 법에 반영한 의미 있는 법적 진전이였다. 특히 1급 정사서 자격을 신설하여 문헌정보학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와 2급 정사서 자격을 취득하고 문헌정보학 이외의 박사학위나 정보처리기술사를 취득한 전문인을 적극적으로 도서관 현장으로 유입하고자 하였다. 이는 2급 정사서 자격과 함께 타 전공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을 주체 전문사서로 활용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또한 정보

처리기술사 자격을 갖춘 2급 정사서 자격증 소지자의 1급 정사서 인정은 그 당시 시점에서 '미래 도서관으로 진화하기 위한 IT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수용한 조치이다. 또한 종전에는 준사서의 자격요건을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년 이상의 사서 업무 종사 경력이 있고 소정의 강습을 받은 자로 규정하였지만, 이제는 전문대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면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는 등 사서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그 경력·학력 및 연수 과정을 상향 조정하였다(령 제5조). <표 3>은 1988년에 개정된 「도서관법 시행령」의 사서직원 자격요건을 요약한 것이다.

<표 3> 「도서관법 시행령」(1988) 중 사서직원의 자격요건

구분	자격요건
1급 정사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li> <li>2.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외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사람</li> <li>3.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근무경력 기타 문교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도서관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6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li> <li>4.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9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문교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li> </ol>
2급 정사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도서관학과 또는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한 사람</li> <li>2.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li> <li>3.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li> <li>4.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li> <li>5.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4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li> <li>6.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1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li> </ol>

준사서	1. 전문대학 도서관과를 졸업한 사람
	2. 전문대학(중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중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을 부전공한 사람

이와 같은 3단계 사서 자격의 규정은 「도서관법」이 1991년 「도서관진흥법」으로 법의 명칭을 변경한 이후에도 유지되었으며, 사서 자격 기준에 대한 철학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1993년 「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서도 사서 자격의 요건에 대한 큰 변화는 없었으나, 이후 이 법에 근거해 마련된 1994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339호)에 따라 교육대학원 사서 교육 혹은 도서관 교육을 전공한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도 2급 정사서 취득이 가능하도록 취득 자격 범위를 일부 확대하였다.

이상의 사서 자격 취득에 대한 요건은 법률 개정을 통해 최소한의 변경은 있었으나 2006년 「도서관법」(법률 제8029호)과 2007년 「도서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963호), 그리고 2008년과 2012년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지금의 사서 자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표 4>는 2022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도서관법 시행령」(2012)의 사서 자격요건이다.

<표 4> 「도서관법 시행령」(2012) 중 '사서의 자격요건(제4조제2항 관련)'

구분	자격요건
1. 1급 정사서	<p>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p> <p>나.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사람</p> <p>다.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이나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6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p> <p>라.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9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p>

2. 2급 정사서	<p>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육대학, 사범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p> <p>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p> <p>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이나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p> <p>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p>마.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p> <p>바.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 3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p>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 1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3. 준사서	<p>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한 사람</p> <p>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p>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에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사람</p>

이와 같이 사서 자격 기준은 1988년 이후로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사서 자격의 철학은 「도서관법」의 명칭 변경이 여러 번 이루어졌음에도 현재까지 원래의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학점 또는 학력인정제도를 통한 사서 자격 취득은 「도서관법」의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가 허용하는 다양한 학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그에 따라 현재는 기존의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격 취득 방법 이외의 과정으로도 사서가 양성되고 있다. 특히 정규 교육 기관(대학교나 전문대학교)에서 운영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와 기관에서도 사서 양성을 감당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영리적 목적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사서 양성 문제에 대해 현재 문헌정보학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 사서 양성과 교육

우리나라는 사서 양성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어, 지정된 양성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사서자격증의 발급을 불허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957년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의 설립과 함께 이화여자대학교(1961), 중앙대학교(1963), 성균관대학교(1964)에서 도서관학과를 설립하였다. 이후 전국적으로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학교에서 도서관학과를 개설하였으며, 각 대학교의 대학원에서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개설을 확대하였다. 일부 대학교들은 학교 사정에 따라 문헌정보학과 명칭의 변경 혹은 폐과를 결정하여 일부 대학교의 수는 연도별로 차이를 보인다. 2020년 기준 국내에서 사서 양성에 1차적인 역할과 책임을 갖는 정규교육기관에는 32개의 4년제 대학교와 5개의 전문대학교가 있다. <표 5>는 정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사서를 배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교와 전문대학교의 문헌정보학과 개설 현황이다.

<표 5> 우리나라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학교 문헌정보학과(2020년 12월 기준)

구분	지역	교육기관명	학위과정				비고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일반	교육		
4년제 대학교	수도권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	○	○	
		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			
		덕성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전공		○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	○	○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전공		○	○	○	○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		○	
		서울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		○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	○	○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		○	
		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	○	○	
		한성대학교 도서관정보문화트랙		○	○		○	

부산 경남	경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	○	○	
	신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		
대구 경북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			○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	○			
대전 충청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			○
	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			○	
	중부대학교 문헌정보학전공		○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전공		○	○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			○
	한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			
광주 호남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	○	○	
	전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			
전문대학교	수도권	대림대학교 도서관미디어정보과	○	○			
		송의여자대학교 문헌정보과	○				
부산 경남		명지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				
		부산여자대학교 문헌정보과(야)	○				
		창원문성대학교 문헌정보과 (교육 서비스)	○				

이와 함께 대학교 부설로 운영하면서 사서 양성을 감당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표 6>과 같다. 지정교육기관(사서교육원)의 주체는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학교이며,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곳도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학교가 혼재되어 있다. 지정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대학교는 자격증 취득 과정만 운영하고 있으며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은 사서 자격 취득과 학위 취득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특히 문헌정보학과를 대학교 정규 학과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교육기관이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형태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 6〉 우리나라 사서 양성 교육기관(2020년 12월 기준)

구분	교육기관명	자격증 취득과정			학사과정		
		정사서		준사서	전문학사		학사
		1급	2급		2년제	3년제	
지정교육기관(1년)	성균관대학교 부설 한국사서교육원	○	○	○			
	부산여자대학교 부설 사서교육원	○	○	○			
	계명대학교 부설 사서교육원	○	○	○			
학점은행제	경상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			○
	대림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			○
	숭의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			○
	창원문성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	○	○	

대학교 부설로 자격 취득 교과과정을 운영 중인 교육기관은 크게 사서교육을 전담하는 대학교 부설 사서교육원 내에서 운영하는 곳과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의 학과로서 운영하는 곳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정받은 교육기관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한 경우이다. 부설 사서교육원은 법(「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사서의 자격요건, 2021)에서 명시한 지정교육기관이며 해당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소정의 교과목은 〈표 7〉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표 7〉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30호)

구분	필수과목	선택과목
1급 정사서	도서관평가론 / 비교도서관학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도서관정보협력체계론 / 도서관시스템분석론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에서 선택
	비교저작권론	
2급 정사서	도서관과 사회 / 장서개발론 / 자료조직론(II)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또는
	주제별정보자료론 / 정보검색론 / 도서관경영론(II)	도서관학과 교과과정에서 선택
	도서관자동화론 / 독서지도론(II) / 저작권론(II)	
준사서	도서관·정보학개론 / 도서관사 / 자료선택론	전문대학의 문헌정보과 또는
	자료조직론(Ⅰ) / 비도서자료론 / 참고봉사론	도서관과의 교과과정에서 선택
	도서관경영론(Ⅰ) / 독서지도론(Ⅰ) / 저작권론(Ⅰ)	

이 기준은 2018년(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30호)에 고시되어 2021년에 고시 유지를 위해 재검토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2022년 현재까지 이 고시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교과목을 개정 한 실적이 없어 현재까지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각 대학교 부설 사서교육원은 이 고시를 기준으로 사서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 고시된 교과목을 개설하여 사서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각 사서교육원은 1급 정사서 자격 취득을 위해 필수과목을 5개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과목을 최소 5과목 이상 개설해야 한다(한 과목당 3학점으로 환산할 경우). 이때 고시에서는 선택과목을 반드시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에서 개설한 과목 가운데에서 선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부설교육원을 통해 1급 정사서 자격 과정을 교육하는 기관은 반드시 석사나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런 논리로 2급 정사서 자격을 위한 지정교육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교에서 문헌정보학과를 운영하는 곳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2022년 현재 「도서관법 시행령」에서는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의 사서 양성 교육과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문헌정보학 전공 48학점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고시(제2022-10호, 「학점인정법」에 따른 제27차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사서 자격 취득을 위한 평생교육원에서 개설할 교과목은 <표 8>에서 보는 것처럼 필수과목 8개와 선택과목 28개이다.

<표 8> 문헌정보학위과정 취득을 위한 평생교육원 교과목(교육부 고시, 2022)

구분	과목명	학점	강의	실습	비고
전공필수	도서관·정보센터경영론	3	3	0	
	문헌정보학개론	3	3	0	
	서지학개론	3	3	0	
	자료선택·구성론	3	3	0	
	정보검색론	3	3	0	
	정보봉사론	3	3	0	
	정보조직론(목록론)	3	2	2	
	정보조직론(분류론)	3	2	2	
전공선택	고전 자료의 이해	3	3	0	
	고전자료조직론	3	3	0	
	공공도서관 운영론	3	3	0	

기록 보존 자료 관리	3	3	0
대학도서관운영론	3	3	0
도서관 및 인쇄사	3	3	0
도서관 및 정보센터 실습	3	1	4
도서관 정보 시스템론	3	3	0
독서지도론	3	3	0
멀티미디어정보론	3	3	0
문서관리	3	3	0
문헌 데이터베이스론	3	3	0
사회과학 정보원	3	3	0
색인초록법	3	2	2
연구방법론	3	3	0
연속간행물관리론	3	3	0
인문과학 정보원	3	3	0
자료이용법	3	3	0
자료 조직 연습	3	1	4
정보 네트워크	3	3	0
정보사회론	3	3	0
정보처리	3	2	2
정보처리 시스템 분석론	3	3	0
정보커뮤니케이션론	3	3	0
출판과 저작권	3	3	0
특수 도서관 운영론	3	3	0
학교 도서관 경영론	3	3	0
한국 서지	3	3	0

이상과 같이 정규 교육기관인 대학교에서 부설로 운영하는 지정교육기관과 평생교육원에서 사서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에 대해 문헌정보학계의 다수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주장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1).

첫째, 사서교육원이 1960년대 당시 사서직원의 심각한 부족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사서직의 양성 및 충원의 필요성을 일시적으로 충족시킨 의의가 있으나 사서직의 전문성 확보가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인력에게 단기간의 교육으로만 사서자격증을 발급해 전문성이 없는 인력이 도서관계에 대량으로 유입시키는 문제 초래

둘째, 현재는 사서직이 양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아니며, 그보다는 정보환경의 진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하는 상황

셋째, 대학교 정규교육과정을 통한 사서자격증 취득자 배출이 공급 과잉 상황인데도, 50여년 이전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전문성을 확보한 사서직의 양성과 도서관의 발전이라는 정보적·사회적 목적을 도외시하고, 사서직 양성이 대학교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

넷째, 단기 교육과정이 수익사업으로 전락하면 교육과정의 질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도 수강생의 충원에만 집중하고 교육과정이나 전담 교원의 질을 높이는 데는 도외시한 부실 교육이 진행되는 경향

다섯째, 문헌정보학 박사과정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교에서 1급 정사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자격증의 신뢰도 저하의 큰 원인

이와 같은 지적은 사서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은 최소한의 시간과 정교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현재 사서교육원을 비롯하여 평생교육원, 심지어는 영리기관이 참여하면서 단기간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 정부 수립이 이루어지기 까지 사서의 절대적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일제와 미군정청에서 6개월 혹은 1년의 강습회 혹은 단기 프로그램을 통해 사서를 양성하던 시대와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시민에 대한 지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시민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문헌정보학계에서 사서를 양성하는 궁극적인 목적인데, 현재 일각에서 이루어지는 사서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은 일자리 창출을 우선시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판단된다.

<표 9>는 우리나라 사서자격증 발급의 주체에 따른 배출 실적을 정리한 표이다. 평생교육원을 통해 사서 자격 취득 기준을 갖춘 교육생이 배출된 2007년을 기점으로 정리하였다.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4년제 대학교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기관(대학교 부설 사서교육원)을

〈표 9〉 2007년 이후 주체별 사서자격증 발급 현황

연도	전체(건)	대학교		문체부 지정교육기관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2급 정사서)	
		취득자 수(명)	비율(%)	취득자 수(명)	비율(%)	취득자 수(명)	비율(%)
2007	2,471	2,078	84.1	376	15.2	17	0.7
2008	2,414	2,175	90.1	233	9.7	6	0.2
2009	2,420	2,031	83.9	363	15.0	26	1.1
2010	2,447	2,104	86.0	322	13.2	21	0.9
2011	2,416	2,035	84.2	342	14.2	39	1.6
2012	2,470	2,053	83.1	361	14.6	56	2.3
2013	2,452	1,900	77.5	388	15.8	164	6.7
2014	2,650	1,979	74.7	376	14.2	295	11.1
2015	2,764	2,000	72.4	390	14.1	374	13.5
2016	2,771	1,989	71.8	378	13.6	404	14.6
2017	2,810	1,979	70.4	333	11.9	498	17.7
2018	2,854	1,969	69.0	361	12.7	524	18.3
2019	2,647	1,865	70.5	258	9.7	524	19.8
2020	2,906	1,971	67.8	297	10.2	638	22.0
계	36,492	28,128	77.1	4,778	13.1	3,586	9.8

통한 배출 인원은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나타나지만, 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의 배출 인원은 2013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2년 현재, 대학교별 평생교육원과 영리기관의 학점은행제 개설 과목 수가 확대되고 있어 평생교육원과 독학사<sup>1)</sup>를 이용한 사서 자격 취득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사서 자격을 갖춘 인력의 양적인 증가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질적 향상도 반드시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사서에 의해 제공되는 도서관 서비스는 시민에 대한 봉사를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사서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선공후사(先公後私)라는 서비스 철학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사서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해 그 외에 법 제도 내에서 사서의 자격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에도 사서의 자격 가운데 ‘역할에 대한 분명한 서비스 철학’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1년 만에 대학교 4년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제도로 ‘대학교관 검정고시’라고도 불린다.

자격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면서 역할에 대한 고민과 성찰도 함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과 환경을 갖춘 양성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 사서의 자질과 역할

도서관의 3대 자산은 장서와 공간, 사서이다. 이 가운데 사서의 중요성은 다른 자산보다 앞선다. 부족한 장서는 상호대차와 전자책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공간이 넓고 협소하더라도 리모델링과 창의적인 공간 구성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서가 자질을 갖추지 못하면 이를 대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사서의 자질은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사서의 자격을 기본적인 것과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으로 구분할 경우, 선천적인 것은 사서의 기본적 성품을 의미하고 후천적인 것은 기술적 활용 능력을 의미한다.

사서 자질에 대한 선천적인 부분과 관련해 박준식(2011)은 '사서의 봉사철학은 이타심을 갖춘 인본주의'로 설명하여 이용자를 존중하고 이용자의 요구를 해결하려는 서비스 정신을 의미하고 있다. 클라크(G. T. Clark)도 이용자가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사서가 취해야 할 태도와 투철한 사명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대부분의 도서관 이용자들은 도서관 자료 사용에 익숙하지 않고, 전문적인 문헌에 대해 익숙하지 않으며, 그 권위 있는 가치를 이해하지도 못한다. 따라서 참고사서는 그 모든 부족함을 메워 주어야 하고, 나아가 천사 같은 성격을 소유해야 하며,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엄청난 욕구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Clark, 1904).

도움을 요청한 이용자라면 누구든 정중하게 대하고, 최적의 방법으로 이용자 요구를 해결해주는 사서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말하고 있다. 한편 리처드 뵘(Richard E. Bopp)과 린다 스미스(Linda C. Smith) 등의 학자들은 사서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Bopp, et al., 2011).



- 서비스 지향성
- 인내력과 끈기
- 눈치(센스)
- 자제력
- 유연성과 유머 감각
- 판단력
- (이용자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또한 21세기가 도래하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사서들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에 대해 케이 앤 카셀(Kay Ann Cassell)은 다음처럼 제시하였다(Cassell, 2018).

- Reference 2.0 기술을 사용해 정보를 제공하는 능력
- 전자 정보 자원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
- 온라인 검색 전문 지식
- 교육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려는 욕구
- 이용자를 위한 자문 기술
- 인터넷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
- 프로그램 홍보마케팅 능력
- 평가 결과에 대한 연구 해석 능력
- 대인관계 능력
-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이 외에도 많은 학자가 참고사서의 자질에 대해 논하지만, 크게 보면 다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봉사하는 자세, 두 번째는 이용자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특히 이용자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사서가 갖추어야 할 지식은 교육(후천적 자질)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많은 이들은 도서관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통용되는 기술과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서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

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선제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디지털 리터러시 영역의 기술이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이슈이고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시급하게 시민과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서교육원과 평생교육원에서는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법이나 고시 등을 통해 교과과정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대학교 당국은 자율적으로 학생들과 사회의 요구를 교과목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황과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2013년 한 해의 상업 출판사에서는 사회적 사서(Social Librarian)의 역할을 인포그래픽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이용자의 변화에 따라 도서관 사서도 변화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곳곳에서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디지털 대전환(Digital Transform) 시대에 요구되는 사서의 역할을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Elsevier's Library Connect Newsletter and Joe Murphy, 2013).

- 나는 큐레이션 전문가(Curator)이자 디지털 자원 생산자(Creator)이며, 디지털 자원 제공자(Promoter)이다
- 나는 가상공간의 교육자(Educator)이다
- 나는 디지털 자원 통제관(Filter)이자 디지털 유효 자원 연결자(Connector)이다
- 나는 웹 활동 조력자(Facilitator)이자 웹 자원 활용 조력자(Experimenter)이다
- 나는 도서관 ICT 기반 홍보전략가(Beacon)이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사서의 역할을 새롭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학교는 적극적으로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사서들에게 요구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Data Scientist)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식과 디지털 트랜스폼 관련 기술, 디지털 정보서비스 제공 방법 등과 같은 영역의 신기술을 현대 디지털 시대의 사서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서도,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환경에서도 여전히 사서에게 요구되는 불변의 자질은 참고면담 과정에서 사서가 이용자를 대하는 헌신적인 태도이다. 국내외 정보 봉사 혹은 정보서비스 교재와 논문에서 한결같이 중요한 자질로 귀결하는 것도 바로 경청(傾聽)

이다. 경청이란 단어는 귀 기울여 듣는 사서의 적극적 자세를 의미한다. 이용자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사서에게 꼭 필요한 자질이다. 사서가 이용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할수록 최적의 답을 제공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용자의 말에 귀 기울이면 사서에게 감사해 할 뿐 아니라 사서의 신뢰도도 함께 높아진다. 이용자가 사서를 신뢰할수록 이용자의 질문은 더 구체적이고 진지해지며, 이를 통해 사서와 이용자의 참고면담 과정은 선순환할 수 있다. 설령 사서가 참고면담에 실패하더라도 이용자의 요구를 경청한다면 이용자는 실망하지 않고 경청해준 사서에게 고마움을 표한다(박준식, 2011).

이런 헌신하는 자세 위에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인 기술과 경험이 더해져야 진정한 도서관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사서 자격 과정에서는 봉사 정신이 크게 고려되지 않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식의 이수를 상대적으로 훨씬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다. 이는 사서직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도 큰 차이가 없고 사서교사 임용고시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문헌정보학과와 도서관계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을 거듭하였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민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21).

- 표준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사서자격 취득구조 강화
- 최소 이수학점 기준을 강화
- 필수와 선택과목 교과내용 지정, 실습교과목 강화를 전제로 하는 교육과정 개선
- 사서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개선

그 밖에도 학계의 기존 연구와 논문에서 사서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제도의 도입과 문헌정보학과 평가를 통한 인증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이 제시됐으나 대학교별, 관중별, 신분별 입장의 차이 때문에 실질적 도입이나 실행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앞서 언급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보고서의 해결 방안은 이러한 차이를 최소화한 것으로 그 실행을 기대한다.

## 맺음말

우리나라에서 사서의 자격은 1963년 도서관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부터 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반드시 국가가 인정한 교육 프로그램 내에서 제시한 교육을 통해서만 사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도서관법」이 처음 제정됐을 때보다 사서 자격 취득 방법이 다양해졌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면 본인의 노력에 따라 누구나 사서 자격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모든 이에게 교육의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진다는 측면에서는 크게 반길 일이지만, 문헌정보학과가 학과로 편제되어 있지 않은 대학교 평생교육원의 모집 안내장에는 ‘문헌정보 학위과정’이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본 과정에서 문헌정보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도서관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정사서 2급 자격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 모집 공고문에서 문헌정보학이 추구하는 가치와 사서가 갖추어야 할 자부심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직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점을 어떻게 이수하는지에 대한 설명만 존재한다. 대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문헌정보학과(전공)를 개설한 학교들이 누리집에서 문헌정보학을 통해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나열해놓은 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현재 도서관계와 문헌정보학계는 사서 자격제도의 합리적인 개정을 위해 토의와 세미나,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명쾌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는 어렵더라도, 최선의 제도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물론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든 이용자 대상 서비스를 우선으로 하는 도서관 봉사 철학은 사서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사항이 되어야 한다. 사서 자격에 대한 위상을 확보하고 제3자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서들이 권한과 책임을 모두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조만간 5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갈 것이며, 우리는 전혀 새로운 환경을 맞게 될 것이다. 사서 자격제도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반드시 정교하게 변화돼야 하는 이유이다. 이 변화를 따르지 못하면 도서관은 도태할 수 있다. 사서의 끊임없는 변신은 무죄이지만, 사서는 이용자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봉사하는 마음은 항상 같아야 한다. 사서의 자격제도를 발전시키는 것도 결국은 이용자를 위한다는 봉사철학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

---

## 참고 문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2021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 곽동철, 심경, 윤정옥 (2008). 사서직원 자격요건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부 (2022). 교육부 고시(제2022-10호, 「학점인정법」에 따른 제27차 표준교육과정). 교육부.
-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윤희윤, 장우권, 노영희, 김신영, 정현태 (2015). 사서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제도 및 전문인력 양성체계 개선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2021).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18).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고시(2018. 9. 1.). 문화체육관광부.
- 박준식 (2011). 정보서비스론.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 한국도서관협회 (2006). 도서관편람.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도서관협회 (2010). 문헌정보학용어사전(개정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G. T. Clark (1904). Reference Work with the General Public. Public Libraries, 9(February 1904), 58.
- Kay Ann Cassell, Uma Hiremath (2018). Reference and Information Services: An introduction, 4th Edition. Facet Publishing.
- Library Connect (2013). Elsevier's Library Connect Newsletter and Joe Murphy. I am a Social Librarian- infographic, Elsevier.
- Richard E. Bopp, Linda C. Smith (2011). Reference and Information Services: An Introduction, 4th Edition, Libraries Unlimited.
- William A. Katz (1982). Introduction to Reference Work, Vol. 1: Basic Information Services, 4th Edition, McGraw-Hill.
-

# 사서교육훈련,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글 **한숙희**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인재개발과 사서사무관

## 시작하며 - 유기체적 도서관을 위한 사서교육

국내 유일의 사서직 교육훈련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은 전국 도서관 직원에 대한 직무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1997년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거하여 공무원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서관 직원은 사서직 의무 재교육의 일환으로 5년에 1회 이상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설한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해야만 한다. 사서교육훈련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

### 법적 근거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제1항(전문교육훈련기관):  
특수한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전문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도서관법」 제19조제1항제5호(국립중앙도서관 업무):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 「도서관법 시행령」 제9조제2항(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도서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5년에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렇듯 사서교육은 법령에 근거한 의무 교육이나, 그 필요성은 도서관 현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근대 도서관학의 기틀을 정립한 랑가나단은 ‘도서관학 5법칙’(64쪽 참조)을 제시하였다.

제1법칙부터 제4법칙까지, 랑가나단은 ‘접근성(Accessibility)’을 강조한다. 접근성을 증대하는 것이야말로 사서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접근성은 불변적인 개념이 아닌 가변적인 개념에 해당한다. 이는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원하는지에 따라 접근성 또한 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어떻게(How)’와 ‘왜(Why)’ 역시 도서관에 대한 접근성의 가변 정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먼저, ‘어떻게(How)’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도서관이 마주하고 있는 새로운 플랫폼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카드 목록함을 통해 간단한 서지 정보를 얻을 수 있던 시점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최근에는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서지 정보는 물론이고 아날로그 자료에서부터 디지털 자료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한편 ‘왜(Why)’ 또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중 빅데이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는 과거에 이용자가 요구하는 자료만을 제공하던 방식과는 대조된다.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하면 이용자의 성향을 파악해 추가 제공이 가능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랑가나단이 강조한 ‘접근성’은 도서관 현장 안에서 계속 변화하는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성을 높이려면 사서는 계속 교육이 필요하다.

랑가나단은 제5법칙에서 도서관을 ‘성장하는 유기체’라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서교육은 정태적인 모델의 사서가 아닌, 유기체적 도서관을 위한 동태적인 모델의 사서를 지향한다.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교육이 유기체적 도서관을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본 후, 미래에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질지 알아보고자 한다.

## 사서교육 변천사

### 사서교육 담당기관

1945년 해방 후 당시 정부는 조선총독부 도서관을 인수해 국립도서관(현 국립중앙도서관)을 개관하였다. 그러면서 도서관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었고, 이를 위해 전문적인 사서를 양성하고자 국립도서관 관장 이재욱과 부관장 박봉석의 노력으로 1946년 4월 1일 국립조선도서관학교가 문을 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서 양성 전문교육기관이었던 국립조선도서관학교는 1년 과정의 학교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당시 인력 부족으로 제1기생에 한해 5개월로 교육과정을 단축하였고, 1946년 8월 31일 2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국립조선도서관학교 개교 이후 신설되는 도서관이 많아졌고, 도서관 실무자에 대한 수요가 늘자 지도적 위치에 있던 국립도서관은 1947년 단기과정의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다 1963년 10월 28일 최초 제정·공포된 「도서관법」 제6조, 1965년 3월 26일에 공포된 「도서관법 시행령」 제1조에 의거, 국립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개칭됨과 동시에 사서 교육 담당기관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 사서연수기관으로 변화

1983년 1월 19일 국립중앙도서관은 문교부 중앙교육연수원 분원으로서 문교부 소속 사서직 공무원 직무교육과정을 설치·운영(문교총무 240-134)하면서 사서직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1983년부터는 자격 연수와 함께 일반 연수도 병행해 실시하였으며, 총 1,550명이 일반 연수를 이수하였다.

아울러 1987년 개정된 「도서관법」은 ‘도서관 직원 연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연 2~3회에 걸쳐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국내 대학교 문헌정보학과의 개설이 늘어나면서 1987년 이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은 전적으로 현직 사서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일반 연수만 맡았다.



1991년 국립중앙도서관은 문화부(현 문화체육관광부)로 소속을 옮기게 되었다. 그 이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제16조제1항 ‘도서관 및 문고 직원에 대한 연수’ 규정이 신설되었고, 동법 시행령 제20조(도서관 및 문고 직원에 대한 연수) 제1항(‘도서관 및 문고 직원에 대한 연수를 위해 사서연수과정을 설치 운영’)에 의거, 교육훈련 대상을 교육부 소속에서 전 부처 소속의 사서직 공무원으로 확대하였다.

1993년에는 공무원교육훈련지침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직 공무원 교육훈련과정이 사서직 ‘신규실무자’ 과정(7·8·9급), 사서직 ‘중견실무자보수’ 과정(6·7급)으로 나뉘어 실시된 것이다. 또 종전 한 직급에서 교육 이수 후 5년이 되면 다시 같은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신규실무자과정 교육은 신규 임용 후 1회만 받도록 하고, ‘중견실무자’ 과정은 당해 직급에서 1회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996년에는 신규 과정으로 ‘문고종사자’ 과정과 ‘도서관 업무 전산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5급 사서사무관 44명을 대상으로 관리자 특별 연수가 시행되어 전국 공무원 사서 관리자들의 행정 능력을 제고하였다. 또 공공도서관 관장 64명에게 2급 정사서와 준사서 자격 교육을 실시하였다. 1997년 1월 1일자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해 공공도서관장을 사서직으로 임용함에 따라 행정직에서 전직을 희망하는 공공도서관 관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실시한 교육이었다.

### 전문교육훈련기관 지정

국립중앙도서관은 1997년 총무처(현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무원교육훈련법」 제7조(특수한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특수훈련기관을 설치) 및 제10조(각급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게 필요한 직무분야별 훈련과정을 각급 공무원훈련기관에서 이수시켜야 한다)에 따라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되었다(총무처 국훈 12136-176). 국립중앙도서관은 1997년 7월 7일 사서교육훈련 전담 부서를 설치하기 위해 ‘지원협력부 문화연수과’를 ‘지원연수부 사서연수과’로 변경하여 관련 직제를 개편하였다. 사서연수과는 사서 전문교육을 위한 특수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면서 사서교육훈련 업무만을 전담하게 되었다. 사서연수과가 출범하면서 국립중앙도서관은 전국 국공립도서관은 물론, 사립도서관과 문고의 사서직원에 대한 사서교육훈련 체계를 세웠다. 1998년 1월부터는 정부 부처 내 각급 고

육훈련기관과 교육자료 및 정보를 교환하며 사서교육훈련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1997년 7월 7일자 관보, 대통령령 제15421호, 문화체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개정령). 사서연수과는 관련 제 규정의 제정·개정 작업 및 관련 지침 수립과 유능한 교관요원의 확보와 재배치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였다. 도서관 업무가 변화함에 따라, 사서교육훈련 내용도 단순한 행정관리나 기능 위주에서 주제별 정보자료 분석 및 제공, 전문 지식과 응용기술 개발 등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과목 개발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 정보화 시대에 맞춰 특별 연수 과정으로 전산 과정을 개설하였고, '사서교사' 과정과 '문고종사자' 과정을 신설 운영하였다.

1997년에는 다음 해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처음으로 중앙 부처와 각 시도, 국공립 대학교 114개 기관은 물론, 사립도서관 사서까지 포함한 교육수요조사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중견 및 '신규실무자' 과정 등 기본교육과 '정보봉사' 과정, '독서지도담당자' 과정 등 전문교육과정으로 구분해 총 8개 과정별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1998년부터는 공무원 외 기업체 도서관, 전문도서관, 사립대학교 도서관 등에 근무하는 민간 사서에게도 전문교육과정인 '자료분류' 과정, '자료목록' 과정 등을 신설 운영하였다. 특히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을 강화해 실무에 중점을 두는 한편,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및 정신교육도 실시하였다.

1999년도 사서직 교육훈련은 교육 수요자 대상별로 사서직 공무원, 일반행정직 공무원(문화관광부 소속),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사립도서관 사서직원, 사서교사, 문고 종사자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하였다.

### **직무 위주 전문교육훈련으로 변화**

2000년대에 들어서 국립중앙도서관은 직무 위주의 전문교육 중심으로 다양하게 세분화해 공통전문교육, 선택전문교육, 민간교육, 기타교육 등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사서직 공무원에게는 공직 윤리관 확립과 직급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공통전문교육과 직무 분야별 전문사서 양성을 목적으로 한 선택전문교육을 시행하였다. 또 초·중·고교 교사(사서교사)와 공·사립 문고 직원에게는 민·관 도서관의 균형 발전과 도서관 업무 전산화에 따른 표준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2001년에는 교육 목표를 인터넷, 디지털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정보화 교육 강화, 환

경 변화에 대처하는 전문사서 육성, 전문적·효율적 봉사를 통한 신뢰받는 도서관인 양성에 두었다.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운영요원 양성을 위한 '정보화 특별교육'과 '정보검색' 과정, '도서관홈페이지제작' 과정, '전자도서관운영' 과정을 신설해 많은 사서들에게 관련 업무를 배울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정보화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2001년 2월 1일)에 따라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도서관 정보화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당시 '정보화종합대책'에 의해 문화관광부는 전국 200여 개 공공도서관을 '디지털자료실' 설치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정보화특별교육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연수관 내에 별도 공간을 확보해 50석 규모의 제2정보화교육실을 마련하였고 컴퓨터(51대), LCD 프로젝터 등 최신 교육 장비를 설치하였다.

2004년 11월에는 '사서연수과'를 '사서능력발전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였고, '도서관과 저작권' 과정, 'KCR4관 및 KORMARC' 과정, '디지털기기 활용' 과정을 개설하였다. 또 사서직의 주제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주제전문사서교육 기초과정을 신설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였다.

한편 해외 도서관 사서 워크숍을 2005년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북미, 오세아니아, 유럽의 도서관 사서 24명을 초청해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공동 개최하였다. 해외에 있는 한국학 사서들에게는 한국 도서관과 한국학 자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호 경험과 의견 교환으로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기회가 되었다.

제2회 해외 한국학사서 워크숍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개최하였다. 북미, 오세아니아, 유럽, 아시아 등 10개국의 도서관 사서 19명이 참가해 한국학 정보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가자 상호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보 공유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국어원 등 한국학 관련 주요 기관을 방문, 해외 한국학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을 구축하였다.

### **창의적인 도서관 인재 양성**

2007년 사서교육훈련의 기본 방향은 지식정보사회의 대응능력을 강화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강사진을 운영하며 참여식·토론식 교육을 확대하는 등 성과지향형 교육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도서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직무병행교육 개설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개발하고, 혁신역량 및 가치관을 정립하는 교육훈련 강화, 사서직의 자율적 자기개발 및 상시학습체제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08년 사서교육훈련은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할 사서직원의 핵심역량 개발, 창조적 실용주의에 입각한 사서직원의 전문성 강화, 웹 2.0시대에 부응하는 사서직원의 디지털 정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2009년에는 총 52개 교육과정을 64회 운영하였고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등 전국 국공립도서관 사서 6,276명이 수료하였다. 국가정책 및 도서관 환경 변화에 부응한 '디지털도서관 운영' 과정, '다문화도서관서비스' 과정, '친환경·에코사서 전문' 과정 등 12개 과정을 신규 개발해 수요자 중심의 전문 실무교육체제를 수립하였다. 또한 디지털도서관 개관과 함께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2008년에 이어 최우수교육훈련기관에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사서교육훈련운영규정 제11조에 의거, 사서교육훈련자문단을 구성·운영하였다. 총 10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는 2년(2009년 11월~2011년 10월)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2010년 2월 11일 국립중앙도서관 조직개편으로 인문학 프로그램('길 위의 인문학')을 시작하면서 '사서능력발전과'에서 '사서교육문화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였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유일의 사서교육훈련기관으로서 분야별 핵심 인재 및 사서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부서별로 추천받은 14개(정보서비스, 장서개발, 분류·목록, 도서관장애인서비스 등) 분야 19명을 대상으로 2011년 10월부터 12월까지(5회, 17시간) 1차 교육과정을 실시하였고, 2012년 1월부터 2월까지(3회, 9시간) 2차 교육과정을 진행하였다. 내부강사 교육과정은 효과적인 수업 전략과 운영, 강의 스킬 향상을 위해 멘토링 방식의 참여형 토론 수업으로 전개되었다. 성공 수업 사례 공유 및 분석, 티칭 팁(Teaching Tips) & 실습, 수업계획서 작성 및 수업자료 제작, 마이크로 티칭(Microteaching, 참가자들이 강의자에게 장단점의 피드백 제공), 팀별 강의 콘텐츠 개발(Lesson Study), 강의 리허설 등으로 구성하였다. 교육과정을 통해 도서관 핵심 업무 분야별 내부강사진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내 도서관 발전을 주도하는 사서교육훈련 및 찾아가는 사서 교

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1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이 사서 교육생을 대상으로 강의할 경우에는 내부강사의 지속적 육성과 안정적 운영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기부여와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 내부 기준을 마련(1시간 8만 5,000원, 추가 시간당 3만 5,000원)해 시행하였다.

2012년에는 처음으로 국제간 협력을 통해 사서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미국 위스콘신주립대학교와 협력으로 시범 운영한 국제협력 사서교육 프로그램 ‘도서관글로벌리더’ 과정이 그것으로, 총 21명의 사서가 참가한 가운데 2012년 9월 3일부터 10일까지 미국 현지에서 진행하였다. 또한 사서교육 개선을 위해 직무 유형 또는 각 직급별 단계에서 갖추어야 할 공통 역량을 중심으로 직급별(경력), 직무별 교육과정(안)을 마련해 공통/필수, 기초/심화 교육과정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수립하였다.

2015년 2월 23일에는 사서교육훈련의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해 처음으로 사서교육문화과 교육운영자를 대상으로 ‘교육운영자 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다.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 교육과정 기획 및 교육 운영 스킬, 실무 노하우, 사례 공유 등의 내용으로 진행하였으며,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s Development: HRD) 실무를 이해하고 교육 운영 담당자의 역할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교육 품질 향상과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과정·시설, 우수강사 등 공동 활용 확대를 위해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33개 공무원교육훈련기관과 2015년 10월 20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특히 2015년에는 국립중앙도서관 교육과정이 교육부 부처지정학습으로 지정되었다. 부처지정학습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은 중앙교육연수원, 감사교육원 등 9개 기관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일부 과정에 한해 부분 인정되었으나 교육부 및 인사혁신처와 업무 협의를 통해 2015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의 사서교육훈련 이수 시간이 교육부 부처지정학습 교육시간으로 인정되는 성과를 내었다.

아울러 사이버 사서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자 ‘(사이버)도서관 마케팅과 홍보’ 과정 등 3개의 콘텐츠를 신규 개발하였다. 또 중앙공무원교육원 ‘(사이버)커뮤니케이션 스킬’ 과정 등 3개 과정을 공동 활용해 상시학습체계를 강화하였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발한 ‘(사이버)문헌정보학 기초(도서관이해)’ 과정 등 3개 과정을 중앙공무원교육원 누리집에 탑재해 활용도를 높였다. 2015년에는 신청과 동시에 학습 가능한 논스톱

(Non-Stop) 사이버 교육 환경을 제공하였다. 월 5개 과정으로 확대 운영해 교육 접근성을 제고하였고, 현업 적용도 평가를 서면 평가에서 온라인(사서교육누리집) 평가로 개선하였다.

2016년에는 도서관 직원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 최고경영자, 예비관리자, 중간관리자, 일선 실무자 등 계층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고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도서관글로벌리더(국외협력)’ 과정을 추진하여 도서관 핵심 인재 양성 및 사서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그 외에 ‘아름다운 도서관 체험’ 과정 및 사서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서한마당’ 과정 등 참여형 교육을 운영하여 교육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교육훈련기관 및 유관기관과 협력교육도 운영하였다. 법제처 ‘법령해석’ 과정 등 4개 과정 및 선거연수원 ‘신임관리자’ 과정에 ‘정책정보활용’ 과목의 강사를 지원하였으며, 시도교육청 및 법무부, 국방부 등과 협력해 찾아가는 사서교육을 실시하였다(총 5개 과정 9회, 1,180명). 특히 여건상 교육 참여가 어려운 공공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교육을 1회 시범 운영하였다.

2017년에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업 적용이 가능한 단계별 직무교육과정과 참여형 교육 및 ‘도서관문화프로그램 심화’ 과정 등 실무 중심의 교육 운영을 강화하였다. 교육훈련 기반 강화를 위해 교육운영자 역량 향상 교육 운영, 우수 강사 확보 및 내부강사 육성·활용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협업 및 열린 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훈련기관 간 교육시설, 우수 강사 등을 공동 활용하였다. 그리고 각급 교육훈련기관 교수 요원의 역량 개발 및 우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훈련 기법 공유·확산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제35회 공공HRD콘테스트’의 교육과정 개발 분야에서 ‘도서관문화프로그램 심화’ 과정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상을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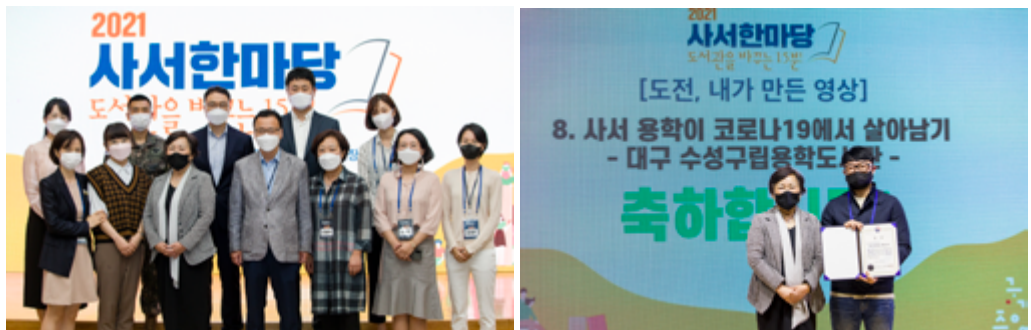
2018년에는 ‘메이커스페이스(Maker Space)<sup>1)</sup>와 도서관 서비스’ 과정 등 7개 과정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교육훈련기관 간 이러닝 콘텐츠를 공동 활용해 자기주도적 상시학습 체계를 강화하였다.

2019년에는 ‘국민 지식정보서비스를 선도하는 도서관 인재 양성’이라는 비전 아래, 도서관 인재 전문교육의 확대 강화, 이러닝 상시학습 확대 및 참여율 제고, 차세대 사서교육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관리자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디자인싱킹’ 과정, ‘북 큐레이션과 북 트레일러’ 과정, ‘연구지원을 위한 데이터 큐레이션’ 과정, ‘도서관 이슈와 정책’ 과정 등을 개설하였다.

1) 일반 대중에게 디지털 기술 기반 제조기기를 개발해 자유롭게 창작, 구상, 개조 등 작업 및 메이커 교육이 가능하게 구성된 공간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교육 운영 방식을 대면 교육에서 재택학습형 교육으로 전면 전환하고, 사이버 과정의 정원을 확대 운영해 교육생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연간 수립한 교육목표를 달성하였다. 또한 2020년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교육훈련기관 대상 종합 진단 결과에서 국립중앙도서관(사서교육문화과)이 ‘우수교육기관 1위’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 방식을 대면 교육에서 비대면 교육으로 지속 전환하고, 온라인 회의 프로그램, 유튜브, 메타버스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교육 세미나 및 워크숍을 새롭게 기획하고 운영하였다. ‘도서관인재개발세미나(2021. 5. 28.)’는 온라인 회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코로나 팬데믹 시대, 도서관 디지털 전환의 기회로”를 주제로 미국 시카고대학교 도서관과 산호세공공도서관의 중견 한인 사서를 강연자로 초청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도서관의 변화와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강연 직후 미국 시카고 사서와 실시간 화상으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8회 사서한마당-도서관을 바꾸는 15분(2021. 9. 28.)’에서는 처음으로 온라인 개최를 시도하였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현장 참가자를 최소한으로 하고 국립중앙도서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함으로써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인적 교류와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21년 처음 기획한 도서관 영상 공모전은 ‘도서관, 책, 사서’를 소재로 사서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을 사전 공모하고, 워크숍 당일 현장 공개 및 실시간 투표로 국립중앙도서관장상을 시상하였다. ‘도서관 리더(최고경영자) 워크숍(2021. 10. 23.)’은 3차원 초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메타버스와 원격교육플랫폼을 활용해 운영하였다. 교육에 참여한 도서관 리더(관장급)들은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와 ‘게더타운’에서 게임 등을 통해 확장 가상세계에 숨겨진 문제를 해결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림 1] 2021년 개최된 '사서한마당- 도서관을 바꾸는 15분'

2022년에는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대면 교육이 가능해지면서 집합교육과 재택학습형 교육을 혼합 운영하였다. 또한 국외 출장 제한이 풀리면서 전국 도서관 국외 직원 연수를 재추진하게 되었으며, 사서교육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사서한마당'을 1박 2일 집합교육으로 제주도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한편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대전환 사회에서 도서관 직원이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도서관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정규 교육과정 도입을 준비하였다.

### **전국 도서관 직원 국외연수**

1990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은 사서직의 전문 지식 습득, 정보 교환 및 국제 도서관계의 최신 동향 파악을 위해 관내 직원을 대상으로 사서직 해외 연수를 실시하였고, 1994년부터는 전국 공공도서관 직원으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후 1996년과 1997년에는 연 1회 실시해온 해외 연수를 연 2회로 확대 실시하였으나,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국내 경제 사정 악화로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해외 연수 사업이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다시 국립중앙도서관 주관으로 '전국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해외 연수'를 연 2회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3명의 분임조를 편성하여 자료 수집, 이용 봉사, 시설, 정보화 등 분야별로 관련 자료를 분담해 조사하여, 연구·발표 등 연수의 효과를 현장 실무에 활용하였다. 2009년 조류 독감으로 중단되었던 연수를 2010년부터 재개하여 2017년까지 연 1회, 2018년부터 연 2회로 확대해 실시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연수가 중단되었으나, 2022년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국제적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다시 실시하였다. 국립·공공·대학·전문도서관 등 다양한 관종의 도서관 직원은 이탈리아와 모나코의 도서관, 박물관 등을 방문하고 서비스 및 공간 구성에 대해 조사·분석하며 역량을 강화하였다.





[그림 2] 2022년 전국 도서관 직원 국외연수

### 예비 사서 실무수습

예비 사서 실무수습은 1947년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강습생 실습에서 비롯되었지만, 엄밀한 의미의 실무수습은 1960년부터 국내 문헌정보학과 학생 등 실습이 필요한 기관 또는 개인의 요청에 따라 2주에서 1개월 동안 실시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문헌정보학과를 설치하는 대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실습생 수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예비 사서 실무수습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신청 기간과 실습 기간을 따로 정하고 기간별로 조를 편성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1990년 이후에는 도서관 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실습을 위해 실습용 교재 발간과 각 과별 실습 담당자를 지정해 운영하였다. 2004년부터는 예비 사서가 2~4주 동안 국립중앙도서관 업무 전반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신청 시 희망 부서를 선택하고, 실무수습 기간 동안 희망 부서에 배정하여 원하는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5년 국립중앙도서관은 예비 사서 실무수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대학교에서 언제든지 예비 사서 실무수습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신청받아 실시하였다. 실무수습 방식도 각 과별 순환식 실무수습에서 탈피해 1개 과 집중식(4주) 실무수습으로 그 효율성을 높였고, 4월부터 7월까지 6기로 편성, 동덕여자대학교 등 11개교 36명을 대상으로 3~4주간 실무수습을 진행하였다.

2006년에는 대학교별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방학 기간인 2007년 1월까지 실시 계획 신청을 받아 숙명여자대학교 등 16개교 75명을 7기로 편성해 3~4주간의 실무수습을 실시하였다. 2007년에는 대학교별로 4월부터 2008년 1월까지 5기로 편성해 덕성여자대학교 등 총 14개교 36명을

대상으로 3~4주간의 실무수습을, 2008년에는 중부대학교 등 20개교 76명 대상으로 대학교별로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6기로 편성해 3~4주간의 실무수습을 진행하였다. 2009년에는 상명대학교 등 14개교 60명 대상으로 대학교별로 4월부터 2010년 2월까지 7기로 편성해 2~4주간 실무수습을 진행하였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국립중앙도서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운영 방식을 기존의 집중식에서 과별 순환식으로 전환하고 '필수실무수습'과 '희망실무수습'을 병행해 운영하였다. 2010년의 필수실무수습은 자료기획과(서지정보센터), 주제정보과, 정책자료과를 일정 기간 순회하며 실습하고, 희망실무수습은 사서교육문화과, 디지털기획과, 디지털정보이용과, 어린이청소년도서관(기획협력과, 정보서비스과), 도서관연구소,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중 학생이 희망하는 부서에서 집중식으로 실무수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무수습 지도 업무의 비중을 고려해 부서별 적정 인원을 검토·편성하였고, 매주 금요일 실무수습생의 체험 사례 발표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대학교 등 16개교 68명 대상으로 2010년 4월부터 8월까지 8기로 편성해 2~4주간 실무수습을 진행하였다.

'필수실무수습'과 '희망실무수습'의 병행 운영은 2019년까지 계속되었다. 2011년에는 이화여대대학교 등 13개교 52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8월까지 총 9기로 편성해 2~4주간의 실무수습을 운영하였다. 2012년에는 건국대학교 등 17개교 54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8월까지 총 5기로 편성해 각각 2~4주간의 실무를 수습하였고, 2013년에는 수요 조사를 거쳐 전북대학교 등 20개교 66명을 4월부터 8월까지 총 7기로 편성해 각각 3~4주간의 실무를 수습하였다. 2012년 국립중앙도서관 직제개편(자료수집과 등 신설)과 국립장애인도서관 개관으로 필수실무 부서는 자료수집과, 국가서지과, 자료운영과, 연속간행물과, 디지털기획과, 디지털정보이용과로, 희망실무 부서는 사서교육문화과, 도서관연구소, 국립장애인도서관, 어린이청소년도서관(기획협력과, 정보서비스과)으로 운영하였다. 2014년에는 충남대학교 등 22개교 74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8월까지 총 7기로 각각 3~4주간 실무수습을 실시하였다.

2015년에는 부산대학교 등 22개교 74명이 1월부터 7월까지 총 7기로 편성돼 각각 3~4주간 실무수습에 참여하였고, 예비 사서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처음으로 도서관계 취업 동향, 자기소개서 작성 등 취업 관련 특강을 마련하였다. 수습 종료 후에는 근무태도(근면성, 단정함, 협동심), 실습태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태도, 업무에 대한 의욕과 창의성, 기자재 관리와 정리

정돈 태도), 업무수행능력(업무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 업무처리 능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기술, 정확하고 논리적인 의사 표현)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 소속대학(교)에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필수실무수습’과 ‘희망실무수습’을 병행하되, 취업 특강을 진행하는 형태로 운영하였으며, 2016년은 총 7기 22개교 79명, 2017년은 총 6기 17개교 58명, 2018년은 총 8기 20개교 73명, 2019년은 총 5기 16개교 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20년은 총 3기 14개교 41명을 대상으로 2~3주간 실무수습을 실시하였다. 코로나19 발생으로 기존보다 축소된 일정과 규모로 진행하였으며, 취업 특강 또한 생략하였다. 도서관 실무수습은 현장의 소리를 듣고 경험하는 자리이기에 실습생 간 거리두기, 소독, 발열 체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다.

2021년 역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총 5기 22개교 69명을 대상으로 실습 기간은 3주로 조정해 실시하였다. 2021년부터는 예비 사서로서의 비전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비전 드로잉’ 특강을 진행하였다. 총 5회 동안 진행된 특강의 결과물로 실습생의 개인별 작품을 모아 사서연수관 벽면에 교육생 참여형 예술 작품을 전시하였다.

2022년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업무 전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실습 가능한 부서를 전체 순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4월부터 8월까지 총 5기 20개교 59명이 참여하였다. 기수별 마지막 실습일에는 ‘캘리그래피로 그려보는 나의 비전’ 특강을 진행하고, 이와 연계해 본인의 비전과 꿈을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림 3] 2022년 대학생 도서관 실무수습

## 사서교육시스템 개발

국립중앙도서관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며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는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05년부터 사서교육 이러닝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차 'KDC 자료분류' 과정에 이어 2차 '독서지도 기초' 과정을 개발함으로써 교육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교육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학습체제를 구축하였다. 각 과정은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문자, 이미지, 음성·음향, 애니메이션 및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강의 기법을 적용하였고, 개발된 이러닝 콘텐츠를 중앙공무원교육원 사이버교육 시스템에 탑재해 다른 공무원 교육기관에서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1년 국립중앙도서관은 사이버교육 인원이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교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교육 수요자와 소통하는 보다 편리한 교육 프로세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학사관리시스템을 포함하는 사이버 사서교육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사이버 사서교육시스템 개발 사업은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웹 접근성과 U-러닝 서비스를 확대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미래지향적으로 개발되었다.

2012년에는 급증하는 사이버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1년 개발한 사이버 사서교육시스템의 확장 사업을 추진하였다. 다양한 모바일환경에서 학습이 가능하도록 스마트러닝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기존 이러닝 기반의 사이버 사서교육시스템과 연계한 이용자 중심의 상시학습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습자의 수준과 다양한 정보서비스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3년에는 교육생들의 원활한 학습 지원과 안정된 교육통계 등 기능 개선을 통해 사서교육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학사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2014년에는 개인정보 법적 강화와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실태 점검 및 조치계획에 따라 사서교육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기능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예방 및 관리 수준을 강화하였다.

한편 2005년부터 사서교육 이러닝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러닝 콘텐츠의 제작, 운영 및 관리 지침이 미흡하여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사이버 사서교육을 위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 운영,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를 추진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2005년부터 개발된 이러닝 콘텐츠 운영 현황과 관종별 교육생 특성에 따른 콘텐츠 활용 현황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둘째, 국내외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사례 분석으로 도서관 관종별, 교육생 특성별(사서/비사서 등) 개발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셋째, 사이버 사서교육 콘텐츠 개발, 운영,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체계화된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효과적인 콘텐츠 관리와 개발, 도서관 현장을 반영한 체계적인 교육 품질 관리로 이러닝 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9년에는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에 기반을 둔 시스템으로의 신속한 변화 요구에 대응하고, 이러닝 콘텐츠 환경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차세대 사서교육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였다. 기존 사이버 사서교육시스템은 이러닝 교육 신청·수강 위주의 PC 기반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모바일 서비스를 위해서는 별도의 모바일 앱을 운영해야 했으나, 새로 구축된 차세대 사서교육시스템은 반응형 웹으로 개발해 비로소 PC-모바일 통합 학습 환경을 마련하게 되었다.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총 67개 이러닝 콘텐츠를 개발하였으며, 교육 내용의 시의성 등에 따라 23개 과정을 폐강하고 현재는 44개 과정을 운영·활용하고 있다. 2022년에는 ‘고문헌으로 배우는 한자와 한문’, ‘메타버스 시대의 도서관서비스’,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실무’를 주제로 한 3개 과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이러닝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 사서교육훈련 중장기발전계획

국립중앙도서관은 전국 도서관 직원 대상의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서 도서관 대내외의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전문 인재 양성과 사서교육훈련 체계 확립을 위해 2009년 「제1차 사서직 교육훈련 중장기발전계획(2010~2019)」을 수립하였다. ‘도서관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조성기반단계(2010~2011), 도약성장단계(2012~2014), 지속적발전단계(2015~2019)의 3단계로 추진 단계를 설정하고 교육훈련 조직의 확대 발전, 교육훈련 운영, 교수 요원 확충, 초빙 강사 확보, 교육훈련 지원 등 5개 부문별 중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였다.

2022년에는 새로운 인적자원개발(HRD) 트렌드를 반영한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훈련 중장기발전계획(2022~2026)」을 수립하고, ‘국민의 지식정보서비스를 선도하는 도서관 전문 인재 양성’이라는 비전 아래 수요 맞춤형 전문교육 강화, 교육훈련의 다변화, 첨단 교육 환경 구축을 3대 전략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첨단 디지털 시대의 AR·VR·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 교육을 비롯하여 교육 대

상별·관종별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무 전문교육 강화, 메타버스(Metaverse), 하이브리드 러닝(Hybrid Learning), 일과 학습을 연계한 학습공동체 구성 등 다양한 교육훈련 방식의 도입, 인적자원개발(HRD)의 비대면·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교육 환경 구축을 중점 추진한다.

3대 전략 방향을 바탕으로 가) 수요 맞춤형 전문교육 강화, 나) 교수학습방법의 혁신, 다) 미래 교육시스템 구축, 라) 인재개발 인프라 고도화를 4대 목표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26대 추진 과제를 ‘사서교육훈련 5개년 계획’에 담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요 맞춤형 전문교육 강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확산과 교육 대상, 관중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 맞춤형 직무 전문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력단계별 직무교육으로 직급별 리더십 교육과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서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 역량별 교육과정을 기초·심화 단계로 세분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공통과목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을 개선하여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증가하는 다양한 관종의 특화교육 요구를 반영한 관종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에는 관종별 특화교육 운영을 위한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사서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중점 추진한다. 올해는 사서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교육과정을 개발해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 교수학습방법의 혁신

비대면·온라인 교육의 확산으로 변화된 인적자원개발의 패러다임을 사서교육훈련 방식에도 반영하였다. 디지털 기반의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고자 온·오프라인 동시 수강 형태의 하이브리드 러닝과 교육 일정의 일부를 대면 또는 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운영하는 혼합형 교육을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과 학습을 연계한 ‘사서학습공동체’ 운영을 교육훈련에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훈련의 유형이 학습자 중심의 비정형 학습으로 확장됨에 따라 사서교육훈련에도 이 같은 학습공동체<sup>2)</sup>를 도입해 학습자 중심의 상시 학습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서학습공동체 운영은 2023년부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기반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확산하고 MZ세대의 특성에 맞는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추진 과제로 마이크로러닝(Micro Learning)<sup>3)</sup>을 활성화하는 계획도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교수훈련 방법의 혁신을 위해 디자인싱킹(Design Thinking)<sup>4)</sup>과 같은 문제 해결 기반의 교수 기법을 적극 도입하고, 소통과 협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팀 기반 수업의 참여형 교육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미래 교육시스템 구축

이번 중장기발전계획에는 교육시설, 기자재 등의 노후화로 디지털 기반의 교육 환경 전환에 제약이 따르는 현재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추진 과제도 포함하였다.

먼저 교육 환경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로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 교육의 단방향 강의식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생 간의 상호작용과 몰입도를 높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하이브리드형 교육 운영을 위한 첨단 강의실 조성과 관련 기자재 확보 등도 중장기 교육 환경 개선 계획에 담았다.

이 외에도 사서교육훈련의 평가체계를 고도화하여 환류를 통한 교육훈련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별 교육과정 중심의 단편적인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연간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종합적인 운영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2) 공통의 과제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학습조직으로 직무연구회 등이 대표적이다.

3) 학습자의 집중도와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5~10분 이내로 제작된 교육 영상.

4)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방식. 디자이너가 고객 입장에서 시제품을 만들고 테스트하는 과정을 통해 제품·서비스를 설계하는 전략이다.

## 인재개발 인프라 고도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의 추진 과제로 사서교육훈련 자문 위원회 구성, 국내의 교육훈련기관 간의 교류 협력 강화, 전담 교수 요원 확보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훈련을 위한 전문 역량과 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운영자 대상 정규 교육과정 운영과 내부강사 활용을 확대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 10년간 전국 도서관 수와 사서 인력이 크게 증가하고 교육수요도 급증하였다. 이에 따른 다양한 사서교육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 조직을 재정비하고, 증가하는 교육 수요에 대한 효율적 대처 및 미래 사서교육훈련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가칭)국립도서관인재개발원’ 건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중장기발전계획은 지난해 실시한 사서교육훈련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한 기초 연구를 토대로 전국 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 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는 도서관 인재 개발을 위하여 연도별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효성 있는 사서교육훈련 5개년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나가며 - 도서관 미래 핵심 인재 양성

지금까지 사서교육의 변천사와 사서교육훈련 중장기발전계획을 살펴보았다. 먼저, 사서교육 변천사에서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전신인 국립도서관부터 사서교육담당기관(1965), 사서연수기관(1983)을 거쳐, 전문교육훈련기관(1997)으로 지정된 바 있다. 200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서교육은 자료분류화와 자료목록화를 위한 교육에 치중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며 보다 전문화된 직무 위주 교육으로 변화하게 된다. 특별히 2001년부터는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정보화 교육이 사서교육의 주축이 된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국제화 교육 또한 사서교육의 또 다른 주축이 된 바 있다. 이러한 사서교육은 2000년대 말을 기점으로 전환기를 맞는다. 이때부터 창의적인 도서관 인재 양성이 사서교육의 목표가 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사서교육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급변하는 시류에 걸맞



은 접근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사서교육훈련 중장기발전계획에서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차 산업혁명이 개개인의 일상생활 전반에까지 지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도서관 또한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아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서교육훈련 5개년 계획은 이런 흐름에 걸맞은 사서교육의 변화 필요성을 역설하는 과정에서 수립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사서교육훈련 5개년 계획을 통하여 수요맞춤형 전문교육 강화, 교육훈련의 다변화, 첨단 교육 환경 구축을 3대 전략 방향으로 수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서관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

---

#### 참고 문헌

국립중앙도서관 (2016). 국립중앙도서관 70년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2020). 사서교육훈련 중장기발전계획.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 ‘과학 전문사서’에 한발 더 가까이

글 김금숙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사료관 사서

## 국립과천과학관에도 사서가 있다

국립과천과학관에도 도서관이 있을까? 물론 존재한다. 2008년 11월 개관한 ‘과학기술사료관’이 바로 그곳이다. 전체 도서 2만 5,000여 권의 단행본 중 과학 분야 도서가 약 65%를 차지하는 과학기술사료관은 과학 관련 정기간행물 30여 종과 개관 이래 수집한 과학 관련 자료들, 과학자들과 과학 분야 기관으로부터 기증받은 물품들을 수집해 운영하는 과학 특화 도서관으로서 여러 사료가 공존하는 복합공간이다.

‘과학 전문사서’라는 거창한 수식어를 쓰기에는 부끄럽지만, 나는 이곳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7년 입사해 처음 맡은 곳이 과학기술사료관이었는데, 문헌정보학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 도서관 업무에 많은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후 문헌정보학을 공부하고 전문사서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이때 배운 지식은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과학관 라키비움(Larchiveum)<sup>1)</sup>이라는 소규모 전시 공간을 만든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전문적인 사서가 되고자 공부하며 도서관과 사서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면 이렇듯 도서관과 기록관, 박물관의 성격을 통합적으로 갖춘 공간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1)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성격을 통합적으로 갖춘 공간.

## 과학 전문사서의 주요 업무

과학기술사료관 사서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도서를 이용한 정보 안내자 역할, 두 번째는 자료의 수집과 아카이빙이다. 첫 번째 사서의 역할과 관련해 내 업무 중 대표적인 것이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과학 도서의 대중화'이다.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19는 내 업무에도 영향을 주었다. 기관 특성상 과학기술사료관은 일반 이용자보다 과학관 직원들의 이용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이용 변화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지만, 과학관의 온라인 콘텐츠 활성화 업무에는 큰 영향을 미쳤다. 국립과천과학관 유튜브를 통해 '과학책 수다'라는 이름의 영상 콘텐츠를 업로드하게 되었는데, 과학을 잘 모르는 사서와 행정직 직원이 출연해 일반인의 시선에서 대중성이 있거나 시의성 있는 과학 도서를 소개하는 영상이다. 과학 도서를 읽고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과학적 지식을 질문한다는 것은 꽤 험난한 여정이었고 나의 모습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 고스란히 공개된다는 데 압박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콘텐츠에 대한 반응이 꽤 좋았고 과학관 내에서 '사서의 역할과 인식'이 한순간에 올라가는 계기가 되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20회가 방영되었는데 그중 최고의 인기 콘텐츠는 생물학자 제임스 왓슨이 저술한 『이중나선』을 다룬 영상이다.



[그림 1] 국립과천과학관 유튜브 '과학책 수다'

사실 과학계에서는 이 책이 스테디셀러였지만 해당 분야 비전공자로서 화학과 DNA 구조 같은 전문적인 내용을 소개할 자신이 없어서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미루고만 있었다. 과학 분야 고전인 『이중나선』을 소개해달라는 주변의 요구는 꾸준히 이어졌고, 결국 나를 포함한 '과학책 수다' 제작팀은 몇 번의 회의를 거쳐 책 내용을 최대한 쉽게 전달하면서도 흥미를 유발할 소재를

적절하게 첨가한 뒤 완성본을 내놓았다. 예를 들어 DNA의 이중나선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DNA' 노랫말과 춤을 연결한다든지, 노벨상을 향한 과학자들의 암투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푸는 등 최대한 쉽게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6,000여 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고 수많은 댓글이 달리는 등 대성공을 거두었다.

'과학책 수다'의 주요 구독층이 성인들인데, 과학관 내부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콘텐츠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작년부터 '과린이를 부탁해'라는 제목의 또 다른 기획에 나서게 되었다. 어린이 대상의 과학 잡지 속 특집 기사를 선정해 '과학 언니'가 질문하고 탐정 '고난도일'이 대답하는 콘셉트로 과학 정보를 전달하는 영상을 2021년부터 시작해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업로드하고 있다. 이렇듯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과학 도서의 대중화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 과학기술사료관 사서만이 할 수 있는 일

두 번째 역할은 국립과천과학관의 기본 운영 규칙 중 '과학기술자료의 수집, 발굴, 조사, 연구, 보존' 항목<sup>2)</sup>에 근거해 과학기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아카이빙하는 일이다. 자료 수집은 직접 구매와 기증,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직접 구매의 경우 과학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료 목록을 의뢰받아 자연사, 근현대, 전통 부문 등으로 각각 나누어 사료를 직접 구매한다. 공정성과 필요성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기에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신중하게 구매를 진행하고 있다. 기증의 경우,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힘쓴 혁혁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한림원에서 '과학기술 유공자'로 지정된 분들의 기증품을 받고 있다. 예방의학의 선구자 고 권이혁 선생, 우리나라 최초의 바이러스 백신인 한타 백신을 개발한 고 이호왕 선생, 그리고 제어계측의 선구자인 권옥현 선생 등의 기증품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연구 노트, 사진 자료, 참고 도서, 논문, 생활용품 등 한 인물의 역사를 고스란히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을 접하다 보면 절로 존경심이 생긴다.

권옥현 선생의 기증품 수집 과정을 잠깐 소개해보자면, 그는 서울대학교 제어시스템공학관 연구소를 창설하였고, 한국 공학한림원 회원일 뿐만 아니라 2022년 2월 미국 공학한림원 회원으로도 선정되었다. 본인이 이룬 업적 중 연구소를 직접 운영했던 경험과 국제적인 행사를 치

2) 제3조(소관업무) 과학관은 기초과학·응용과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연구·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중략) 4. 과학기술자료의 수집·발굴·조사·연구·보존·제작 및 전시에 관한 사항.

르면서 외국 연구자들과 꾸준한 교류를 해왔던 경험, '벤처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연구실에서 많은 벤처 기업가를 배출한 점이 학계나 외국에서 높은 인정을 받는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다. 과학계의 큰 어른인 교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행운은 내가 이곳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이때 교수님과의 만남은 과학 자료의 무한한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했고, 과학기술사료관의 자료 수집에 대한 애착과 열정을 갖게 해준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과학기술사료관은 전문도서관의 범주에 속하지만 1인 사서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사서의 내적·외적 성장에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자료의 전문적 수집과 과학 도서의 대중화를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 등은 과학기술사료관 사서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나는 '과학 전문사서'라는 직함에 차츰 한발 더 가깝게 다가서고 있는 셈이다. ●

# ‘빛’의 도서관, 그 안의 ‘나’

글 최미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서



[그림 1] 신구의 조화가 돋보이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 JongOh Kim

## 프롤로그

예전에 읽었던 책 속에 밑줄 쳐둔 문장을 다시 꺼내어 보면 종종 과거의 나를 만날 때가 있다. ‘대학도서관 사서의 정체성과 성장’이라는 주제를 받아들이고 나는 그간 모아두었던 과거의 여러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다. 직무 관련 강의 발표 자료부터 연수 보고 자료, 직원 의견 수렴서, 도서관장과의 신상 대화 등의 은밀한 자료까지. 여러 자료를 들춰보면서 과거의 나는 사서로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무엇을 고민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고, 지금의 나는 똑같은 질문에 어떤 대답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 진리의 빛, 그 중심에 도서관이 있다

대학도서관 사서라면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대학교의 사명(Mission)을 인지하며 대학교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의 학술적 조력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내가 몸담고 있는 서울대학교는 그 이름만으로도 부담과 책임을 느끼게 하는 큰 존재다. 한 번쯤 서울대학교 정장(正章)을 보았을 것이다. 월계관에 깃털 펜과 햇불이 교차되어 있고, 그 위에 책과 교문의 심벌(Symbol)을 배치하고 있으며, 펼쳐진 책에는 라틴어로 '진리는 나의 빛(Veritas Lux Mea)'이라는 글귀가 새겨 있다. 여기에는 서울대학교가 으뜸가는 학문적 영예의 전당으로서 지식의 탐구를 통해 겨레의 길을 밝히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 '빛'의 중심에 도서관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대학도서관은 미래를 준비하는 지성의 공간으로 세계 수준의 지식 정보를 구축하고 구성원들의 교육, 연구 및 학습 역량 극대화를 위하여 대학교의 중심 역할을 다해야 한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도 그 사명을 다할 때 대학교의 진정한 '빛'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정체성과 성장은 바로 그 '빛'을 발휘하는 도서관, 그 안에서 시작한다. 사서로서, 학술 정보 제공자로서 빠르게 변하는 지식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지지대가 되어줄 것이다. 지난 20여 년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근무하며 내가 느낀 나의 역할이다.

## 탐방을 통해 그려본 이상적인 대학도서관, 그리고 사서

대학교가 지성의 텃밭을 일군다면, 대학도서관의 이상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평소 누군가 이상적인 도서관에 대해 물을 때마다 나는 이렇게 답하였다. '대학도서관만큼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면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말이다.

2013년 9월, 미국 동부의 대학도서관들을 탐방하였다. 내가 방문한 4개 기관은 컬럼비아대학교, 예일대학교, 하버드대학교, 프린스턴대학교(방문 순서)로 이 대학교들은 미국 내에서도

톱 오브 톱(Top of Top)이라 할 만큼 그 전통과 명성이 대단한 명문이다. 대학교의 전통과 명성이 도서관에 그대로 녹아 있는 모습이 놀라웠다. 첨단 시설을 갖춘 현대식 건물의 도서관도 물론 시선을 끌고 감탄을 자아냈지만 오랜 역사와 전통, 사람들의 자취가 남아 있는 도서관을 보면서 느끼는 감동은 또 달랐다. 과거를 소중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전통과 현대를 연결 짓는 다리가 되는 도서관들의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다. 특히 예일대학교 도서관은 유리창을 일부러 깨진 유리창이 보수된 것처럼 보이게끔 이음부를 시공했고, 도서관 입구에는 존재하지 않는 조각상이 분실된 것처럼 인위적인 흔적을 조성하기도 했는데 오랜 전통이 깃든 도서관 건물을 만들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에 웃음이 나기도 하였다.

역사와 전통은 지키되 딱딱하지 않고 자유로움과 실용성의 균형을 잘 맞추가는 도서관, 전통과 현대의 공존 속에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도서관. 이것이 내가 도서관 탐방을 계기로 마음 속에 각인하고 온 이상적인 도서관의 모습이다. 이것이 도서관의 아이덴티티(Identity)라고 생각한다. ‘과거를 존중하고 미래를 창조하라(Honor the past and create the future)’<sup>1)</sup>는 고먼(Gorman)의 말처럼 도서관은 과거와 미래의 결합을 통해 사회 중심에서 있어야 한다. 도서관은 과거의 역사와 전통, 문화유산, 지식 자료 등을 잘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 기술 등을 끊임없이 창조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그곳에는 미래의 설계자 역할을 해내는 사서가 있다.

## 대학도서관 사서로서의 현재와 미래

현재 나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학술정보자원 중 온라인 자료(전자저널·학술 DB) 구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온라인 형태의 자료 이용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정보 이용 환경이 인쇄 형태(오프라인)에서 전자 형태(온라인) 위주로 변화하였다. 우리 도서관도 이용자의 정보 이용 행태와 니즈(Needs)에 맞춰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교육 및 연구 지원을 위한 전자자료 구독에 쓰고 있다. 1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전자자료 구독에만 쓰고 있어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매년 인상되는 구독료

1) 고먼(Gorman)의 ‘신도서관학 5법칙’ 중 하나이다. 이 외에도 ‘도서관은 인류를 위해 봉사한다(Libraries serve humanity), 지식을 전달하는 모든 형태를 도서관 자료로 고려하라(Respect all forms by which knowledge is communicated), 도서관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라(Use technology intelligently to enhance service), 지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수호하라(Protect free access to knowledge)’가 있다.



(3~7%), 환차손<sup>2)</sup>, 새로운 학문 분야 연구 수요 등의 영향으로 인해 연구자들이 원하는 자료를 모두 제공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은 매년 구독하고 있는 전자자료 및 학술지의 구독 평가<sup>3)</sup>를 통해 '계속 구독 유지' 및 '중단' 대상 자료의 선정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전 세계 물가가 치솟고 있고, 환율 또한 전년보다 너무 많이 상승하고 있어 현재 구독하고 있는 자료를 중단해야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실제 우리 도서관은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약 7,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sup>4)</sup>, 100원이 오르면 7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학 본부에 환율 인상분에 대한 추가 예산 지원 요청을 하고 있고 매일매일 환율을 확인하는 것이 슬프게도 나의 중요한 일상 업무가 되어버렸지만, 나의 이러한 노력이 학생과 교수의 학업과 연구에 좋은 성과로 연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전혀 힘들지 않다.

처음 전자책이 등장하였을 때 많은 사람이 도서관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종이책 없는 도서관(Paperless Library), 디지털 도서관(Digital Library) 등의 용어가 등장하였을 때 물리적 공간의 도서관은 사라질 것이고, 사서의 역할도 당연히 축소되며 존재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지금에 와서 보면 기우였다. 정보화, 디지털 사회의 영향으로 도서관도 사서도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여전히 물리적 공간인 도서관도, 나 같은 사서도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새로운 변화에 맞는 새로운 역량이 필요한 업무가 계속 생겨날 뿐이지 과거의 업무가 사라지거나 물리적 공간이 없어지지는 않았다.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의 도서관은 전통적인 기능, 물리적 공간, 사서의 기존 역할에 더해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정보 패러다임 변화, 학문의 융합화, 온라인 정보요구 증대 등으로 훨씬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며 도서관의 기능이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을 뿐이다. 이제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새로운 직무 수행을 위해 끊임없이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배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나는 생각한다. 대학도서관의 사서에게는 변화하는 정보환경과 다양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이해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스스로의 변화'를 위해 계속 교육(Keep educating yourself)을 받아야 하며 나 또한 그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2)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3) 단과대학교(학부)별 구독 우선순위 조사, 구독 효율성(CPU, Cost Per Use) 평가, 이용자 설문조사 등을 종합해 구독 여부 결정을 위한 평가.

4) 올해 구독 자료 계속 유지 조건이며 신규 자료 구독은 포함하지 않음.

## 에필로그

나는 대학도서관이 대학교의 지식 정보와 문화의 랜드마크(Landmark)가 되길 바란다. 즐거움과 휴식, 지식을 누릴 수 있는 도서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도서관, 사람과 사람이 만나 지식을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었으면 한다. 나아가 도서관이 대학교의 품격을 높이고 대학교에서 최고의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학술 정보 인프라가 대학교의 기본 인프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선제되어야 한다. 그런 기반 위에서 우리 사서들이 대학교의 교육·연구 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런 우리의 노력이 대학교와 도서관을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 감히 말하고 싶다. ●

# 책이라는 새싹을 틔우도록 돕는 어린이도서관 사서

글 여현경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사서

## 책이라는 세상을 유영하도록

어린이도서관에서 근무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아이들의 분실물을 상당히 많이 접수한다. 양말이나 가방, 점퍼처럼 아이들이 금세 잊어버리는 소지품이 가장 많지만, 의외로 자주 접수되는 물품 중 하나가 어린이들이 학교나 학원 등 어딘가에서 만들어진 ‘만들기 작품’이다. 내가 일하는 중랑숲어린이도서관의 사서들은 어떨 때는 종이접기 작품처럼 작은 것부터 과자, 박스, 찰흙이 붙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작품들까지 자칫 쓰레기로 오인할 만한 것들을 분실물 함 한구석에 차곡 차곡 쌓아놓는다. ‘혹시라도 아이가 찾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다. 이런 사소한 하나하나를 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어찌면 어린이도서관 사서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종종 든다.

사실 내가 어린이도서관 사서가 된 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그렇듯, 여느 일반 회사처럼 기관의 정책이나 인력 배치 같은 구조상의 이유로 어린이 서비스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사서가 특정 계층의 서비스를 하겠노라 마음을 먹는다고 담당할 수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간혹 어린이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새내기 사서들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토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새내기 시간을 지나쳐온 내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그것은 어려움보다는 ‘혹시라도’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어린이도서관

의 일과는 단순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책과 자료들을 서비스한다는 범위를 벗어나기 마련이니 말이다.

어린이도서관은 어디까지나 교육시설 외 기관이지만, 어찌 보면 지역사회에서 가장 어린이들과 맞닿아 있는 공동육아의 현장이기도 하고, 책과 도서관에 대한 한 사람의 인생을 처음 마주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 사서들은 항상 언행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사서들이 무심코 꺼낸 행동과 말 한마디로 어린이가 도서관에 ‘혹시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말이다. 또한 어린이도서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되어 아이들을 늘 주의 깊게 살피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어린이들이 거리낄 것 없이 편안한 상태로 책이라는 세상을 한껏 유명하도록 돕는 것이 어린이도서관 사서들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림 1]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전경과 1층 내부

## 어린이라는 세계, 오롯이 존중받고 있을까

2017년 중랑숲어린이도서관은 폐관 위기였다. 지역구의 새로운 사업에 따라 개설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치가 어린이도서관으로 낙점되면서 중랑숲어린이도서관이 폐관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폐관 위기의 도서관을 구한 것은 바로 지역 주민들이었다. 당시 주민들은 지역구에 공청회를 요구하고, 관계 부서에 끊임없이 도서관 존치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중랑숲어린이도서관은 많은 지역 주민의 합심 덕분에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아직도 우리 지역구 누리집의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는 도서관을 살리고자 애썼던 지역 주민들의 분투 어린 의견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당시에는 내가 근무했을 때가 아니어서 이 이야기를 훗날 전해 들었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을 없앤다는 발상이 도무지 공감되지 않아 마치 오래된 전설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어린이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니, 어린이를 잘 기르기 위한 센터 설립을 목적으로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을 없앤다는 '어른들'의 발상이 아직도 유효함을 종종 느낀다.

폐관 위기를 딛고 2018년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구성된 우리 도서관은 부족한 점도 있지만, 나름대로 어린이의 시선에서 아주 잘 지어진 도서관이라고 자부한다. 우리 도서관에는 아이들이 몸을 숨기고, 오르고 내리고, 조금은 뛰어도 부딪칠 장애물이 덜한 여유 공간이 있다. 서가의 층고(層高)는 물론 사서 데스크 역시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리모델링 당시 도서관 총괄 담당자였던 이지유 관장이 리모델링 업체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한 결과이다. 다수의 지자체 도서관 건축설계와 건설에 도서관 사서들이 배제되는 사례를 생각하면, 당시 고생한 관장에게는 죄송하지만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절로 든다.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시설은 단순히 알록달록한 원색을 쓴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보다 더욱 섬세한 구성이 필요하다. 우선 어린이에게는 많은 면적이 필요하다. 고층 공간보다 여유 면적이 많은 마루가 필요하다. 구르고 뒹 아이들을 위해 도서관 곳곳에 매트가 설치되면 좋고, 아이들이 오갈 때 걸릴 수 있는 '미감을 위한 구조물'도 최대한 덜한 것이 좋다. 그뿐만이 아니라 두꺼운 하드커버 위주인 어린이용 자료를 오랫동안 버텨낼 수 있는 튼튼한 서가도 필요하다. 스스로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아이들 외에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유아들의 이용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의 몇몇 도서관 사례를 보면 어린이의 고유한 특성

보다는 ‘몸집이 작다’라는 어린이의 외적 특성만을 도서관 설계에 반영한 곳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또 이런 경우도 있다. 어린이도서관의 독서 프로그램 포맷은 대개 아이들과 일대일로 소통이 가능하고, 친밀함을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소규모 형태이다. 경제적·시간적 비용은 물론 직원의 수고까지 성인의 프로그램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하지만 대개 많은 지역구에서 어린이도서관은 도서관 중에서도 서브 파트의 도서관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곳이다 보니 실적을 내야 하는 상위 기관이나 관계자 입장에서 보면 어린이도서관은 들이는 품에 비해 실적이 크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겠다. 이렇듯 어린이를 함께 기르는 일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몰이해적인 시선에 부딪히기도 한다. 2020년 출간된 김소영 작가의 『어린이라는 세계』가 많은 사람에게 읽혔다. 책을 읽은 사람들은 어린이에 대한 예찬과 다정함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사회의 한쪽에서는 아직도 노키즈 존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어른들의 무심과 다정 사이, 어린이는 어디쯤 머물러야 할까? 어린이에게 필요한 것은 오롯이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 내일의 세상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길

우리 도서관에서는 어린이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취학 전 1,000권 읽기’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나는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나의 가치관과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취학 전 1,000권 읽기’는 취학 전 어린이들을 위한 책마중 프로그램으로 자녀와 부모가 매일 한 권씩 3년간 책을 읽자는 내용을 담은 독서 운동이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1,000권’이라는 키워드에 끌려 아동 학대니, 무용하고 예스러운 프로그램이니 하는 지적을 했었다. 물론 사업을 운영하는 나도 그러한 시각이 아예 없었다고 부정할 수는 없지만, 한 해 한 해 책과 함께 자라는 아이들을 보며 그런 생각이야말로 어른의 시각에서 할 수 있는 편협한 의견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취학 전 1,000권 읽기’를 끝마친 한 어린이는 1,000권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하는 친구의 물음에 “천천히 읽어도 돼. 그러니까 너무 빨리 읽지도 말고, 너무 느리게도 읽지 말라는 말이야”라고 답하였다. 꾸준함이라는 단어를 이보다 더 멋지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린이들은 ‘취학 전 1,000권 읽기’의 진정한 뜻을 어른보다 더 어른스럽게

이해한다.

우리 도서관 사서들은 성인 1년 평균 독서량이 4.5권밖에 안 되는 이 세상에서 어린이들이 책과 유리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꾸준한 독서로 아이들은 앞으로 책을 낫설게 대하지 않고,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랄 것이다. 그리고 사서들이 품은 이런 작은 마음을 더 잘 이해하는 어린이들 덕에 ‘취학 전 1,000권 읽기’는 여전히 순항 중이다.

나는 ‘취학 전 1,000권 읽기’의 심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중랑 어린이 북스카우트’ 프로그램 발대식 선서문에 아래의 세 문장을 만든 적이 있다.

첫째, 우리는 책을 통하여 존중과 배려를 배우는 어린이가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책을 통하여 지식과 열정을 쌓는 어린이가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책을 사랑하고 즐기는 어린이가 될 것입니다.

이 세 문장은 어린이도서관 사서로서 어린이들을 향한 나의 작은 바람을 담은 내용이기도 하다. 책은 더 나은 생각을 만든다. 이것은 모든 인류 발전에서 책이 항상 먼저 해온 일이고,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라고 믿는다.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도서관은 책이라는 씨앗을 심는 곳이다. 어린이도서관 사서는 어린이들이 심은 그 씨앗이 새싹을 틔울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아닐까. 어린이들이 꾸려갈 내일의 세상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면 좋겠다. ●

#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 그리고 모두의 친구

글 박연주 의정부미술도서관 사서



[그림 1] 의정부미술도서관 내부



## 의정부미술도서관에 붙어닥친 RM 효과

2022년 1월 의정부미술도서관팀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의정부가재울도서관 팀장으로 1년 6개월을 보낸 이후 다음 부임지다. 전임지에서 기획한 독서 프로젝트 ‘몰입’을 시작도 못 해보고 떠난다는 사실에 아쉬움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미술도서관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주는 신선한 변화에 설렘이었다. 미술도서관은 낯선 곳이라기보다는 내심 한 번쯤은 일해보고 싶은 곳이었다. 팀을 옮긴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만 간직했던 예술에 대한 내 열정을 업무를 통해 확장할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이곳에 온 지 한 달이 채 안 된 1월 어느 주말 오전,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RM(김남준)이 방문하였다. 조용히 이용하는 바람에 도서관 직원 모두 그의 방문을 알지 못했는데, 며칠 후 RM은 인스타그램에 의정부미술도서관을 배경으로 한 사진 두 장을 포스팅하였다. 1층 테이블에서 책 읽는 모습과 미술 자료집 두 권을 담은 사진이었다. RM의 방문 후 도서관에는 ‘RM 효과’가 일어났다. 신규 직원은 스타를 알아보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며, 사무실 여기저기에서 긴 한숨을 내쉬었다. 자료 담당자는 포스팅한 책을 도서관 이용자가 독점할 수 있으니 서고에 보관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으나, 책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에 별도 보관은 하지 않았다. 아울러 1층 자리에 표식을 해 포토존으로 만들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표식을 하는 것이 의정부 미술도서관이 추구하는 심미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에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문객에게도 한동안 변화가 있었다. 방탄소년단 팬클럽 ‘아미’를 상징하는 보라색 옷이나 머플러 등의 액세서리를 착용한 이용자가 눈에 띄었고, RM이 앉았던 자리에서 인증사진을 찍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보였다. RM이 포스팅한 미술 자료집 두 권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달라는 방문객도 있었다.

## 미술도서관 사서에게 필요한 자세

내가 처음 사서라는 직업 세계와 역할을 인지한 것은 문헌정보학과 학생이 된 후였다.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을 가면 책 관련 질문을 하곤 했는데, 나의 사소한 질문에도 사서들은 성실히 안내해주었다. 그 당시 나에게 사서란 이용자가 원하는 책을 사주고, 이용자를 대신해 검

색해주고 책을 찾아주는 친절한 사람이었다.

사서가 된 이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사서 업무에 적잖이 놀랐다. 생각보다 행정 업무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도서관이나 장서 개발에 집중할 시간이 부족하였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다변하는 디지털 세상의 영향으로 정보를 가공하고 제공하는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공간 재구성과 실내장식 조성 등 낯선 업무가 더해졌다. 인도의 사서 랑가나단이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라고 말한 것처럼 그 속에서 일하고 있는 사서야말로 '성장 중'으로 어느 순간도 멈출 수 없고 계속 배우고 노력해야 하는 존재인 것 같다.

'도서관을 품은 미술관, 미술관을 품은 도서관'이라는 모토처럼 의정부미술도서관에서 예술 분야가 차지하는 부분은 50%나 된다. 기획 전시, 신진 작가 양성 프로그램, 도슨트(Docent, 전시 해설사) 교육은 큐레이터가 추진하고 있으며, 예술 도서 구입과 미술교육 프로그램은 사서가 기획하고 운영한다. 이로 인하여 우리 도서관 사서에게는 일정 수준의 미술적 지식과 안목, 배움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와 열린 사고가 요구된다. 자세히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도서관 사서는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해답을 찾아간다. 우리 도서관은 예술, 일반, 어린이 분야의 사서 컬렉션을 운영하고 있다. 사서들이 기획 회의에서 도출한 주제로 도서를 소개하고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서 컬렉션은 미술에 중점을 두어 타 도서관과의 차별성을 둔다. 미술사 강연, 화가의 작품 세계, 드로잉, 액션 페인팅 등 다양한 미술 활동을 기획하는데, 좋은 강사를 섭외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때 사서에게는 미술 지식, 안목, 타인의 견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둘째, 예술서 수서 담당자에게는 미술 관련 전문성이 요구된다. 국내 예술서 구입은 서평지 등 다양한 참고자료가 있는 반면에 서양 예술서는 언어적 한계와 더불어 도서 구입 시스템의 한계점이 있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필요로 하는 해외 유명 미술관의 전시 도록을 해외 도서 수입업체에서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설령 구입이 가능하더라도 납품 기한이 오래 걸릴 때도 있다. 예술서 담당자는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고 판단하여 국내외 미술계 트렌드를 반영하는 도서를 적시에 구입해야 하며, 공공도서관으로서 미술 관련 자료 수집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담당 사서는 어학 능력을 키우고 미술사, 화가, 현대미술 트렌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높고 낮은 장벽이 있지만 우리 도서관 예술서 담당자는 기쁜 마음으로 천천히 세밀하게 이 장벽을 넘고 있다.

셋째,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 도서관 옆에는 특수학교가 있다. 개관 이래 줄곧 ‘도서관×특수학교 연계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학교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공들인 결과 학교가 문을 열어주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도서관과 학교가 서로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데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였다. 특수아동 대상 미술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서들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마다

미술관과 도서관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이곳의 특성은 사서들의 패션 스타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의정부시 도서관계에서는 한동안 의정부미술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이 유난히 외모에 신경을 쓴다는 소문이 돌았다. 내 생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 오면 우선 자신의 매무새를 다듬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인 것 같다. 나 역시도 다른 도서관에서 근무할 때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다. 다른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양말조차도 디자인을 고려해 구매하고 있다.

미술도서관은 언제나 예술과 함께하기 마련이다. 책과 전시회 작품뿐만 아니라 가구, 색상, 공간 구성 등 다양한 디자인 요소는 도서관에서 일상을 보내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끼친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마다 예술가가 되어간다. 때로는 순수하게,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상력에 서로가 헛웃음을 지을지언정.

도서관에서 근무해온 지난 19년은 사서로서 전문직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10년 차 사서였을 때 다큐멘터리에서 소개하는 장인(匠人)을 보면서 ‘나도 30년 직장 생활을 하면 사서 장인이 되어 있으려나’라고 스스로 물어본 적이 있었다. 사서 장인이 되려면 ‘특정 주제의 책을 다 읽고 책의 주제, 작가 연구 등을 해야 하나, 그런데 작가는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하지’라며 고민에 빠지기도 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내 직업에 대한 깊은 사유 없이 단편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다. 도서관의 형태와 역할이 다변하는 시기에 맞추어 이제 사서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고 싶다.

사서는 장인이 아니라 공부하는 사람이고, 연구하는 사람이고, 모두의 친구이다. ●

# 군부대에도 도서관, 그리고 사서가 있다

글 문연희 육군기록정보관리단 육군본부도서관 사서사무관

“군대에도 도서관이 있어?”

얼마 전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 여고 동창이라 함께한 세월이 짧지 않은 친구였음에도 내가 ‘병영 도서관에서 일하는’ 것이 의아한 듯하였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군에도 사서가 있구나?’ 하며 낯설어하는 게 사실이다.

## 군무원 사서가 된 계기

대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학교 게시판에 붙은 ‘군무원 사서 모집 공고’를 보았다. ‘아! 군에서도 사서를 뽑는구나? 군대에도 도서관이 있구나!? 이거야!’라고 생각하였고, 그때부터 군무원 사서를 내 목표로 정하였다. 해군사관학교에 지원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군에 대한 애정이 있던 터라, 문헌정보학을 전공하는 나로서는 군에서 일하는 사서가 최적이라고 생각하였다.

군무원 사서는 연 1회 모집 공고를 내고,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해 인원을 선발한다. 공석에 따라 선발되는 시스템이기에 해마다 모집 인원과 지역은 달라질 수 있다. 사서의 경우 워낙 소

수 인원을 뽑는 직렬이라 임용의 기회가 자주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대학교 졸업 후 1년 뒤인 2005년 군무원 사서 모집에 합격하며 결국 '육군본부도서관'에서 군무원 사서로 첫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 육군본부도서관은 어떤 곳일까

현재 내가 근무하고 있는 도서관은 육군기록정보관리단 소속의 '육군본부도서관'으로 3군 본부(육·해·공군)가 있는 충남 계룡시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도서관은 육군은 물론 계룡 지역에서 근무하는 해군과 공군, 국방부 소속 장병과 군무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은 일반자료실과 군사자료실로 구분된다. 일반자료실에는 약 4만 권의 일반도서와 일반간행물이 있고, 군사자료실에는 군에서 발간한 2만 7,000여 권의 교범, 간행물, 연구보고서, 위탁교육생 학위논문 등이 소장되어 있다. 병영도서관이다 보니 「한국십진분류법(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KDC)」의 390 '국방·군사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도서의 비중이 높다.

이용자들과 원거리에 위치한 육군본부도서관은 2010년부터 무선인식(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시스템을 갖추었고, 본청과 그 주변 건물에서 근무하는 이용자를 위해 무인예약대출기와 무인반납기를 운영하고 있다. 반기별 1회 '신착도서 전시회' 및 '현장 대출'을 실시하며, '원화 전시'와 '테마도서 전시' 등의 문화 행사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매달 '베스트 대출도서'와 '사서의 One-Pick 도서'를 선정해 게시하고 있다. 그 밖에 '단체 대출' 서비스를 통해 영내 부대에 도서를 지원하며, 도서관 방문 전 미리 신청한 도서를 빠르게 대출해주는 '도서 간편대출 서비스'도 제공한다. 그리고 독서 동아리 '책톡(책talk)'을 운영 중이며, 올해에는 '청년 독서살롱' 시범 운영 부대로 선정돼 독서 코칭, 문화 공연 관람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장병 독서 활성화 추진'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육군전자도서관(전자책도서관)의 4개 운영기관 중 하나로 선정돼 전 육군 장병과 군무원에게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서비스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모바일과 PC로 언제 어디서나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2020년에는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병영도서관 부문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 병영도서관에서 근무한다는 것

군무원 사서로 임용된 후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도서관 업무보다 군이라는 문화에 적응하는 문제였다. 출근 때마다 출입 절차를 거쳐 위병소를 통과해야 했고, 도서관이 위치한 건물에 들어가려면 병사들이 지키는 문을 통과해야만 하였다. 온통 군복만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틈 속에서 계급 명칭은 물론 계급장도 구분이 어려웠고,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조차 낯설었다. 군복을 입은 현역 군인과 군무원이 함께 일하는 모습 또한 낯설게 느껴졌다.

또 인터넷이 아닌 내부망(인트라넷)을 사용해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군 외부에선 쉽게 이루어지던 일들(수서·도서 등록 및 정리 등)이 번거롭게 이루어졌다. 군에서도 인터넷 PC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다 외부 메일은 접속할 수 없는 등 불편함이 있다.

또한 임용 초기에 교범이나 군에서 발간한 단행본, 연구보고서, 간행물 등을 처음 분류·등록할 때는 「군십진분류법(Military Decimal Classification: MDC)」을 사용해 4자리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물론 현재는 「한국십진분류법(KDC)」을 사용하고 있다. 교범의 경우는 이력 관리가 필요하기에 교범 명이 바뀌거나, 교범의 관리가 변경(일반자료로 전환 또는 폐기)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전 자료와 후속 자료를 서지에 주기해야 한다. 때로는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한 비밀자료를 관리해야 하는 일도 생긴다.

병영도서관은 군 조직이기에 「병영생활 규정」에 따라 일과가 적용되어 일일 체력단련 시간, 주간 체력단련 시간을 통해 개인의 건강과 체력을 관리할 수 있다. 연 1회 체력검정(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3km 달리기)도 실시한다. 부대 훈련에 참여하기도, 당직 근무에 투입되기도 한다. 군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점들이 낯설고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

## 병영도서관과 사서의 존재

「병영도서관 운영 훈령」은 병영도서관을 ‘육군의 대대급·해군의 함정(2급함)·공군의 대대급 이상 부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에서 장병들에게 정보이용·학습·조사·연구 및 문화활동 등을 위해 설립된 도서관과 「도서관법」 제2조에 따라 대학도서관 및 전문도서관으로 분류되는 도

서관을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병영도서관은 현재 '군인' 신분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독서를 통한 문화적 혜택과 정서 함양, 교양 증진 및 자기 계발 등을 지원하며 군 복무 후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군에서는 '장병 독서 활성화 추진'을 계획해 독서를 통한 장병의 복무 여건 개선과 건강한 병영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림 1] 육군본부도서관 내부

국방부에서는 병영도서관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장서 보급과 환경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추진 과제를 도출, 시행 중이며 독서 코칭, 북 콘서트 등의 독서문화행사를 통해 공동체 소통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그 외에도 ‘독후감 경연대회’, ‘독서 마라톤’, ‘릴레이 도서기증 운동’ 등을 진행하며, 매년 도서관 운영평가를 통해 다양하고 모범적인 도서관 활동을 수행한 우수 병영도서관을 선정해 포상도 실시한다.

육군에는 약 1,360개의 병영도서관이 있고, 그중 사서가 근무하는 도서관은 10곳이다. 이용자는 대부분 현역장병과 군무원이지만, 부분적으로 예비역 군인이나 군인 가족들이 이용 가능한 도서관도 있다. 육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를 제외하고선 대체로 보통 1~3명의 사서가 근무하는 작은도서관인 경우가 많다. 수서에서 정리, 대출·열람까지 모두 한 명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구나 사·여단급 이하 병영도서관은 전문사서가 아닌 현역 간부나 행정직 군무원 또는 병사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 사서가 아니지만 부대 사정으로 본인 고유 업무 외에 도서관을 담당하게 된 인원들은 도서 구매를 위한 절차와 심의 준비 및 진행, 자료 수집부터 도서 분류와 등록·정리, 폐기에 이르는 전반적인 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느낀다. 표준화된 업무 편람이 없다 보니 더더욱 그러하다.

작은 병영도서관의 경우에는 도서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규모가 큰 병영도서관의 경우에는 ‘국방전자도서관’이라는 도서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반면, 작은 병영도서관은 그렇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육군에서 개발한 병영 도서 관리 프로그램이 있지만, 대출·반납에는 활용할 수 없어 사용이 불편하다. 더구나 각 부대 예산의 한계로 외부의 도서 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어려운 데다 설령 구입하더라도 보안 문제가 있다 보니 프로그램의 반입 자체가 쉽지 않다.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국방부에서는 작은 병영도서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도서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계획 중이다.

야전의 다른 병영도서관에서 도서관 업무에 대한 문의가 오면 나는 군무원 사서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사서가 배치되지 않은 병영도서관의 업무(공동목록, 공동수서 등)를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도서관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일이다. 향후 전문적인 운영과 서비스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수립되고, 환경 개선과 시설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과 사서 인력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병영도서관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지난 5월 「병영도서관 운영 훈령」 개정 및 진중문고<sup>1)</sup> 보급·관리 관련 회의가 열렸는데, 국방

1) 대한민국 국군의 부대 도서관 혹은 도서실이나 생활관의 책꽂이에 비치하는 책들을 가리키는 군대 용어.



부 병영독서정책 담당자와 각 군별 담당자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나는 작은 병영도서관의 도서관리 실무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을 거론하였다. 병영도서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하며, 나의 '작은 목소리'가 병영도서관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병영도서관 사서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

---

#### 참고 문헌

국방부 정신전력문화정책과 (2020). 병영도서관 운영 훈령. 출처: <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99077>

병영도서관 통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누리집. 출처: <https://www.libsta.go.kr>

장윤금 외 (2018). 병영도서관 이용 및 독서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49(3), 241-261.

---

# 미래를 만들어가는 도서관의 현재

## 은평구립도서관·목포제일여고 도서관 탐방기

글 송현경 『내일신문』 기자

사진 이의종 작가

도서관은 이용자에게 필요한 책을 권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들이 언제나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기기와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을 갖추는 것은 물론이다. 아울러 다채로운 독서문화·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해 이용자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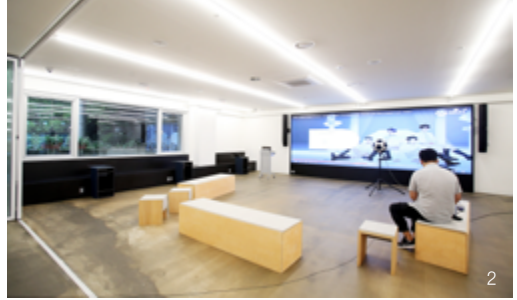
공공도서관의 경우,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변화를 체험하는 시설 및 공간과 프로그램을 갖추는 추세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간과 서비스를 갖추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도서관의 활동은 사회 변화와 기술 변화, 이에 따른 이용자들의 요구에 대응하여 변화하기 때문이다. 학교 도서관은 ‘한 학기 한 권 읽기’ 등 독서가 정책적으로 중시되는 가운데 학교의 독서문화를 이끄는 핵심 기관으로 성장하는 모양새다. 독서 활동은 가치관을 형성하는 청소년 시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대학 입시에서도 주된 자료로 활용된다. 이처럼 다양하고 역동적인 도서관 활동의 중심에는 사서가 있다.

2022년 현재 도서관 현장에서 사서들은 이용자들에게 양적·질적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떤 공간과 서비스를 기획하고 실제로 구현하고 있을까? 이용자들은 이와 같은 도서관 활동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2021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은평구립도서관과 목포제일여자고등학교 도서관을 방문해 도서관의 현재를 살펴보았다. 최근 새로 문을 연 공간이 많은 은평구립도서관은 공간 위주로 서비스와 프로그램, 이용자 활동과 이를 만들어가는 사서들의 목소리에 초점을 맞추었다. 목포제일여고 도서관은 학교 차원의 다양한 독서 활동과 그 활동의 중심에 있는 도서관과 사서교사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통해 2022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 도서관의 역할과 보완점을 살펴보고 도서관의 미래와 전망에 대해 밝힌다.

# 은평구립도서관

## ‘스마트리움’에서 4차 산업혁명 체험



[그림 1] 디지털 기술 기반 제조기기를 구비한 메이커스페이스

[그림 2] 대형 LED 화면이 설치된 커뮤니티 라운지

[그림 3] 3D 홀로그램 작품이 전시된 디지털 큐레이션 공간

[그림 4] 어린이들이 다양한 미디어아트, VR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상상등지 공간

장마가 시작해 비가 세차게 내리던 7월 13일 오전 은평구립도서관. 날씨가 좋지 않은 평일 오전인데도 도서관에는 이용자가 꽤 많이 눈에 띄었다. 이용자들은 책을 읽고 학습하는 것은 물론, 편안한 분위기에서 노트북과 PC 등으로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영화를 보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동아리방에서 동아리 모임을 하는 이용자들도 만날 수 있었다.

은평구립도서관에는 특히 4차 산업혁명 및 뉴미디어와 관련된 공간들이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스마트리움’이다. 도서관 내 지하 공간 대부분을 차지하는 200여 평을 할애해 4차 산업혁명 체험공간인 스마트리움을 조성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최근 들어 몇몇 도서관은 일부 공간에 가상현실(VR) 체험존을 마련하거나 3D 프린터, 레이

저 커터 등을 갖춘 ‘메이커스페이스’를 조성해 이용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체험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리움은 이처럼 다른 도서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를 바탕으로 도서관 내에서 4차 산업혁명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비 및 기기, 미디어아트 등을 보다 큰 규모로 집대성해놓은 공간이다. 공공도서관 중 최초로 ‘4차 산업혁명 체험공간’이라고 정식으로 명명해 홍보하고 있다. 은평구의 관심과 지원도 상당하다. 6월 28일 열린 개관식에는 은평구청장을 비롯한 지역사회 인사 100여 명이 함께하였다.

은평구립도서관 사서들은 최근 수요가 높아진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오랜 시간을 투자하였다. 양우진 팀장은 “스마트리움은 메이커스페이스보다 좀 더 확장된 개념이다. 기존 공공도서관 중에는 이 같은 공간을 마련한 곳이 없다 보니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4차 산업혁명 체험공간 수십 곳을 방문해 조언을 구하였다”면서 “각 체험공간 관계자들과 문헌정보학과 교수 등으로 외부 자문단을 꾸려 필요성, 타당성 등을 연구한 끝에 스마트리움이 탄생했다”고 말하였다.

## 가변적이고 연결된 공간들

스마트리움에는 코딩실, 메이커스페이스, 커뮤니티 라운지, 미디어 전시관, 미디어 체험실, 디자인실, 디지털 큐레이션 등의 공간이 갖춰져 있다. 우선, 커뮤니티 라운지에는 대형 LED 화면과 함께 등받이가 없는 큐브 형태의 의자들이 갖추어져 있다. 학교 연계 수업을 진행할 때, 한 학급 학생 30여 명이 함께 대형 LED 화면을 보면서 수업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넓다. 또 의자의 위치를 쉽게 조정할 수 있어 가변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커뮤니티 라운지는 폴딩도어(접이식 문)를 통해 코딩실과 바로 연결된다. 코딩실은 유리로 된 폴딩도어를 통해 커뮤니티 라운지와 메이커스페이스 양쪽 공간과 연결된 개방적이고 유연한 공간이다. 폴딩도어를 열어놓고 사람들이 모임 경우에는 최대 100여 명이 함께 활동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다.

코딩실과 연결된 메이커스페이스는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드로잉 패드, 노트북 등 메이커 활동을 할 수 있는 각종 장비와 도구들을 갖춘 공간이다. 모든 책상은 높낮이 조정이 가능해 각종 활동을 하기에 적합하고, 한쪽 벽에는 3D 프린터에 활용되는 알록달록한 필라멘트들이 자리

하였다. 이용자들은 이곳에서 코딩을 배우고, 디지털 드로잉을 하고, 3D 프린터를 통해 자신만의 작품을 출력한다. 메이커스페이스 바로 옆 복도에는 디지털 큐레이션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3D 홀로그램 작품 2점을 만날 수 있었다. 아직 비어 있는 공간에는 이용자들이 3D 프린터로 출력한 작품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양 팀장은 “커뮤니티 라운지, 코딩실, 메이커스페이스는 모두 연결돼 이론 수업과 체험, 아이디어 회의까지 한 공간에서 할 수 있다. 이처럼 가변적이고 연결된 공간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서 “학생들은 커뮤니티 라운지에서 수업을 듣고, 필요하면 바로 옆에 있는 코딩실과 메이커스페이스로 이동해 소규모로 모여 배운 내용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 외에도 미디어 전시관은 벽에 빔 프로젝트를 쏘아 미디어아트를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미디어아트 전시를 하지 않을 때는 일반 강의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칠판 등을 갖춘 가변적 공간이다. 미디어 체험실에는 스마트 TV를 갖추어 은평구립도서관이 구독한 OTT 서비스들을 시청하고, VR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꾸몄다. 향후 플레이스테이션 등을 추가로 구비해 게임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가족이나 친구 등이 소규모로 이용하기에 적합하다.

디자인실에서는 각종 드로잉 수업과 코딩 수업이 이뤄진다. 이곳에서 이용자들은 드로잉 패드를 이용해 디지털 드로잉을 배우는 것은 물론, 로봇이나 자동차 등을 활용해 소리·접촉 센서 등에 대해 배우고, 자신이 진행한 코딩을 실제로 구현해볼 수 있다. 어린이들의 경우 코딩 교육만으로는 흥미를 느끼지 못할 수 있어서 실제로 짠 코딩을 USB에 담아 모형 자동차, 레고 작품 등에 탑재해 구현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이용자들도 ‘스마트리움’에 큰 관심

지하에서 올라와 1층 어린이실에 들어서면 다양한 미디어아트, VR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상상동지’를 만날 수 있다. 이곳은 스마트리움의 연장선에 있는 공간이다. 빔 프로젝트로 쏜 대형 화면에 나타난 물고기, 상어를 손으로 잡을 수 있으며 본인이 그린 물고기를 스캔하여 프로그램에 넣으면 바로 대형화면에 자신만의 물고기를 띄울 수도 있다.

또한 VR을 활용해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한 어린이가 도서관에 비치된 VR

기기를 활용해 캐릭터가 되면, 다른 어린이들은 선택의 순간마다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아 태블릿 PC로 캐릭터의 활동을 선택하며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VR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 환경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의 경우, 바닷가에 새가 죽어 있어 해부해보니 플라스틱 조각을 발견한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한편 지하 1층에는 종합자료실과 연결된 또 다른 스마트리움 공간이 있다. 종합자료실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걸쳐 조성돼 있는데 사서들은 지하 종합자료실 바로 옆 공간을 살려 종합자료실에서 바로 스마트리움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조성하였다. 이용자들은 이곳에서 회의를 하거나 아이디어를 구상하다가 자료가 필요하면 바로 옆 종합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공간의 한쪽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책들을 큐레이션해 이용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또한 한쪽 벽은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까지 연결돼 있어서, 이를 활용해 세로로 긴 형태의 미디어아트를 전시할 수 있다. 현재는 스마트리움 개관과 함께 이이남 작가의 '시가 된 폭포'가 전시되어 있다.

향후 은평구립도서관은 미디어아트 창작에도 나설 계획이다. 양 팀장은 "도서관이 직접 '검색의 미래'를 주제로 미디어아트를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다"면서 "이미지를 활용해 검색하면서 이용자들이 각자 원하는 책들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구상 중"이라고 말하였다.

아울러 스마트리움에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었다. 단순히 이론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구와 장비들을 활용해 놀이하듯 체험하면서 새로운 기술들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율주행, 드론, 증강현실(AR), 지능형 로봇, 3D 프린팅, 코딩, 디지털 드로잉 등을 주제로 한 강의들이 일주일 평균 10여 개씩 열린다. 강의들은 전문 강사를 섭외해 진행되며 담당 사서들이 강의에 함께 참여해 필요한 지원을 해준다. 사서들에 따르면 스마트리움이 문을 연 이후 이용자들은 적극적으로 원하는 강의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소프트웨어를 추가 구비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이다.

사서들은 스마트리움 개관 이후 은평구립도서관 이용자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4차 산업혁명 관련 프로그램들이 개설되면서 스마트리움 개관 이전보다 은평구립도서관 전체 프로그램 수가 서너 배 이상 증가하였다.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더라도 호기심에 스마트리움을 찾았다가 본인이 이용할 수 있거나 이용하고 싶은 기기를 발견하고 사서들에게 질문하는 이용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이용자들의 스마트리움에 대한 수요가 높은 데서 사서들은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또한 어린이실의 경우 이용자 증가가 눈에 보일 정도인데, 이는 스마트리움과 어린이실 등 자료실 사이에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체험하거나 즐기기 위해 도서관을 방문한 다음, 책이나 자료에 관심을 가지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사서들은 스마트리움에 마련된 장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강의는 전문 강사가 담당하지만, 사서도 이용자들이 각종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전문성은 갖추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장비의 종류가 다양하여 장비별 전문 인력을 모두 채용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컨대 드론 전문 인력을 채용해도 3D 프린터 등 다른 장비들을 해당 전문 인력이 유지, 보수하기란 쉽지 않다. 또 이용자들은 사서에게 스마트리움이나 기기에 대해 질문하기 때문에 적절한 응대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서들의 역할이 문헌자료를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장 사서들은 문헌자료를 넘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기나 기술에 대해서까지 기본 지식을 갖추는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셈이다.

최나영 팀장은 “종합자료실을 운영하다 보면 이용자들이 ‘스마트리움에 내가 아는 기기가 있는데 이용할 수 있느냐’면서 스마트리움이나 기기 관련 질문을 많이 한다. 공간과 장비를 갖추었으니 이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면서 “이용자들의 질문에 적절하게 응대할 수 있을 정도로 파악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 영상 스튜디오에서 디지털북 체험공간까지

은평구립도서관이 최근 개관한 또 다른 공간 중 하나는 영상 편집과 팟캐스트 녹음에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 창작공간 크리에이션 랩(Creation Lab)’이다.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어 유튜브나 SNS에 업로드할 수 있는 1인 미디어 시대에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이 방문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공간은 스튜디오와 조정실로 구분되는데 스튜디오에는 카메라 3대와 조명이 갖추어져 있고, 크로마키와 프롬프터도 설치돼 있다. 조정실에서 화면을 통하여 스튜디오 상황을 파악하면서 녹화를 진행할 수 있으며 스튜디오 내에서 혼자 녹화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은평구립도서관 자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때도 활용하는 이 스튜디오는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양 팀장은 “온라인 강연이나 면접을 준비하는 이용자처럼 영상을 녹화하고 싶어 하는 사람

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조성한 공간”이라면서 “도서관의 비대면 수업이나 설명회 등도 이곳에서 녹화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어 “장비를 이용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사서들이 돕고 있으며,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서들은 코로나19 이후 전자책과 오디오북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자 2층에 ‘디지털 북 체험공간’을 마련하였다. 이곳에는 태블릿 PC 5대가 있는데,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즐길 수 있는 앱을 탑재하였다.

## 장애인을 위한 ‘시끄러운 도서관’

이 외에 은평구립도서관에서 눈길을 끈 공간은 ‘시끄러운 도서관’이다. 조용해야 하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도서관에 ‘시끄러워도 되는’ 공간을 조성하였다. 발달장애인 등 ‘느린 학습자’를 위한 공간으로, 소음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책을 읽으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이 공간이 있기 이전에는 장애인 자료실이 있었는데 장애인이 요청할 때만 문을 열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폐가제로 운영하다가, 서울시 지원을 받으면서 개방적인 지금의 공간으로 재탄생하였다.

지하에 자리 잡은 시끄러운 도서관의 입구는 유리문으로 되어 있는데 발달장애인 작가의 그림을 유리문에 붙여놓았다. 내부는 나무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안하게 신발을 벗고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는 계단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독서 보조기와 서가 등은 벽면을 따라 배치하였다. 사서들에 따르면 발달장애인들은 돌발 행동을 하거나 갑자기 뛰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어서 서가들을 비장애인을 위한 자료실처럼 일렬이 아닌 벽면을 따라 배치했다고 한다.

사서들은 나무 색의 인테리어도 발달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해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처음 인테리어 업체들은 이곳을 유치원처럼 알록달록한 공간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자신들을 어린이처럼 낮춰 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안 이후 그와 같은 인테리어는 모두 배제하고 여느 비장애인을 위한 자료실처럼 꾸몄다.

내부에는 점자 자료, 촉각 도서, 음성 도서, 수어 영상 도서 2,000여 점이 비치되어 있다.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쉬운 문장으로 쓰인 책들도 구비되어 있다. 이와 함께 독서 확대기, 점자 출력력이 가능한 점자 라벨러, 높낮이 조절 책상 등 다양한 독서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시끄러운 도서관이 문을 열기 이전에도 은평구립도서관은 ‘찾아가는 서비스’ 형태로 여러 장애인 기관과 교류해왔다. 장애인 시설에 책을 대출해주고 교체해주는 서비스를 하거나, 장애인 대상으로 무료 도서 택배 배달 서비스를 진행해왔다. 또 사서들은 비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인식 개선에도 초점을 맞춰왔다. ‘장애인의 날’에 관련 포스터를 게시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을 지속해왔다. 회의나 토론회 등이 열릴 때면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커피나 쿠키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런 활동을 해온 은평구립도서관이 장애인을 위한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자 장애인 대상 교육 기관인 고양시 명현학교 교사와 학생 8명이 이곳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최 팀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 누리지 못하는 이틀인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비장애인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나 공간은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나 공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풍족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방향성은 은평구립도서관뿐 아니라 대부분 공공도서관이 지향하는 방향”이라고 말하였다. 양 팀장은 “이 같은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중 하나”라고 강조하였다. 다만 코로나19 영향 속에서 문을 연 까닭에 참여도가 높은 편은 아니라며, 이 공간이 지금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은평구립도서관 이용자들도 장애인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북아트 학습동아리 ‘책거름’은 ‘헌책, 예술이 되다’라는 북아트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용자들의 모임으로 기존 출간된 그림책을 기반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촉각 도서를 제작하였다.

책거름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홍승희 북아트 강사는 “시각장애인들이 색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알고 싶어 각종 논문을 찾아보면서 『과랑이와 노랑이』라는 그림책을 선정해 촉각 도서를 만들었다”면서 “글자도 함께 넣고 싶어 점자 공부를 했고, 교정을 위해 시각장애인의 지도를 거치는 과정에서 잘 몰랐던 시각장애인들의 생활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7개월에 걸쳐 촉각 도서를 완성해 뿌듯하였다”고 말하였다. 이어 “느린 학습자’라는 표현이 매우 좋다”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느린 사람들을 위해 시끄러운 도서관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생애주기별 서비스에 주력... 이용자들도 어르신 돕기 함께

은평구립도서관은 또 다른 소외계층인 다문화가정 이용자들을 위한 다문화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영어를 포함해 11개 언어(한국어 제외)로 된 1만 1,000여 권의 책을 갖추고 있는데, 어린이실 내부에 병합해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어린이실의 정확한 명칭은 ‘어린이/다문화자료실’이다. 사서들에 따르면 다문화자료실을 별도로 구획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다문화가정 이용자들이 별도 자료실을 이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어린이실을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문화 관련 책을 찾아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생애주기에 맞추어 세분화한 서비스도 은평구립도서관의 강점이다. 사서들은 임신부, 취업 준비생, 어르신 등 대상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운영한다. 어린이실에는 임신부를 위한 도서와 육아 도서 500여 권을 갖추고 있으며, 도서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임신부들을 위한 무료 도서 택배 서비스도 운영한다.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는 매달 ‘이달의 직업’이라는 직업을 소개하는 전시를 진행하고 진로 관련 도서들을 큐레이션하기도 한다.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큰글씨책을 비치하고 있는데, 저시력자들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 ‘치매안심도서관’으로서 치매 관련 도서들을 별도로 비치하고 있으며 은평구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치매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동아리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독서 동아리 ‘북세프’에서는 그림책 독후 활동과 함께 인근 센터의 치매 어르신들을 찾아가 그림책을 읽어주는 ‘북세프와 함께하는 책세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청소년 동아리는 일반적으로 오래 지속되기 힘든데 ‘북세프’의 경우 6년 가까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이런 인연으로 해당 센터에 ‘기억력 정보 도서관’이라는 코너를 만들어 책을 대출해주고 있고, 책들은 분기별로 교체한다.

최 팀장은 “청소년들이 그림책을 읽고 치매 어르신들에게 어떤 책을 읽어줄지 직접 정하고 프로그램도 주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한다”면서 “어르신들은 학생들이 ‘손자 같다’고 좋아하시면서 활력을 얻고, 학생들은 어르신들에게 삶의 지혜를 배운다”고 말하였다.

은평구립도서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서비스를 운영할 때도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강조했는데 이때 구축한 전자책 큐레이션이 ‘인생서가’와 ‘스쿨박스’다. 인생서가와 스쿨박스 앱은 각각 이용자들의 생애주기에 따라 원하는 책을 큐레이션해 제공하며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적합한 책들을 추천하기도 한다. ‘디지털북 체험공간’에 비치된 태블릿 PC를 통해 이용자 누구나 편리하게 인생서가와 스쿨북스 앱을 이용할 수 있다.

탐방과 함께 진행한 인터뷰에서 은평구립도서관 사서들은 공통적으로 도서관이 사회 변화 및 기술 변화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그리고 이용자들의 요구가 갈수록 구체화 되고 맞춤형이 되면서 서비스도 이에 맞춰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은평구립도서관이 스마트리움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체험공간을 갖추고 이용자들을 세분화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사서들의 이와 같은 생각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은주 팀장은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더 세분화되고 개인 맞춤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디지털북 체험공간 등 새로운 기술에 발맞추는 것과 더불어 이용자들의 요구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팀장은 “사회가 변하는 만큼 도서관도 변화해야 한다”면서 “그 변화가 스마트리움 등으로 완성되면서 이용자가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다.

지금까지 은평구립도서관 사서들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은평구립도서관은 스마트리움, 미디어 창작공간 크리에이션 랩, 디지털북 체험공간 등 4차 산업혁명을 체험하고 영상 콘텐츠를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을 선보이는 등 역동적으로 변화하며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소외계층을 위한 시끄러운 도서관 등의 공간과 서비스, 프로그램은 물론 생애주기별 서비스에도 주력하는 모습이다.

# 목포제일여고 도서관

## 수업 없이 ‘독·하·우’



[그림 5] 목포제일여고 도서관에서 PPT 자료를 만드는 학생들

[그림 6] '유자학교' 프로그램 주제 관련 도서를 소개하는 공간

[그림 7] '유자학교' 특별수업(2022. 7. 5.)

[그림 8] 도서관 곳곳에 전시된 학생들의 캘리그래피 작품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은평구립도서관과 함께 '2021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목포제일여자고등학교 도서관이다. 이 도서관은 교실 3칸 정도의 비교적 넓은 공간을 갖고 있다. 맨 앞에는 신간 도서를 비치해 학생들의 눈길을 끌도록 했고, 도서관 곳곳에 도서부 학생들이 책을 소개하는 그림과 함께 직접 책 소개를 적어 전시하고 있었다. 곳곳에 놓인 캘리그래피 작품들은 학생들이 '문장 쓰기' 활동을 하면서 창작한 작품들이다. 창가 자리가 넓어 학생들은 창밖 자연을 바라보면서 책을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도서관 바로 옆 복도 공간도 열린 공간으로 체험 활동 등에 활용하고 있다.

취재차 찾은 날(7월 5일), 학생들은 저마다의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한 학생은 사서교사

가 마련해준 독후활동지에 열심히 자신의 생각을 적었고 또 다른 학생은 도서관 PC로 자신이 읽은 책 『걸리버 여행기』 관련 정보를 검색하면서 이를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PPT 자료를 만들고 있었다. 몇몇 학생들은 함께 읽은 『프랑켄슈타인』을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하고자 도서관 화이트보드 앞에서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나누느라 열심히었다.

‘수업 시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쯤, 양향숙 사서교사가 말했다.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이후 이틀 동안에는 학교 전체적으로 수업이 없어요. 지금이 그 기간입니다. 대신 학생들은 독후 활동을 하는 ‘독·하·우(독서로 하나 되는 우리)’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학생들은 독후활동지를 작성하거나 책에 대한 글을 쓰고, 다른 학생들에게 자신이 읽은 책을 소개하는 책 소개 활동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이 모든 활동을 직접 이끌어갑니다.”

## 학생들, 각자의 활동을 주체적으로 펼치다

도서관 관련 활동은 도서관 외 각자 교실에서도 계속되었다. 책을 대출하거나 반납하려는 학생들은 자유롭게 도서관의 문을 열고 드나들었다. 한 학생은 ‘신간 도서’ 목록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무슨 책을 읽을지 찾아보는 데 열중하였다. 이렇게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동안, 한편에서는 학교와 도서관 측에서 마련한 다양한 책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해 체험하거나 강연을 들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올해의 학교도서관 주제인 ‘안전’과 관련된 ‘유자학교(유해물질에서 자유로운 건강한 학교)’ 프로그램 중 하나가 열렸다. 유자학교는 일과건강·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 등의 시민단체에서 여러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환경 프로그램이다. 이날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의 이선임 운영위원이 방문하여 “당신이 알아야 할 일상용품에 숨겨진 비밀: 일상용품의 유해화학물질 문제와 대안”을 주제로 150여 명의 학생에게 ‘유자학교 특별수업’을 진행하였다. 양 사서교사와 이진희 국어교사는 학생들과 특별수업 내내 함께하였다.

이 위원은 “10년 이상 활동하면서 유해물질과 관련된, 또 여성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알게 되었다. 또 바이오사이드(살생물질)와 관련된 새로운 사건도 많이 생겨났다”면서 “오늘은 유해물질과 관련된 정보를 함께 나누는 자리”라고 말하였다. 이날 학생들은 이 위원의 퀴즈 문제에 열심히 답을 맞히려 노력하는 모습이였다.

또 쿠션, 담요, 실내화 등 학생들이 평소 사용하는 일상용품에 실제로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이 신는 실내화는 다행히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두고 이 위원은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요즘 많이 신는 ‘크록스’ 브랜드의 샌들도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다만 샌들에 달린 아기자기한 캐릭터들은 중금속 함량이 상당히 높게 나와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날 특별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저마다 참여 소감문을 작성해 제출하였다. 학생들이 제출한 소감문은 향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앞서 오전에도 다양한 체험 활동과 강연이 진행되었다. 오전 10시부터 학교도서관 옆 열린 공간에서는 유자학교 프로그램 중 하나로 ‘유해물질 없는 비누 만들기’가 진행되어 20여 명의 학생이 비누 만들기 키트를 활용해 직접 비누를 만들었다. 양 사서교사와 도서관 자원봉사자는 학생들을 지도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오전 9시와 11시에는 시청각실에서 지역 기관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섬 인문스쿨 프로그램 연계 독·하·우 주제 강연’이 진행되었다. 홍선기 목포대학교 도시문화연구원 교수의 ‘생물의 다양성과 지구 미래’, 목포대학교 해양수산자원전공 이학박사인 서충현 연안관리기술연구소 종묘육성센터장의 ‘해양 환경과 갯벌,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와 우리들의 삶’이 그것이다.

이처럼 목포제일여고는 독·하·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주체적이고 자유롭게 책과 독서, 독후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는 올해의 주제를 기반으로 다양한 책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독·하·우의 중심 역할을 맡았다. 양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은 해마다 운영 주제를 기반으로 주제 도서를 선정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면서 “학생과 교사가 주제 도서를 함께 읽도록 하고, 하나의 주제 아래 연관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한다”고 말하였다.

학생들은 독·하·우 활동에 만족한 모습이었다. 이규희 3학년 학생은 “1~2학년 때는 이 기간에 책을 읽기만 했는데 이제는 독·하·우를 통해 독후 활동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면서 “읽은 책의 홍보물을 만드는 등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한다”고 말하였다. 이어 “친구들과 함께 어제 『프랑켄슈타인』을 읽고 학교에서 초빙한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고, 오늘은 관련 글을 쓰면서 서로 질문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권예지 3학년 학생은 “비슷한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들끼리 하나의 모둠을 짜서 같은 책을 읽

고, 다른 친구들에게 해당 책을 소개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학생들은 저마다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 올해의 주제 ‘사람답게 산다는 것: 안전’

목포제일여고 도서관은 책과 독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하는 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도서관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대주제 아래 해마다 올해의 주제를 정하고, 관련 주제 도서와 프로그램들에 집중한다. 도서관은 2021년에는 ‘민주시민’, 2020년에는 ‘인간성’ 2019년에는 ‘인권’을 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올해는 ‘안전’이라는 주제를 기반으로 『햇빛도 때로는 독이다』를 주제 도서로 선정하였다. 도서관은 한 학급 학생들이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주제 도서를 50~60권씩 구입해 책 바구니에 넣어서 해당 학급으로 대출해준다. 그러면 각 학급에서는 진로 시간에 함께 읽고 독후활동지를 작성한다.

또 도서관은 학급마다 관련 내용의 주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지원하였다. 각 학급은 화학물질, 플라스틱, 화장품, 문구류 등을 주제로 관련 수업을 진행하고 체험 활동도 하였다. 더불어 ‘유자학교 특별수업’은 물론, 『햇빛도 때로는 독이다』의 저자 박은정 경희대학교 의대 교수를 초청해 ‘유자학교 주제강연’을 제공하였다. 학생들은 시민단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키트를 활용해 책에서 읽은 내용을 일상에서 활용하고 실천하는 각종 체험 활동에 참여하였다.

관련 활동 중 하나로 학교 화단에 모종을 심고 물을 뿌려 직접 가꾸는 ‘식물존 운영’도 활발하다. 학급 단위, 동아리 단위로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데, 신청 학생들은 학교 운동장 가장자리 화단에 코스모스 같은 꽃과 허브 식물들을 심었다. 화단을 잘 가꾸기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기도 했는데, 학생들은 꽃 가꾸는 법에 대한 강연을 듣고 실습하고 교사들도 함께 꽃 가꾸는 법을 배워 정기적으로 물을 주고 수시로 들여다봤다. 몇 달 새 꽃들은 아름답게 피어나 꽃 가꾸기의 즐거움을 알려주었다. 학생, 교사들은 식물을 직접 가꾸면서 생명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다.

도서관은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해 동안 진행할 프로그램들을 선정한다. 올해에는 ‘안전한 학교란 어떤 학교일까요?’라는 주관식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에 따르면 학생들은 물리적 안전은 물론, 정신적 안전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이 튼튼하고 안전교육을 잘해야 한다’, ‘다치지 않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편안하고 따뜻한 곳이라 생각할 수 있는 학교’,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편하고 안정적인 학교’, ‘인권이 보장된 학교’, ‘선생님과 학생이기 이전에 서로 같은 사람임을 알고 존중해주는 학교’, ‘자율적이지만 신뢰가 밑거름이 돼 믿음이 가는 학교’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도서관은 또 다른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유해물질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올해 말, 관련 조사를 또다시 진행해 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파악할 계획이다. 양 사서교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위해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들을 계획했다”면서 “올해 활동은 독서, 사전 설문조사, 주제 수업, 특별 수업, 주제 강연, 연계 활동 등에 이어 사후 설문조사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도서관은 입체적이고도 다양한 활동을 해마다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주제인 ‘민주시민’의 경우, 민주시민의 자질을 ‘공감과 연대’에 두고서 ‘민주시민이 무엇에 공감하고 연대할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환경’을 세부 주제로 선정하였다. 이어 『우리는 일회용이 아니니까』를 주제 도서로 선정하고 ‘플라스틱을 줄이자’, ‘쓰레기를 재활용하자’, ‘분리수거를 하자’, ‘버려진 것을 줍자’ 등의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또한 휴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천으로 손수건 만드는 활동을 하고 교내에서 직접 수세미를 길러 열매를 수확해 천연 수세미를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이를 확장해 ‘착한독서 기부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직접 수놓은 손수건과 천연 수세미, 대나무 칫솔, 샴푸 바, 설거지 바, 비누망 등에다 지난해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며 받은 상금의 일부인 100만 원까지 더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목포보건소에 선물하였다.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의미를 담은 이들의 선물은 지역사회에서 호평을 받았다. 학생들은 책을 읽고 독후 활동을 진행하며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해하였다. 또 전문 강사를 초빙해 버려진 그림책을 가지고 업사이클링 팝업북으로 만드는 활동도 진행하고, 쓰레기를 주우면서 걷는 ‘줍깅’ 활동도 벌였다.

양 사서교사는 “동아리를 중심으로 학생들을 모집해 점심시간에 인근 아파트 산책로를 다니면서 줍깅을 했다”면서 “또 3학년 학생들이 분리수거를 책임진다고 분리수거 방법을 쉽게 알려주는 게시물을 복도에 붙여 알리고, 분리수거장에서 잘못 분리된 것들을 다시 각 학급으로 돌려보내는 활동을 했다”고 말하였다.



## 학교 폭력 없는 학교… 독서 활동, 대학 입시에도 긍정적

이 외에도 목포제일여고 도서관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선, 고전 읽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전독서회’를 운영한다. 올해에는 ‘영국 문학 읽기’를 주제로 『걸리버 여행기』, 『프랑켄슈타인』, 『멋진 신세계』, 『동물농장』 등 4권을 읽었다. 앞서 『프랑켄슈타인』을 읽고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활동을 준비한다는 학생은 바로 이 고전독서회를 통해 해당 책을 접하였다.

도서관에서 활동하는 도서부 학생은 총 12명으로, 책 정리 등 일상적 도서 봉사는 물론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며 관련 글도 작성하고 있다. 다른 친구들에게 읽은 책을 소개하며, 도서관 행사가 있을 때는 직접 참여해 기획하고 구현한다. 방학이면 목포 시내 독립서점들을 탐방하며 책을 구입하고 토론하기도 한다.

양 사서교사는 “김해에서 ‘청소년인문학읽기전국대회’가 열리는데 우리 도서부 학생들이 8월에 참가했다”고 알리면서 그 밖에도 “학생들이 책을 추천하는 PPT를 만들면 1층 대형화면에 띄워 교내 모든 학생이 볼 수 있도록 한다”고 말하였다.

나지영 2학년 학생은 “도서부에서 봉사활동을 하러 오기도 하고 순전히 책을 읽으러 방문하기도 한다”면서 “나중에 사서가 되는 것이 꿈이기 때문에 최근 읽은 도서관 관련 책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하였다. 이어 “올해에는 『걸리버 여행기』 관련 강연을 들은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면서 “영국 문학을 잘 이해하려면 영국 정세를 알아야 한다는 것, 작가에 대해 이해하면 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였다.

책과 독서, 다양한 독후 활동은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과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예의가 바르고 인성이 좋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교내 학교폭력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나아가 이처럼 다양한 학생 활동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학 입시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해마다 생활기록부를 작성할 때가 되면 사서교사는 학생들의 여러 독후활동지를 읽으면서 학생마다 주의 깊게 살펴본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기록하느라 분주해진다.

양 사서교사는 “교과 수업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까’처럼 가치관 관련 내용을 교육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고전 작품들은 대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귀결되는데 학생들이 고전을 읽고 생각할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

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어 “학생들의 활동들은 생활기록부에 쓸 수 있도록 모두 기록하고 있다”면서 “안전한 학교”를 주제로 책을 읽고 느낀 점, 토론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 강연회와 같은 행사 참여 소감 등은 다 글로 기록하게 한다”고 말하였다. 이어 “글을 보면 학생들이 무엇에 주목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변화했는지, 무엇을 다짐하는지를 볼 수 있고 부족한 점도 파악할 수 있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도움이 되는 길잡이”라면서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학교도서관과 주체적 독후 활동의 중요성은 목포제일여고 교장은 물론, 다른 교사들도 인식하고 있다. 김종명 교장은 “학생들이 독서 활동을 통해 다양한 시각, 남다른 관점, 더 넓고 깊게 지식과 지혜를 흡수하는 힘을 기르고 있다”면서 “단순히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글로 읽어 말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머릿속에서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까지 포함된 메타인지 과정을 겪게 된다. 이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큰 힘이 된다”고 말하였다. 이어 “독서의 중요성만 강조하면서 좋은 책을 추천하는 것만으로 독서교육을 다 했다고 해선 안 된다”면서 “읽을 책을 안내하고 공급해주는 것은 물론 읽을 장소를 제공하고 바쁜 생활을 보내는 학생들에게 읽을 시간까지 확보해줘야 한다. 학교도서관이 학생들의 가장 좋은 놀이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진희 국어교사는 “강압적이고 지시하는 분위기에서는 학생들의 좋은 인성과 자질이 발휘되기 어렵다”면서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독·하·우 등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프로젝트들을 경험하는 것이 학생들의 건강한 자질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다. 이어 “인문계고등학교이다 보니 대학 입시가 중요한데, 독서를 통해 자신의 진로와 연관해 자기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다”면서 “학생들 스스로 주도하는 독서 활동은 학생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하였다.

## 지역 내 유관기관과 다양한 교류

목포제일여고 도서관은 학교 내 교사들과 함께하는 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교사독서회 ‘봄봄봄’을 조직해 주제 도서를 함께 읽고 목포 시내 독립서점 등을 방문해 토론한다. 교사들은 이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 활동과 학교도서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올해에는 『햇빛도 때로는 독이다』와 『식물의 위로』를 주제 도서로 선정해 함께 읽고 있다.

양 사서교사는 “교사들과 목포 독립서점을 방문해 『식물의 위로』의 내용을 토대로 ‘나의 반려

식물'에 대해 얘기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면서 "교사들이 학교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 활동을 격려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어 "교사들이 새로운 공간을 방문하고 견문을 넓혀 학생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데도 초점을 맞추었다"고 덧붙였다.

이 국어교사는 "처음엔 제대로 참여할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열린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너무 재미있었다"면서 "단지 책 얘기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경험을 듣게 되어 흥미로웠다"고 말하였다. 이어 "교사들이 다양한 배경지식을 학생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꾸준히 책을 읽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양 사서교사는 전남교육청 학교도서관 관련 협의회에서 활동하며 전남도립도서관의 운영위원도 맡고 있다. 목포공공도서관의 학교도서관 관계자 연수에 참석하고, 때로는 강연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지역 내 관련된 여러 정책을 파악하며 큰 틀에서 일관성 있게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역 내 여러 기관과 협력해 지역 인사들을 강연자로 초빙하여 학생들에게 지역 내 현안들을 알려주는 기회도 제공한다.

전남 지역의 다른 사서교사들과도 다양하게 교류한다. 이들과 함께 고전독서모임을 진행하며, 멘토-멘티를 이루어 신규 사서교사들을 지원한다. 최근 신규 사서교사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이 처음에 겪을 시행착오들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사회·기술 변화에 적극 대응... 학생들의 전인격적 성장에 도움

지금까지 은평구립도서관과 목포제일여고 도서관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탐방을 기반으로 현재 한국 사회에서 도서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았다. 우선, 공공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체험하고 습득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 변화와 기술 변화에 발맞추어 신속하게 4차 산업혁명 관련 공간을 갖추었고, 각종 장비와 기기들을 구입해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였다. 나아가 지역 내 각 학교와 연계해 수업 운영을 계획하는 등 지역에서 공공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익히는 것은 취업 준비생이나 경력 단절 여성이 새로운 산업 분야에 취업하는 데 중요하다. 나아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와 학생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는 데도

필요하다. 자치구도 공공도서관의 이와 같은 활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은평구는 학교 학생들이 해당 버스를 타고 도서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은평구립도서관에 미니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공공도서관의 역할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상당수 공공도서관에서도 진행하는 것들이다. 이를 볼 때, 이제 공공도서관은 책과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의 역할에 더해 사회의 변화와 기술의 변화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하면서 각종 필요한 공간과 서비스, 프로그램을 폭넓게 지원하는 지역사회 내 복합문화기관이자 평생학습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교내 독서 활동의 중심 기관 역할을 맡고 있다. 목포제일여고 도서관의 경우, 학교 전반적으로 독서를 중시하면서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독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예컨대 학교도서관이 올해의 주제를 정하고 그에 맞추어 주제 독서를 선정하면 각 학급은 진로 과목 시간에 이를 읽고 독후 활동을 했으며 시험이 끝난 후 이틀 동안 학교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체험 활동과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나아가 학교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올해의 주제에 따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급별, 동아리별로 모집을 하면 각 학급 단위, 동아리 단위로 신청해 활동하였다. 학교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각 활동을 기획하고 담임교사와 교과교사들이 참여하여 학생들과 각 활동들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서교사는 교내 교사들과 독서회를 열어 학교도서관에 대한 관심, 학생들의 각종 독후 활동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독서 활동은 학생들의 전인격적 성장에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물론 은평구립도서관과 목포제일여고 도서관을 통해 본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활동들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은평구립도서관의 '시끄러운 도서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문을 연 까닭인지 참여도가 다소 부족한 편이어서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어 보였다. 또 사서들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목포제일여고 도서관의 경우, 사서교사가 수업을 하는 활동은 활발하지 않았다. 상당수 학교에서는 사서교사가 수업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때론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팀티칭'으로 해당 교과 시간에 함께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각 도서관들은 각각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앞으로 이와 관련해 보다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별도로 각 도서관 사서·사서교사들은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 예산이 보다 증가하고 안정적으로 편성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인력 문제도

여전히 언급되었다.

## 도서관의 현재가 도서관의 미래를 만든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도서관의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서와 사서교사들이 만들어가는 도서관의 현재가 쌓여 도서관의 미래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다.

은평구립도서관과 목포제일여고 도서관은 각각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공공도서관이 사회 변화와 기술 변화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해 공간과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관이 되고자 노력하고, 학교도서관이 교내 독서 활동의 중심 기관으로 자리하고자 노력한다면 도서관의 미래는 필연적으로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처럼 도서관이 지역사회 혹은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역할을 수행할 때, 한국 사회는 비로소 도서관과 사서·사서교사의 중요성을 보다 더 잘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의 현재가 긍정적인 도서관의 미래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전국 모든 사서·사서교사가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시기를, 그래서 더 많은 시민과 학생이 양질의 공간과 서비스,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본다. ●



사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소통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미래의 사서

글 권선영 한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글에 앞서

몇 년 전 입학사정 업무를 맡게 되면서 깜짝 놀랐던 사실이 하나 있다. 문헌정보학과를 지원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진로 희망란'을 살펴보니 고등학교 3년 내내 '사서'로 기재된 학생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입시전형 중 하나인 학생부종합전형은 전공 적합성을 중요하게 보고, 이를 드러낼 수 있는 교내 활동 및 구체적인 진로 설정도 중요하다. 위 사례처럼 3년 동안 진로가 올곧으며 관련 활동도 적합하다면,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체계적인 진로 설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취업 포털 '커리어'가 2015년 직장인 1,045명을 대상으로 '학창 시절에 후회되는 것'이라는 주제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무려 42.59%가 진로를 일찍 설계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고 한다. 진로 설계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무려 34.55%가 '고등학교 재학 중부터'라고 답했다(한국대학신문, 2015). 반면,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의 진로는 고등학교 내내 '사서'였으니 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쯤 되면 이상할 법도 하다. 꿈에 딱 들어맞는 이 '사서'라는 직업은 대체 아이들, 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어떤 매력을 지닌 것일까? 꿈을 향한 고등학생들의 노력은 실로 다양하다. 도서부 활동을 하면서 프로그램 기획과 진행을 맡고, 지역사회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미디어나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기도 하고, 정보나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활동을 하기도 한다. 활동, 태도, 역량이 대학생 못지않은 학생들도 있다. 적어도 생활기록부만을 본다면 '이 정도면 전공에 관심이 있을 뿐 아니라 능력도 갖춘 전공에 적합한 우수한 인재임이 틀림없다!'란 생각을 갖게 하는 학생이 상당하다. 아쉬운 점이라면 사서 이외의 진로, 이를테면

‘미래’의 ‘정보 전문가’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다지 깊이 생각해보진 않은 듯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이다. 적어도 아이들이 접하는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나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모습에서는 정보 전문가 혹은 미래 사서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는 여지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아는 만큼 보이니 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 학생들이 생각했던 사서상(司書像), 그리고 입학해 본격적으로 문헌정보학을 배우며 형성되는 사서 이미지, 그리고 사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사서의 역할 등의 차이가 작지 않다는 점, 그로 인해 혼란스러워진다는 점이다.

## 학교생활을 통해 형성돼야만 하는 사서의 이미지

학기 초에 면담을 진행할 때면 갓 입학한 신입생들은 상당히 들떠 있다. 왜 문헌정보학과에 오게 됐느냐는 질문에 많은 학생이 “책을 좋아해서요”, “도서관이 너무 좋아요”라는 천진난만한 대답을 하는 시기이다. 도서관이 왜 좋은 걸까? 학생들이 생각하는 도서관과 사서의 이미지는 대체 어떤 것일까?

학생들은 입학해 처음 듣게 되는 ‘문헌정보학개론’ 수업을 시작으로 서서히 도서관과 사서의 이미지를 만들어간다. 2학년이 되면서 다시금 상담을 진행하면 나는 이런 질문을 한다. “어떤 사서가 되고 싶니?” 이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생각하는 사서의 이미지를 살펴볼 수 있다. 나는 ‘프로그램 기획자로서 이용자와 소통하는 사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유익하고, 재밌으며, 참신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이용자와 소통하는 사서야말로 미래의 도서관에 필요한 인재임을 연신 강조한다. 당연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다방면에 관심이 있어야 하고, 적어도 한 개 이상 분야의 ‘전문가’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사서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 즉 사람을 좋아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태도이다. 이해하고 ‘소통’하려면 먼저 다가가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분명 대학교는 미래를 위한 재목을 양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대학교에서는 성장 가능성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고 적절한 교육훈련을 시킨 후 현장에 내보내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한다. 전통적인 자료 조직과 목록 과목은 어려우면서도 성취감이 높은 수업이지만, 반면 정보



기술과 관련한 수업들은 ‘왜 배워야 하는지’ 의구심을 가지는 학생이 적지 않다. 고등학생 때까지 가졌던 도서관과 사서의 이미지가 지극히 전통적인 도서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기술을 습득해 프로그래밍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하긴 하나, 이러한 역량이 기본 바탕이 되어 도서관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만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임을 학생들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잠시 필자가 재직 중인 한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와 소개란을 살펴보자.

문헌정보학과는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고 전문화된 기록정보를 대상으로 수집, 평가, 조직, 축적하여 도서관(Library)/정보센터를 구축하고 그 자료를 검색하고 정보를 제공, 도서관/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반 이론과 방법,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특히 첨단인 컴퓨터 및 통신기술과 인터넷 환경에서 방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 가공처리, 추적, 탐색하는 정보처리 기술과 정보검색 시스템의 운영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본 학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능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관종별/주제별 전문사서를 양성하기 위해 전공선택의 기회를 다양화하고 부전공 및 다전공을 적극 권장……(후략)

최근 학과 소개란을 수정하고 교과과정도 새롭게 개편하고 나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학창 시절을 보낸 1990년대 교과와 비교해 무엇이 달라졌을까? 새롭게 신설된 과목도 있을 것이고, 폐지된 과목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과명이 새롭게 변경되기도 하고 최근 환경에 맞게 내용을 크게 바꾼 과목도 있다. ‘정보처리 기술’이나 ‘정보검색시스템’과 같은 과목이 30여 년 전과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30년 동안의 가장 큰 이슈는 ‘웹과 인터넷’, 그리고 그 이후 ‘4차 산업혁명’이다. 특히 웹과 인터넷은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분야가 없으니 도서관의 모습 또한 안팎으로 바뀌게 된 것은 당연하다.

학과명이 본격적으로 ‘도서관학과’에서 ‘문헌정보학과’로 바뀌던 그 시점은 인터넷의 성장기이자 그 어떤 시기보다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때임을 잘 알고 있다. 교과 또한 대대적 개편이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인해 다시금 변화하고 있다. 물론 이는 비단 최근의 문제는 아니다. 과거 1970년대, 1980년대도 마찬가지였다. 도서관 자동화, 전산화 환경의 변화와 함께 학과의 교육과정 또한 끝없이 변화해오지 않았던가? 콘텐츠의 본질은 변하

지 않는데, 담는 그릇은 끝없이 변한다. 과거의 '뉴'미디어는 출현한 그 시기에만 새로울 뿐, 금세 '올드'미디어가 되어간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최신 기술이 집약된 더 고도화된 정보화사회이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정보의 양, 비약적인 네트워크 속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각종 신기술의 향연이 매일 펼쳐지는 세상이다. 교과과정 또한 이런 환경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미 우리는 랑가나단의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라는 법칙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도서관 자동화, 전산화 시기를 비롯하여 현재, 디지털화된 도서관 모두 시기마다 다루었던 기술들이 도서관의 최신 기술이자 미래라고 여겼던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기술이나 매체 모두 금세 '올드'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문헌정보학과의 인재상은 변화하는 세상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 전문가'임이 계속 강조된다. 그러나 막상 입학하는 학생들은 과거 도서관과 사서의 이미지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미래 사서 양성기관인 대학교에서는 미래의 사서상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에 맞는 역량과 실무능력까지 키울 수 있는 교과목의 개발에 앞서 학생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전통적인 도서관과 사서의 이미지를 바꾸어나가고 정보 전문가로서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 책무를 지닌다.

최근의 이슈는 융복합 환경이다. '융복합'이라는 아이디어는 교육계가 아닌 기술계와 산업계에서 잉태되고 발전된 개념이다. 그러므로 산업계에서 사회적 요구가 생긴다고 대학교가 그 요구에 부응하는 식의 수동적 태도는 문제가 있다(박일우, 2016). 그럼에도 큰 의의를 지니는 것은 사실이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개별 학문에서는 얻기 어려운 새로운 지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나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성장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문헌정보학 또한 예외는 아니다. 이런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도서관도 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니 변화의 주역을 이끌 예비 사서들을 위한 교과과정을 새롭게 개발해야 하는 교수들 또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다만 정보기술은 앞으로 누구나 가지는 보편적 기술과 역량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미래사회의 사서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을 포함하여 사서의 본연적 기능과 가치가 강조되는 역량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해나가야 한다.

이를테면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정보기술'을 유용하게 활용(이용자 니즈에 대한 데이

터 분석 등)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겠지만, 독보적인 ‘독특함’, ‘참신함’이 교과과정만으로 나타낼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비교과 과정을 비롯하여 학생 스스로도 다양한 사회 활동을 통해 이용자와 소통하는 방법을 익히고, 취미나 특기도 가져야 할 뿐더러 끊임없는 자기 계발도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 건립되거나 리모델링된 ‘소통’ 중심의 도서관을 방문하고, 획기적이고 신선한 기획 사례들을 살펴보며 현장과의 적극적 교류를 통해 스스로 갖고 있던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이미지를 탈바꿈시켜야 한다. 도서관이 과거의 표상에 고착돼 있다면 도서관 현장에서 ‘새로움’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으려면 학교 현장에서도 시급하게 도서관과 사서의 이미지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멋진 ‘사서’가 되기 위한 계발은 이용자와의 소통을 위한 첫걸음임을 인식하는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스러워 해야 하며, 멋진 인생임을 강조하는 것 말이다. 이 또한 훈련되지 않는다면 잘 해낼 수가 없다. ‘나’, ‘우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서다’라는 확고한 이미지가 반드시 형성돼야만 한다.

아쉽게도 아직은 서서히 진행 중으로, 이는 필자의 바람일 뿐이다.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 덜 성숙했으며, 그로 인해 ‘우리’와 그리고 사회가 생각하는 도서관은 우리 삶에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미디어 속의 도서관과 사서의 이미지

최근 신세대를 Z세대라 칭한다. 이들은 X세대인 나와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나도 나를 1990년대에는 신세대로 주목받던 가장 핫한 세대였는데……’라고 반추하면서도 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인 만큼 당연히 다르겠지?’라는 결론을 내리곤 한다.

내 강의 중 ‘내 인생의 첫 도서관’이라는 짙막한 과제가 있다. 처음 방문했던 도서관에서 느꼈던 감정을 자유롭게 적어보는 과제이다. 학생들이 적은 내용을 찬찬히 읽다 보면 도서관의 모습이 그려진다. 유치원 시절 부모를 따라 도서관에 가서 처음 본 큰 어항, 키보다 큰 서재, 책으로 가득 찬 공간, 도서관 밖의 잔디밭에서 책을 읽었던 놀이터 같은 곳, 집보다 더 재미있는 놀거리가 많은 곳.

이런 이야기들은 학술 연구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도서관에 대해 가진 일상적 인식을 살펴보

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런데 유독 한 학생의 글이 눈에 띄었다.

어렸을 적엔 도서관이 놀이터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열람실 이용, 도서 대출 말고는 딱히 인생에서 필요 없는 곳으로 변화된 것 같았다.

사서를 희망하는 학생인데 ‘인생에서 필요 없는 곳’이란 표현을 썼다는 것이 불편하지만 ‘쏟아진 진실’ 앞에 잠시 멍해졌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곳’, ‘꿈을 꿀 수 없는 곳’에는 ‘미래’가 존재할 수 없다. 학생들의 첫 도서관 경험은 ‘즐거움’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즐거움’은 어딘가로 사라졌다. 이는 도서관을 마치 책방이자 공부방이며 독서실로 여기는 인식이 한몫하지 않을까?

도서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우리가 쉽게 접하는 미디어를 통해 엿볼 수 있다. 마침 지난 봄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영화, 드라마, TV, 소셜뿐만 아니라 게임, 애니메이션 등 미디어 속 도서관과 사서의 모습을 찾아보았다. 미디어 속 전형적인 도서관 장면은 대체로 책으로 가득한 서가가 비치는 배경, 주인공이 자료를 탐색하기 위한 장면(고전적으로 책을 쌓아놓고 찾거나 마이크로필름을 살펴보거나 PC로 검색하는 경우까지)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드물게 연애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미디어 속 도서관에는 ‘정보’를 찾기 위한 곳이란 공식이 존재한다. 그리고 전통적 미디어인 ‘책’이 필수였다는 점이 특색이다. 이런 공간에서 사서의 역할은 어떻게 비쳐질까?

전창호, 김선호(2008)는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사서가 등장인물로 나온 영화를 대상으로 사서의 이미지를 분석한 바 있다. 이들은 각종 대중매체가 사서를 제대로 묘사하지 못하면서 대중이 사서직의 전문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사서를 단순 업무만을 수행하는 직군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렇지만 과거 사서의 이미지, 이를테면 안경, 쪽머리, 정숙 요구 같은 기존의 스테레오 타입이 차츰 바뀌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서의 인상이나 태도 등이 보통 이상의 호감, 능동적, 친절함 태도로 묘사되는 점 등을 보면 긍정적인 이미지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배가(配架)<sup>1)</sup>와 같은 단순 업무를 묘사하려는 관습적이고 정형화된 연출이 계속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소설 속에서는 어떨까? 우윤희, 김종성(2014)은 국내 창작동화에 나타난 도서관과 사서의 이미지를 살펴보았다. 동화 속 주인공들은 주로 책을 읽기 위해 도서관을 방문하고, 지적 호기

1) 도서관에서 문서나 책 따위를 서가에 배열하는 방식을 뜻한다.

심이나 과제 해결을 위해 도서관을 방문하지만, 도서관 활용 수업이나, 정보 활용 교육을 위한 방문은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도서관 이용이 독서 활동에 치중돼 있고 책과 독서의 가치를 다룬 내용이 많지만, 독서를 개인적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사서의 모습도 전반적으로 상냥하고, 친절하고 착한 인상이지만, 교육자적 측면 등 사서라는 직업의 다양한 면모는 거의 볼 수 없었다는 점을 밝힌다. 즉, 동화 속에 반영된 도서관과 사서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현실 속에서 인식되고 이해되는 도서관과 사서의 수준과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다.

도서관과 사서의 이미지는 서로 궤를 같이한다. 그렇기에 각종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도서관 속 사서의 이미지가 서서히 바뀌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도서관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게임은 좀 다를까? 종종 게임의 배경으로 슬쩍 보이는 도서관들은 서가와 장서로 가득 찬 경우가 대부분이다(‘오버워치’나 ‘소울칼리버’ 등). 포스트아포칼립스 속 도서관은 폐허가 되어 있다(‘디비전 2’ 등). 요즘 말로 ‘땀(마음이 찢어지는 일)’이지만 어찌됐는가. 생존이 우선인 세계관에서 사서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

가상의 판타지 세계를 다루는 게임은 어떨까? 이들 게임의 세계관에서 도서관은 신비한 장소이자 지식의 보고이다. 사서는 이들 도서관과 장서(세계관 내의 모든 지식)를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출시된 게임 ‘디아블로 이모탈’의 졸톤 쿨레의 도서관도 그런 모습이다. 지식의 보관 이미지 때문에 정보를 얻기 위한 공간<sup>2)</sup>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미디어 속 도서관과 사서의 이미지는 각각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서나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가 반영된 것이라 봐야 한다. 사서들도 본인들의 이미지를 ‘정보서비스 제공자’, ‘정보 문제 해결의 조력가’(이은철 외, 2002)라고 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미래사회를 그린 영화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사실 미래사회를 그린 영화에서 도서관과 사서가 등장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래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이루고 싶어 하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만, 현실을 기반으로 확장된 세계이다. 그래서 미디어 속 도서관은 그 미디어가 출현한 배경을 그대로 투사한다. 사이먼 웰스 감독이 연출한 영화 ‘타임머신’(2002)에서 미래 사서의 모습을 짐작해볼 수 있다. 영화 속 뉴욕공공도서관의 외관은 현재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내부는 완전히 다르다. 익숙한 서구나 테이블은 보이지 않고, 대신 음성작동시스템(VOX)이 생성한 사서가 유리 패널 속에 등장한다. 영화에서 그는 과거의 사서들처럼 정보를 제

2) 주어진 퀘스트를 완수해야만 정보나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공하는데, 이 정보는 지구상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돼 있다. 게다가 주어진 데이터에만 의  
존하는 것이 아닌, 정말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인공지능이 구현돼 있다. 2022년 현재 그리  
한 인공지능은 존재하지 않지만, 영화 속 모습이 2030년이니 얼마 남지 않았다. 가능한 일일까?

도서관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 정보 전문성을 갖춘 사서의 면모가 나타나는 영화도 찾아볼  
수 있다. 영화 ‘스타워즈 에피소드 II: 클론의 습격’(2002)에 등장하는 조카스터 누(Jocasta Nu)  
는 제다이 기록보관소(Jedi Archives)<sup>3)</sup>에 근무하는 사서(Chief Librarian)이다. 한 장면에서 주  
인공이 정보를 찾지 못하자 사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 도서관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것  
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타워즈’를 소재로 한 코믹 북 『Darth Vader 9: The Dying Light,  
Part III』에서는 “제다이 기록보관소의 정보는 방대하기 때문에 내 도움이 없으면 찾을 수 없다”  
고 말하기도 한다. 영화 속 가상 인물임에도 사서로서의 ‘자부심’을 표현하는 점은 한편으로 존  
경할 만하다.



[그림 1] ‘오버워치’에 등장하는 도서관 © Blizzard

3) 기록보관소가 도서관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이는 아카이브와 도서관을 혼재해 사용하는 무지함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소울칼리버'에 등장하는 도서관 © Namco



[그림 3] '스타워즈 에피소드II: 클론의 습격'에 등장하는 제다이 기록보관소 © 이십세기폭스코리아

반면 불편한 진실도 존재한다. 고도로 정보화된 미래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속 도서관은 실상 물리적 형태의 정보가 축적돼 있는 동시에 기록 보존의 이미지도 보여준다. 이는 여전히 도서관이 '실시간 정보의 장'과는 거리가 있다는 과거와 현재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미래사회를 다룬 작품에서 굳이 과거의 이미지로 머물러 있는 도서관을 다룰 필요가 있겠는가. 어떤 미디어(대표적으로 '책')가 인류의 역사를 대표할 만한 '유물'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이상 디지털화된 '정보'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그런 세계에서 사서의 역할은 분명 지금과 같을 리 없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역할을 진정성 있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미디어 속 사서가 마치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고 있거나 그런 지식을 수호하는 자로 비친다는 점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진정 추구하는 사서의 모습일까? 이는 사실 지극히 관습화된 과거의 모습이며, 사서의 모습 중 일부가 투영되었을 뿐이다. 미디어 속 사서의 모습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 사서는 미래사회에도 전문직인가?

그동안 '사서는 전문직인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사서의 전문적 특성은 '지식', '전문적인 기술', '이론적 지식', '전문 지식', '전문 단체', '자격증', '법령', '사회적 인정' 등으로 종합해볼 수 있다. 그동안은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서는 전문직'이라는 사실에 의구심을 가질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20~30여 년간 가속화된 정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이제는 '사서는 전문직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정성 있게 고민해봐야 할 때이다.

이에 대한 고민은 이제환(2003)의 연구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도서관을 둘러싼 정보환경이 '혁명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사서직의 지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기술의 수용은 시대적 요구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는 정보기술의 활용 능력이 개인적 능력은 물론이고, 직업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그러나 정보기술 활용 능력은 21세기의 모든 직업이 요구하는 기본 능력이고, '배타적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보를 물체로 보는 기능주의적 관점의 영향으로 사람보다는 자료에, 서비스보다는 자료의 관리에 치중하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보기술 혁명에 휩쓸리면서 이런 경향이 노골화되는 문제를 언급한다. 그는 그렇기에 '사람'을 중시해야 하고, 이와 관련한 행



태 연구가 사서직의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더욱이 그는 사서가 개인의 이미지를 바르게 정립해야 하며, 서비스 직종에서 감성적 요소가 직업의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임을 감안할 때 사서에게는 '해박한 지식'보다는 '부드러운 웃음'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용자들은 사서라는 직업을 전문직으로 생각할까? 윤명희(2020)는 그의 연구에서 사서는 사서직의 전문성 중요도를 전문적 지식, 사회적 책임, 서비스적 태도 순으로 생각하는 반면, 이용자는 서비스적 태도, 사회적 책임, 전문적 지식 순으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판단해보면, 사서에게 필요한 사서직 전문성 요소란 지식과 정보에 기반을 두고 이용자의 관심과 호기심을 잘 구조화해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열정적이고, 즐겁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용자 요구와 지식의 흐름을 이해하는 전문적 지식임을 알 수 있다.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사서와 이용자의 인식 차이는 오혜연과 김기영(2015)의 연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서가 생각하는 전문직 인식(개인적 신념, 전문성, 직업윤리, 업무 몰입도)이 이용자들에 비해 높았음을 밝힌다. 특이한 점은 대면 경험이 공공도서관 사서의 전문직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사서가 개입하지 않는 부분을 공공도서관 사서 전문직 인식을 위한 도서관 이용 행위의 범위로 고려해야 하고, 사서는 전문 직종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측면을 발굴해야 하며, 브랜드 정체성과 이미지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과연 정보화시대에 사서의 역량은 어떤 것이고, 그 역량은 사서의 전문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 박희진, 김진묵, 차성종(2021)은 공공도서관 사서의 공통 역량 수준을 진단하는 자가 진단 도구를 개발한 바 있는데, 이 도구를 통해 사서들은 사서의 공통 역량을 '사서의 행동 및 태도', '사서의 기량', '사서의 지식' 순으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부분은 '사서의 기량'이다. 사서들 스스로 정보기술 활용, 특히 SNS·온라인 협력·웹 도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도서관 정보서비스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 능력, 전자 자원을 선별, 평가하는 능력, 이용 서비스를 관리하는 능력, 디지털매체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타 역량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사서들이 이러한 기술에 대한 역량(IT기술 전문성, 디지털 자원 전문성)을 보유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시대적 요구인 만큼 학계나 도서관 현장 등 모든 곳에서 정보기술 역량을 갖추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호주에서는 우수한 도서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 및 윤리의식을 갖추고, 중요성을 인정받는 다양한 도서관 정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도서관 전문가 인증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그들은 보고서에서 ‘도서관 정보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특히나 과거보다 도서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면서 문헌정보학 비전공자들의 진입으로 인해 어떤 지식과 기술 및 직원 구성이 필요한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보고서에서는 미래의 전문적 실천을 위한 기술로 ‘디지털 숙련도’, ‘디지털 큐레이션’, ‘데이터 사서 업무’, ‘개방형(Open) 학술 활동’, ‘디지털 인문학 사서 업무’, ‘정보 거버넌스’, ‘인공지능과 기계 학습’, ‘미디어 문해성’, ‘문화적 역량’ 등 9개의 기술을 제시한다. 이처럼 ‘미래에 준비된 인력’에 대한 고민은 미래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일부 기술을 제외한 일반적인 정보기술 활용 능력은 21세기의 모든 직업이 요구하는 기본 능력(이제환, 2002)이므로 이를 더 이상 사서만의 전문적인 능력이라고 주장하기에는 힘들다. 특히나 신기술이 적용되어 사서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미래 환경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기존의 반복 업무는 아마도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다. 전통적 사서의 전문 영역이라고 여겨지던 정보자료 조직 업무는 어떠한가? 이는 문헌정보학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하였지만, 신기술의 영향으로 자동화되면서 난이도가 낮아질 것이다. 결국 도서관의 많은 업무가 서서히 대체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기술은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에 도움이 되도록 기획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이다. 도서관의 기능 중 하나가 ‘디지털 프론티어’의 역할이다. 즉 사서들이 직접 기획한 참신하고 멋진 서비스를 통해 신기술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sup>4)</sup> 이에 박태연, 한희정, 오효정, 양동민(2018)은 사서에게 변화를 주도하고 분야를 앞서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의 역할을 강조한다. 송유성(2022)도 새로운 사서의 자격 요건으로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이용자의 잠재적 필요까지 파악하여 미리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데이터 사이언스’는 사서의 전문 분야나 직책에 상관없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에 이와 관련한 초보적 지식은 모든 사서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임을 강조한다. 특히나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는 데이터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기초 이상의 이해와 실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이

4) 이를테면 VR·AR 서비스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사서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술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기획 역량 및 소프트 스킬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 이용 대상자가 무엇에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와 더불어 최근 '사서의 발표 능력, 프로젝트 관리 능력, 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과 같은 소프트 스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교육과정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어야 하며, 전통적 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학습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언급한다.

즉, 사서의 전문성은 '서비스적 태도'와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정보기술 활용 능력 역량'과 '소프트 스킬'을 활용해 이용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 도서관 공간의 변화와 함께 사서도 변한다

최근 들어 도서관 공간은 '소통의 공간'으로 그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확실히 예전과는 달리 '조용히 공부하는 곳'(여전히 그 부분을 중요시하는 이용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과 같은 이미지는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고 느낀다.

도서관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타인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공간이다. 여기서 타인은 교사나 부모, 친구 그리고 사서가 될 수 있다. 교육심리학자 비고츠키는 인지 발달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이 도서관에서 활발히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도서관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다양한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노영희, 김윤정, 2020). 이를 위해 도서관은 역할의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데 그중 한 방법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노영희, 김윤정(2020)은 복합문화공간은 단순히 물리적 기능의 공간이 아닌 지역 주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문화환경을 만드는 공공의 공간임을 언급한다. 차미경(2006)은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도서관 외형과 물리적 공간 구성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제 도서관은 연구와 자기 학습을 위한 장소, 모임 및 친교 장소, 그리고 여가 장소로 여겨진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유비쿼터스 시대에 도서관이 제공하는 물리적 공간의 중요한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무엇보다 도서관은 이용자들에게 친근한 공간이 돼야 하며, 이용자들의 정보 교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을 피력한 것이다.

당연하게도 이용자들에게 친근한 공간이라면 도서관 방문 및 이용의 증대는 따로 고민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건축가 고재민의 경우 도서관은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특히나 융합, 개방이라는 공간 트렌드를 토대로 도서관이 침묵의 공간이 아닌 소통의 공간으로써 자리매김해야 하며 공간의 변화 없이는 절대로 진정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조용완, 구정화(2021)는 최근 도서관 건축의 경향이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이용자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서관 건축물의 구조와 구성이 변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복합문화공간 내지는 복합 용도 건물로 변화해야 하고, 친환경 내지는 ‘녹색 도서관’으로 기능하도록 변화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건물로 변화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소통 공간으로 ‘성장하는 유기체’인 도서관은 사서의 역할 또한 변화시키기 마련이다. 특히 이런 복합문화공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은 실로 다양하며, 사서는 ‘소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역량을 갖고 있어야 한다. ‘기획 역량’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간’ 구축 능력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 장윤금(2015)은 인포메이션 커먼스(Information Commons), 러닝 커먼스(Learning Commons) 공간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갖추기 위한 리노베이션이나 신축을 진행할 때 사서가 도서관 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래의 도서관 모습을 그려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미래는 현재를 어느 정도 투사하는 만큼 미래 도서관의 공간은 분명 ‘소통’을 강조하는 흐름이 반영된 곳을 기대해볼 수 있다. 사서 또한 그런 공간을 위한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미래 사서의 역할

미래의 사서에게는 대체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 전형적인 과거의 사서상은 완전히 다르게 바뀔지도 모른다. 당연하게도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기술 습득을 요구한다. 비단 최근에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서직의 직무는 분명히 변화하고 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미래가 조금 더 앞당겨진 것인지도 모르겠다.

잠시 과거로 돌아가보자. 국내 문헌정보학 초창기에는 기술보다 사서의 기본적인 태도와 전문 지식이 강조되었다. 좋은 성격의 소유자, 부지런함, 광범위한 기초 지식, 도서관학의 전문 지식, 공평무사, 격무에 견딜 수 있는 건강함(김석순, 1963)이 언급되는 것을 보면 특히 그렇다.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사서의 기술’이 조금씩 언급되기 시작한다. 성택경(1968)은 정보 조사 업무, 이를테면 연구 주제 분야 관련 서지에 대해 넓은 지식을 가지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만 가능할 것임을 강조한다. 특히 도서의 분류, 참고봉사만으로는 도저히 전문직 사서의 임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선진국의 사례를 들면서, 마이크로필름화와 컴퓨터 보존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경호(1978)는 좀 더 적극적이며 전문적인 기술적 역량을 언급한다. 도서관 자동화의 바람이 불면서 사서의 조력은 불가피하다며 자동화 프로젝트의 성패는 사서에게 있다고 강조한다. 심지어 그는 사서에게 시스템분석가와 프로그래머 자격을 갖출 것을 주장한다. 사서들은 새로 생겨날 업종에 대해 방관적인 태도만을 취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도서관 환경을 생각하면 과격적인 주장이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정보기술은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다. 한복희(1984)는 전문직으로서의 도서관학 교육을 언급하면서 컴퓨터와 정보는 사서가 도서관 안에서 취급하는 수단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면서, 학문과 사회의 발전 속에서 축적된 정보와 이용자를 연결해야 하는 사서의 역할을 다시금 강조한다. 현장의 업무를 총망라하여 능력 단위별로 체계적으로 제시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는 어떻게? 문헌정보학 NCS는 2022년 현재 문헌정보 조직, 이용자 정보서비스, 도서관 유관기관 협력, 독서문화 프로그램 계획 수립,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전통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문헌정보시스템 구축, 문헌정보시스템 운영, 전자문서 정보 관리 등 정보기술과 관련한 총 16개 능력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관중이나 업무 환경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새로운 정보기술 역량 강화 필요성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직업 세계의 변화는 매우 크다. 노동의 디지털화로 인한 실업 문제도 있는 반면, 시장의 확대에 의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같은 낙관적 견해도 있다. 과거 상상 속 기술들이 서서히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미래를 엿보는 것은 쉽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서는 어떤 업무를 하게 될 것인가? 박태연, 한희정, 오효정, 양동민(2018)은 신기술 도입에 따른 도서관 사서의 핵심 업무를 살펴본 바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증강현실, 상황인식기술, 사물인터넷(네트워크 및 센싱 기술 등), 시맨틱웹, 온톨로지, 모바일·태블릿, 웨어러블, 3D 프린터·스캐너 등은 4차 산업혁명에서 다루어지는 대표적인 기술이다. 이런 기술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융합이란 특징을 지닌다. 사서가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한다는 것은 부당될 수밖에 없기에 관련 교육

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박옥남(2018)은 이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서관 변화와 함께 시대에 적합한 인재의 양성을 위한 사서교육의 방향성을 언급한다. 기술, 인간, 도서관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대응해야 하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인재상의 양성이 필요하며, 향후의 문헌정보학 교육은 기술 소양교육, 특화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실무 중심형 교육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른 한편 이런 기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 외에, 기술에 따라 직무별로 기술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름을 가정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업무의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박태연, 한희정, 오효정, 양동민(2018)은 사서 직무별 신기술 적용 가능성을 분석했는데, 분석 대상의 78%에 해당하는 43개의 직무가 1개 이상의 신기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언급하면서 신기술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 직무도 있다고 하였다. 이들 직무는 주로 사람과 조직에 관련된 법·제도·정책에 대한 전문 지식을 요하는 직무, 전문직으로서의 사서 인식과 역량 등과 관련 있는 직무로 분석됐다고 하였다. 그는 미래의 사서는 정보의 수집, 관리, 제공자 뿐만 아니라 융합적 창조자, 통찰적 관리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서비스 창출 기반 요소 제안자, 창조적 기획자, 디바이스 헬퍼, 퍼스트 부머, 협상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 디지털 휴먼은 사서의 미래가 될까?

과거 기술적 한계로 주춤했던 디지털 휴먼(그 외 가상인간, 인공지능, 버추얼 휴먼 등 다양한 명칭으로도 불린다)에 대한 관심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환경, 메타버스와 함께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기술의 비약적 발전 덕이다. 디지털 휴먼은 사서의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먼 미래에 사서를 대체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디지털 휴먼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자. 1996년 일본의 사이버 아이돌을 시작으로 국내에서는 1998년 사이버 가수 아담이 데뷔한다. 아담은 앨범 출시 및 광고모델 등 다양하게 활동하였다. 그러나 당시 기술의 한계상 너무나 큰 비용이 들어가는 데다가 부자연스러운 얼굴이나 단순한 표정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관심은 점차 멀어졌다. 특히 사람들과 어떠한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였다. 노래나 외모가 뛰어나다고 해서 잠깐 주목을 받을지언정 인간과

의 교감이 없다면 활동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후 10여 년간 영화나 드라마, 게임 등 각종 미디어에서 CG로 구현된 디지털 휴먼을 볼 수 있었지만, 예전처럼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일은 보기 어려웠다.

그러다가 특이하게도 ‘버추얼 유튜버’, ‘버추얼 스트리머’와 같은 새로운 방송 장르에서 실제 사람이 아닌 움직이는 2D나 3D 캐릭터가 등장한다. 일반적으로 목소리, 움직임, 표정 모두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이 캐릭터는 현실에 실존한다는 장르 및 세계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 그러다 보니 시연자(화면의 이면에 있는 아바타를 연기하는 사람) 본인이 화면에 노출되는 것을 꺼린다. 몰입을 위한 연기(메소드 연기), 지속적인 콘텐츠 발굴도 쉬울 리 없다. 결국 버추얼 유튜버도 3년여 정도 지나자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한다.

최근 메타버스의 급부상과 더불어 광고나 드라마 등에서 활약하는 디지털 휴먼을 만나보기 쉬워졌다. 진짜 인간과의 구분이 모호해진다는 표현도 종종 볼 수 있다. 향간에는 일반적인 주문형 키오스크보다 디지털 휴먼과의 대화형 키오스크 서비스가 더 효과적일 것이며 이런 디지털 서비스의 확대에 의해 더 많은 회사가 고객 서비스 직원의 수를 줄일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다만 디지털 휴먼이 브랜드 콘셉트와 스타일을 대변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이들은 각종 소셜미디어에서 소통한다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이 있다.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휴먼이라고는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지는 않는다. 어쩌면 과거 사이버 가수들의 커뮤니케이션 부재와 같은 실패했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가능성이 있다. 인공지능을 통해 커뮤니케이션한다는 디지털 휴먼은 대부분 콘셉트에 지나지 않으며, 소통을 위해 대화하게 되더라도 일반적인 챗봇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즉 언어적 행동과 비언어적 행동 모두 표현하도록 구현된 것은 없다. 무엇보다 디지털 휴먼의 이면에는 사람의 무수한 노력이 필요하다. 엄청난 기술들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필요함은 물론, 여전히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를테면 디지털 휴먼의 몸을 가상으로 구현한다 하더라도, 움직이는 모습까지 구현하려면 과도한 비용이 든다. 또한 덜 어색하게 보이려고 사람의 몸과 목소리를 사용한다. 광고 속 춤추는 모습은 실제 전문 안무가가 춤을 춘 뒤, 여기에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로 생성한 디지털 휴먼의 얼굴을 합성하는 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시장의 흐름으로 인해 아마도 조만간 디지털 휴먼 사서가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솔직히 우려된다. 현재 디지털 휴먼이라는 것은 사실상 CG의 정점(앞으로 더 발전하겠지

만)에다 미약한 수준의 인공지능을 붙여놓았을 뿐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으며, 입력된 값에 의해 움직인다는 한계를 지닌다. 게다가 여전히 ‘불편한 골짜기’에 빠지는 현상도 문제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디지털 휴먼 사서가 인간 사서를 대체할 가능성은 제기할 가치조차 없다. 하지만 앞으로 학습을 거듭해 적어도 참고봉사에 있어 ‘즉답형 질문’에 대답할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사서의 업무 중 극히 일부를 대체할 수는 있을 것이다. 아이들을 위한 참고봉사의 경우 모습을 변형(얼굴이나 몸의 크기를 크거나 작게)할 수도 있고, 캐릭터를 활용한다면 더 재밌게 다가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디지털 휴먼 사서가 인간 사서의 업무를 대체할 가능성은 높아질지도 모른다.

디지털 휴먼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기술의 정점은 ‘인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표현하며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디지털 휴먼은 단순한 캐릭터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디지털 휴먼 사서는 사서의 아바타가 재창조된 캐릭터여야 하며 멀티 페르소나로 내러티브(Narrative) 전개의 주체가 되어 한다. 더 나아가 단순한 챗봇 수준에서 벗어나려면 감정 모델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sup>5)</sup>을 도입해 이용자와의 신뢰 관계를 쌓아야 한다.

지금은 아니지만, 분명 비약적 발전으로 인공지능의 능동적 사고가 가능한 시점, 그리고 인간과 같은 ‘소통’이 가능한 때에는 다시금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 미래의 사서에게 기대하는 것은 ‘소통’이다

나는 이 글에서 미래의 사서가 가져야 할 기술적 역량을 나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기술적 역량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는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누구나 최신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닌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기술은 사서만의 전문성을 위한 담보가 될 수 없다. 그에 앞서 이용자에게 사서가 왜 필요한 존재인지, 그 본연의 ‘가치’를 더 강조하고 싶다.

다시금 랭가나단의 5법칙을 떠올려보자.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이므로 도서관의 모든 구성 요소 또한 다 같이 변하고 성장하고 있다. 과거에는 책이 ‘지식’을 대표하였지만, 이제는 책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정보원(온갖 미디어)이 지식이 되고 있다. 즉, 우리는 ‘책’을 좋아한다기 보다는 ‘책’을 포함한 온갖 종류의 ‘미디어’를 좋아해야 한다. 또한 책으로 가득 찬 도서관이 아니라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 그리고 ‘디지털 네이티브’로 가득 찬 ‘소통’ 중심의

5) 그러한 기술 중 하나로 사용자의 표정과 동작을 비전인식을 통해 분석하고, 그에 알맞은 표정과 동작을 구현하는 기술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도서관을 좋아해야 한다.

필자는 작년 겨울 한 발표에서 MZ세대를 이해해야 함을 피력한 바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Z세대의 부모 세대인 X세대이다. X세대는 과거 '나는 남들과 다르다'라는 문장으로 설명되었던 세대이다. 자기주장이 강하고, 소위 '나의 행복을 위한 소비', 이른바 '올로(YOLO, You Only Live Once)' 성향을 갖고 있다. 놀랍게도 이들의 행태와 경험은 Z세대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쳤다. 도서관 관점에서 본다면 Z세대 아이들과 X세대 부모들은 도서관의 주 이용층이 되며, M세대는 X와 Z세대 중간에 위치하면서 양쪽을 다 이해하고 '소통'하는 도서관 현장의 젊은 사서들이 해당될 것이다. 필자는 이것이 도서관의 미래로 나아가는 강한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특히나 X-M-Z세대 간의 연결고리는 결국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라고 본다. 더욱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세대 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무궁무진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다. 최근 개봉된 영화 속에서 1980년대~1990년대 팝송이 울려 퍼지는 일은 흔하다. '재미'를 추구하는 MZ세대의 정보 과급력 덕에 X세대도 최근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며 함께 공유한다. 커뮤니티 공간에서 10대에서 40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재미'라는 공통분모로 어울리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러한 공통의 '즐거움' 앞에서는 세대 간 반목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흥미롭다. 최근 '레트로'나 '뉴트로'도 그런 분위기의 연장선에 있다. 이런 배경에서 요즘 젊은 사서들이 기획하는 도서관 프로그램의 신선함에 종종 놀라곤 한다.

앞서 여러 미디어 속 사서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꼈는가? 왜 고도화된 정보사회인 미래에는 도서관과 사서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을까? 앞서 살펴보았듯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이미지는 조금씩 바뀌고 있다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의 생각은 과거의 모습에 머물러 있다. 그러한 이미지를 과감하게 벗겨내지 않는다면, 미래의 도서관과 사서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코로나19 이후 2년여간의 비대면을 겪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꼈을까? 기술이 도서관과 이용자를 더 가깝게 했는가? 기술은 '소통'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었고, 도서관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의 명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소통'의 부재로 인한 불편함은 여전히 있다고 느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진정한 '소통'의 소중함을 느끼지 않았던가? 진보된 기술사회에서도 사람의 온기는 필요하다. 그러므로 미래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은 인간으로서의 소통이다. 기술은 인간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동시에 인간의 삶을 지원해주는 도구이다. 궁극적으로 인간

을 인간답게 만드는 데 기술이 활용돼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술이 눈에 직접 뿜 필요도 없다. 사서는 다양한 기술을 도서관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항상 신선한 기획을 통해 이용자와 소통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미래사회에 사서에게 요구되는 ‘역량’이다.

그렇기에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 이용자든 사서든 모두와 교감을 느끼며 소통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도서관이다. 소통의 공간이 될 미래의 도서관에는 ‘정보 전문가’보다는 ‘소통 전문가’가 필요하다. ●

---

## 참고 문헌

- 구정화, 조용완 (2021). 우수 사례 통해 본 공공도서관 건축 경향 분석- 북미지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1), 181-208.
- 권선영 (2021. 12. 2.). 디지털 시민 MZ세대에 부응하는 도서관 서비스. 2021 대한민국 도서관 한마당.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JR13wKf3TOs>
- 김석순 (1963). 전문직 사서에 대한 소고. 도협월보, 4(2), 1-5.
- 김윤희 (2020. 12. 1.). 지역과 시민이 행복한 복합문화공간, Life-rary 만드는 '사서 건축가'. 월간인물 [인터뷰]. 출처: <https://www.monthlypeo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044>
- 노영희, 김윤정 (2020). 도서관의 소통적 공간에 대한 사서 인식조사에 따른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1(4), 5-27.
- 박일우 (2016). 대학에서 융·복합 교육의 실상과 그 해법. 교양교육연구, 10(1), 349-378.
- 박옥남 (2018).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서관 변화와 사서교육 방향에 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1), 285-311.
- 박태연, 한희정, 오희정, 양동민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 도서관 사서의 핵심업무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2), 327-356.
- 박희진, 김진묵, 차성중 (2021). 공공도서관 사서의 공통역량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2(1), 335-360.
- 성택경 (1968). 특수도서관에 있어서의 전문직사서의 역할. 도협월보, 9(5), 14-18.
- 송보배 (2015. 7. 28.). 학창시절 후회하는 것 1위는 진로설계. 한국대학신문. 출처: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49631>
- 송유성 (2022. 6. 10.). 사서의 직업 가치와 윤리, 그리고 변화하는 자격 요건(미국 동향). 월드라이브러리.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 출처: <https://librarian.nl.go.kr/LI/contents/L30202000000.do?schM=view&id=42984>
- 오혜연, 김기영 (2015). 공공도서관 사서 전문직 인식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2(3), 237-260.
- 우윤희, 김종성 (2014). 우리나라 창작동화에 나타난 도서관과 사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1), 277-298.
- 윤명희 (2020). 공공도서관 사서직 전문성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1), 243-275.
- 이경호 (1979). 도서관 자동화에 따른 전문사서양성에 관한 고찰. 도협월보, 20(4), 6-9.
- 이은철, 김갑선 (2002). 사서직의 직업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3), 25-47.
- 이제환 (2003). 전문직 이론을 통해 사서직의 전문성.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2), 57-87.
- 이제환 (2020). 한국인의 일상에서 도서관의 의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4), 25-57.
- 장윤금 (2015).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1), 361-377.
- 전창호, 김선호 (2008). 영화에 나타난 사서의 이미지 분석. 정보관리연구, 39(1), 151-176.
- 차미경 (2006). 유비쿼터스 시대 도서관 공간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7(1), 325-343.
- 차성중, 김진묵, 박희진 (2021). 도서관 사서의 역량가치 평가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1), 107-133.
-

# 사서, 세상과 사람 사이를 잇다

## 현직 사서와 예비 사서들의 만남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사람들과 함께하는 도서관과 사서 역시 변하기 마련이다. 변화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수히 쏟아지는 정보 중에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할까? 어떤 정보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될까? 사서는 책은 물론 세상 속 다양한 정보를 매개체로 세상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이다.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의 사서들은 무슨 일을 하며 무엇을 꿈꾸고 있을까? 현직 사서와 예비 사서들의 만남을 통해 사서의 현재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전망해본다.

사진 김성재 싸우나스튜디오



일시 2022년 6월 30일 오후 3시  
 장소 서울 성수동 싸우나스튜디오  
 참여 **임민주** 마포중앙도서관 사서  
**심민지**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생  
**황휘현**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생

## 사서가 된 이유, 사서를 꿈꾸는 이유

- 임민주 \_\_\_\_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마포중앙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16년 차 사서 임민주입니다.
- 심민지 \_\_\_\_           사서님이 출연하신 마포중앙도서관의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현직 사서들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문헌정보학과 출신이 아니시죠? 원래 어떤 일을 하다가 사서를 꿈꾸게 되셨나요?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 궁금합니다.
- 임민주 \_\_\_\_           두 학생은 모두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죠? 저는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2002년에 졸업하고 처음에는 일반 기업의 총무부서에 입사했어요. 제 첫 직장이었죠. 입사 전에는 사회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컸어요. 사회에 나오면 마냥 뭘가에 열정적으로 매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입사하고 보니 너무 지루한 거예요. 같은 업무의 반복이고 의미를 찾기도 어려웠죠. 20여 년 전이라 지금과는 회사 분위기도 달랐어요. 당시만 해도 여직원들이 창의적인 일을 주도적으로 하기 쉽지 않은 때였거든요. 회사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재미도 없고 비전도 안 보였고……. 결국 입사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퇴사했습니다.
- 퇴사 후 바로 사서를 떠올린 건 아니에요.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대학교 생활 내내 일반 기업에 취업하는 것만 생각했거든요. 부모님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제 진로가 걱정되더군요. 그러다 친구가 건네준 책 한 권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자기 계발서였는데 사실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진 않았어요. 현재에 충실하고 매사에 감사하라는 식의 감성 문구로 가득한 책이었죠. 하지만 힘들었던 제 상황과 맞아떨어지면서 힘과 위로가 되더군요. 당시 제게 필요한 책이었던 거예요. 책 한 권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면서 도서관 사서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친구가

계 책을 골라 소개해준 것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고 인생을 바꾸는 책을 추천해주는 사람이 '사서'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도전을 결심하고서 사서교육원에 들어가 공부했습니다. 문헌정보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고 연령대도 다양했어요. 동기들 덕분에 자신감을 얻어 더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지금까지 왔네요. 일단 '해보자'라는 도전이 운명처럼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것 같아요. 사서 일이 쉽지만은 않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제게는 정말 소중하고 뜻깊은 직업입니다.

황휘현 \_\_\_\_ 책과 사서라는 직업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사서님의 결단과 도전 정신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마포중앙도서관에서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나요?

임민주 \_\_\_\_ 저는 2017년 11월 마포중앙도서관이 개관하기 몇 달 전부터 선임 사서로 부임해 일했어요. 개관을 준비하며 도서 구입부터 많은 일을 해왔고 현재는 자료열람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서비스와 도서관 유튜브 운영, 직원 교육, 문헌정보학과 학생들 실습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황휘현 \_\_\_\_ 처음 근무하신 도서관은 어딘가요?

임민주 \_\_\_\_ 2007년 은평구립도서관에서 처음 근무를 시작했어요. 수서와 자료실 운영, 축제 개최 등 다양한 부서의 업무를 두루 경험했습니다.

심민지 \_\_\_\_ 사서에게 첫 도서관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임민주 \_\_\_\_ 은평구립도서관은 북한산 자락에 자리 잡은 곳인데 2001년 한국건축문화 대상 본상과 2002년 서울시 건축상 은상을 수상한 아름다운 공간이에요. 그런데 외관만 보면 웬지 감옥이나 요새가 연상되더라고요. (웃음) 이 도서

관이 첫 근무지였던 것이 제게는 행운이었어요. 외딴곳에 있다 보니 도서관 이용자들이 고정돼 있거든요. 매일 오셔서 종일 머무는 이용자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용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서는 이용자와 함께 고민하면서 답을 찾도록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록 그것이 정확한 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심민지 \_\_\_\_ 사서라는 직업의 특징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임민주 \_\_\_\_ 사서는 뚜렷한 형태나 답이 없는 '무정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큐레이션도, 행사도, 교육도 정해진 답이나 정확한 수치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통계 측면에서만 보면 도서관은 다른 기관과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점은 다르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자유롭게 큐레이션하고 행사를 기획할 수 있거든요. 책 한 권이라도 더 보게 하려고, 사람들이 잘 찾지 않던 좋은 책을 눈에 띄게 하려고 능동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어요. 또한 사서들은 현장에서 이용자들의 반응이나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좋은 반응을 확인하면 보람을 느낄 수 있죠.



임민주  
마포중앙도서관 사서

황휘현 \_\_\_\_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한편에서는 사서가 'AI로 대체할 수 있는 직업', '재미 없는 직업'이라는 오해도 하고 있더라고요.

임민주 \_\_\_\_ 얼마 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데, 한 학생이 '사서는 곧 없어질 직업'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이런 오해와 우려 속에서도 여러분이 사서를 꿈꾸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헌정보학을 전공했다고 꼭 사서가 될 필요는 없는데도 말이죠. 도서관이나 사서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나요?

심민지 \_\_\_\_ 저는 고등학생 때 학교도서관 사서 선생님과 친해진 것이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학교도서관을 자주 다니며 사서 선생님의 업무를 지켜보고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특히 책을 추천하는 큐레이션에 큰 흥미를 느꼈어요. 앞서 임민주 사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책 한 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되는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황휘현 \_\_\_\_ 어머니가 대학도서관 사서로 근무하고 계세요. 부모님 두 분 모두 제가 다니는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출신이시고요. 그렇다 보니 어릴 때부터 도서관을 접할 기회가 많았어요. 어머니가 일하시는 대학도서관에 가서 책도 보고 DVD도 보고 그랬죠. 자연스럽게 저도 사서의 꿈을 갖게 되었고 대학교 학과를 결정할 때도 두 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나누는 교감

임민주 \_\_\_\_ 마포중앙도서관에서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의 실습을 맡고 있다 보니, 학생들이 사서가 되면 특히 무슨 일에 흥미를 느낄지 궁금하더군요. 여러분은 사서가 되면 어떤 일을 경험해보고 싶나요? '이것을 위해서라도 나는 사서가 되고 싶다'라고 할 만큼 끌리는 업무가 있어요?



심민지 \_\_\_\_\_ 공공도서관을 다니며 메이커스페이스를 많이 접했습니다. 학과 수업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공간이에요.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서관과 결이 조금 다르다고 느꼈지만, 책과 창의적인 활동이 엮인다는 것이 참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도서관 속 메이커스페이스에 끌리게 된 건 호기심 때문인 것 같아요. 책을 다루는 사서가 메이커스페이스와 관련해 어떤 업무를 수행할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사서가 되면 직접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임민주 \_\_\_\_\_ 저 역시 처음에는 도서관과 메이커스페이스가 서로 다른 분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직접 접하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죠. 마포중앙도서관 L층(로비층)에도 메이커스페이스가 있거든요. 그 밖에도 5층에 청소년 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실, 만화창작실, 창의융합실, 음악 개인연습실, 공예작업실 등 다양한 활동 공간이 있어요. 이용자들이 이 공간에서 코딩을 배우고, 3D 프린트를 접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생기는 의문이나 학습 욕구는 도서관 자료실이나 열람실에서 해소할 수 있어요. 사서들이 단행본과 연속간행물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자료들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와 함께 고민하면서 답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서관이 존재하는 것 아닐까요?

황휘현 \_\_\_\_\_ 저는 북 큐레이션을 실제로 기획해 실행해보고 싶어요. 학과 수업에서 배우긴 하지만 이론일 뿐이니깐요. 이용자를 위한 행사 기획도 해보고 싶습니다. 강서구립곰달래도서관에서 2년 정도 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있어요. 초등학생 이용자에게 줄 책갈피를 만들고 독서 캠핑을 도운 적도 있죠. 그런 프로그램과 행사는 모두 사서가 기획한 거잖아요? 참여한 이용자들이 빠져드는 모습을 보면서 사서는 책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서도 이용자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정말 매력적이라고 느꼈어요.

임민주 \_\_\_\_ 그리고 보면 사서는 참 재미있는 직업이에요. 대출과 반납은 물론 행사와 교육을 기획하기도 하니까요. 일반 회사를 다니는 보통의 직장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반면 사서는 열정만 있다면 자유롭게 기획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어요.

심민지 \_\_\_\_ 요즘은 사실 책보다는 유튜브를 더 많이 찾는 시대잖아요. 사서들은 이런 시대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임민주 \_\_\_\_ 얼마 전 한 어르신이 요리 배우는 책을 찾으시더군요. 그런데 책보다는 유튜브의 요리 레시피 영상을 보면 더 빠를 것 같아 보여드렸더니 효과가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서가 꼭 책만 보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용자의 목적에 맞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면 되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변하는 걸 두려워하지만 사서는 변해야 해요. 정체되지 않아야 사서로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황휘현 \_\_\_\_ 사서님은 근무하면서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시나요?



황휘현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생

임민주 \_\_\_\_\_

큐레이션이라는 게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지만, 한번 하려고 하면 정말 끝도 없는 업무의 연속이에요. 행사도 그렇고요. 바깥 수밖에 없죠. 더욱이 도서관 예산은 한정돼 있다 보니 대부분 업무를 사서 스스로 해내야 하는 경우도 생겨요. 이용자들은 그런 사서의 모습을 보면 응원해주세요. 그런 관심과 응원이 사서들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돼요.

그리고 공공도서관 사서로서 연차가 쌓이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과 연결고리가 생겨요. 동아리나 봉사활동 모임 등에서 도서관의 봉사자로 활동하는 사례가 생기죠. 휘현 학생이 강서구립곰달래도서관에서 봉사한 것처럼 도서관을 위해 정말 열심히 도와주세요.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 도서관을 꾸미고 큐레이션을 돕는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는 참 사랑받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구나' 하고 느낍니다. 어린 학생들이나 처음 사서가 된 친구들을 볼 때도 감회가 남달라요. 사서로 오랜 기간 일하면서 잃어버린 걸 되새겨주기도 하거든요. 같은 목표와 꿈을 지닌 사람들끼리 도서관이라는 같은 공간에서 교감한다는 것이 참 좋아요.

## 사람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인간적인 직업

심민지 \_\_\_\_\_

아무리 즐겁고 보람이 느껴지더라도 사서로서 힘든 점들도 분명 있겠죠. 사서님에게도 어려운 고비의 순간이 있었나요?

임민주 \_\_\_\_\_

힘든 순간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그만두는 사서들도 꽤 되고요. 도서관 현장에는 '현실'이라는 이름 아래 아직은 변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사서가 여유로운 자세로 이용자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공감하고 공유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은 거죠. 사서들은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행사 준비와 각종 서비스, 수서 등 다양한 업무를 함께 수행해요. 그러다 보면 야근할 때도 있어요. 바쁜 데도 이용자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 또 거기에 잘 응대해야 하죠. 개

인적으로는 사서 4~5년 차 때 고비가 왔어요. 과중한 업무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여유 있는 응대를 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이용자들이 질문하는데도 모니터 화면만 쳐다보며 기계적으로 네네, 대답만 했죠. 그때 사서라는 직업이 왜 존재하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서의 정체성을 많이 고민했어요. 저뿐 아니라 많은 사서가 자신의 싸움을 겪을 거예요. 악순환이 되기도 하죠. 그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기계적인 사서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정말 사서를 AI나 기계로 대체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사서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서 수가 부족한 것도 그중 하나예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사회나 조직에서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 및 큐레이션의 효과를 수치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다는 점이 사서에게는 힘들고 막막한 점이에요. 일반 기업이 광고를 실행하면 그에 따른 매출을 보고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서관 분야는 그런 분석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사서가 직접 기획한 큐레이션에 대해 이용자가 얼마나 만족했는지 측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봐야 합니다.

심민지 \_\_\_\_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사서님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은 서비스 기관이다 보니 이용자나 봉사자들과 만나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나요?

임민주 \_\_\_\_ 도서관 사서에게는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공공도서관 사서는 특히 그렇죠. 은평구립도서관에서 근무하던 2010~2011년 무렵, 도서관에 방문한 어린이들을 위해 책을 읽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도서관 인근의 하나고등학교와 협약을 맺은 적이 있어요. 그때 활동을 시작한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기억에 남아요.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고 멘토링 활동까지 해준 학생들 덕분에 도서관이 지역사회 어린이들에게

‘책 놀이터’가 되어줄 수 있었죠.

지금 근무하는 마포중앙도서관의 도서 보수 봉사자들도 특별한 분들이예요. 2017년에 도서관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파손된 도서들이 늘어났어요. 이용률이 워낙 높은 도서관이다 보니 손을 많이 타는 책들은 설 틈이 없었고, 도서관 보수 작업에도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죠. 많은 책이 폐기될 위험에 처했을 때 봉사자분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기꺼이 도와주셨어요. 먼저 참여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도서 보수 작업을 위한 전문 교육을 8회차 정도 진행했는데, 어려운 과정임에도 다들 즐겁고 열정적인 모습이었어요.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좋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분들 덕분에 보수 활동을 테마로 한 전시도 진행할 수 있었고, 이용자들에게 자료를 보수하는 과정과 도서관의 노력을 알릴 수 있었습시다. 봉사자들은 지금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요. 일회성으로 봉사하는 분은 많지만 꾸준한 분은 많지 않아요. 자신의 자유 시간을 도서관에 양보하고 할애해 타인이 혜택을 받는 일에 진심으로 일하는 귀한 분들입니다.

황휘현 \_\_\_\_\_ 도서관 이용자들은 남녀노소 정말 다양하죠. 그런 다양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에게는 어떤 직업 윤리 의식이 필요할까요?

임민주 \_\_\_\_\_ 랑가나단의 도서관학 5법칙 중에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에는 도서관이 사회적 변화와 시대상을 반영한 기록을 보존하는 곳,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고 활용하도록 서비스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도서관은 그 시대와 함께 호흡해야 하는 만큼 이용자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시대 흐름에 맞춰 변할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도서관 이용자 중에는 변할 수 없는 분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고령 이용자들이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는 디지털로 변한 도서관을 이용하는 게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사서들은 그런 분들을 끌고 함께 갈 수 있어야 해요.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걸어야 하죠.

물론 사서는 사회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젊은 층과 어르신들의 격차는 분명 존재하죠.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도서관에서는 그런 인식을 바꾸거나 변화시키는 자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서는 그런 자료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사서를 꿈꾸는 여러분이 앞으로 도서관에서 그런 역할을 해준다면 미래는 밝을 거라고 생각해요.

심민지 \_\_\_\_\_ 그러려면 저희가 더 많이 공부하고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서님은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의 현장 실습을 진행하시죠. 실습에 임하는 학생들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임민주 \_\_\_\_\_ 실습 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럴 때면 저는 ‘준비 안 해도 된다’라고 대답합니다. 실습하다 보면 도서관에서 현재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고 무얼 중요하게 생각하고 활동하는지 눈에 보이잖아요? 실습하는 동안만큼은 실습생이 아닌 ‘도서관 직원’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얻을 것이 많을 거예요. 저 또한 학생들을 사서 후배라 생각하며 가르칩니다. 그래서 때때로 엄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웃음) 반대로 이번에는 제가 실습에 대해 질문할까요? 학생들은 도서관 실습에서 무얼 얻고 느끼길 바라나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황휘현 \_\_\_\_\_ 저는 당장 7월 초부터 학교 중앙도서관에서 한 달 동안 인턴십을 체험합니다. 평소 제가 자주 이용하는 도서관인 만큼 궁금한 점이 많아요. 특히 방학 기간 동안 사서들은 학기 때와는 다른 업무를 맡게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장서 관리를 맡을 것 같은데, 이번 인턴십을 통해 제가 알지 못했던 영역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심민지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생

심민지 \_\_\_\_      학과 교수님이나 사서분들에게 도서관에는 정말 다양한 이용자가 있고, 그분들을 상대하는 것이 생각 이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서가 되기 전 실습에서 다양한 이용자를 최대한 많이 만나며 경험을 쌓고 싶어요.

임민주 \_\_\_\_      그렇다면 공공도서관으로 가야겠네요. 1에서 10까지 다양한 이용자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 보면 사람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근무하는 도서관에는 매일 오시는 어르신이 한 분 계신데, 항상 불만 가득한 표정이세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딱딱한 편이 고요. 그런데 그분을 오래 겪으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사연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서는 참 인간적인 직업인 셈이죠. 그러니 사서가 되고 싶다면 ‘사람’을 좋아해야겠죠?

##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는 사서의 자세

황휘현 \_\_\_\_\_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 등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 변화 속에서 ‘도서관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사회적 질문에 대해 도서관 존재의 의미를 증명해 보이려면 사서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임민주 \_\_\_\_\_ 지금은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과거에는 정보 습득의 격차가 존재했고, 그걸 해소해주는 게 도서관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초등학생도 검색을 통해 쉽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각 도서관에서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무수히 쏟아지는 정보를 어디까지 수용해야 할까 하는 점이 특히 그래요. 그러자면 사서와 이용자 모두 정보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며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겠죠. 도서관에서 정보·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는 이유예요. 또한 요즘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전하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불편 없이 활용하도록 디지털 능력 향상을 이끌어줘야 하고요. 물론 디지털화는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겠습니다.

최근 과학과 디지털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인간소외 현상이 우려되고 있어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이 인문학을 보급하는 사회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사서는 이용자를 기계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기계적으로 일한다면 결국 AI가 사서를 대체하는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으니까요.

황휘현 \_\_\_\_\_ 최근 변화의 흐름이 빠른 만큼 저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고민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임민주 \_\_\_\_\_ 맞아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그 변화 속도가 더 빨라졌고,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사서들도 현장에서 이런 변화의 흐름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에요. 문헌정보학을 배우는 학생들 관점에서 요즘 불안하거나 고민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심민지 \_\_\_\_\_ 전공 교재로 공부할 때마다 표현이 되게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념이 손에 잡히지 않는 느낌이에요. 이를테면 ‘미래에는 다 변화될 것이다’ 같은 식이죠. 사서를 꿈꾸는 학생으로서 미래를 구체적으로 대비하고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은데, 모호한 표현 때문인지 잘 와닿지 않아요. 1학년 때부터 현장과의 괴리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임민주 \_\_\_\_\_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교재에 ‘네모’라 쓰이지 않았다고, 현장에 네모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든 현장에서는 자신에게 알맞게 다듬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황휘현 \_\_\_\_\_ 사서로 일하는 선배들을 만나보면 학교에서 배운 것은 아주 기본적인 이론 외에는 현장에서 쓸모가 없고, 어차피 다 새로 배워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도서관 시스템 자동화’라는 과목에서 ‘알파스(Alpas)’라는 도서관 관리 프로그램을 배웠는데 현장에서는 주로 ‘코라스(Korean Library Automation System: KOLAS)’를 사용한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가 학교에서 알파스를 왜 배우는 건지 회의가 들고 허탈했습니다.

임민주 \_\_\_\_\_ 코라스를 배우는가, 알파스를 배우는가 하는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출과 반납 등의 도서관 관리 프로그램은 각기 처리 과정이 다를 뿐 대체로 유사한 시스템이거든요. 모양만 다르지, 원리는 같다는 뜻이에요.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 원리를 터득하면 다른 도서관 관리 프로그램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황휘현 \_\_\_\_\_ 공부하면서 생기는 불안감은 또 있습니다. 최근 이런저런 보도를 보면 미래에 없어질 직업 중 하나로 '사서'를 언급하더라고요. 현직 사서로서 이런 일부의 비관적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임민주 \_\_\_\_\_ 대출과 반납은 무인대출반납기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게 사서 업무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특히 공공도서관 사서는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결해 각종 행사와 동아리, 문화생활 등 다양한 업무를 맡아요. 최근에는 사서 업무에 대한 직무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는데, 이런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사서가 1년에 큐레이션이나 행사 기획을 몇 번 할까요? 횟수가 많다면 더 일을 잘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서 업무 중에는 수चना 통계에 담기기 어려운 가치를 추구하는 업무가 많거든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사서가 큐레이션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서들은 가족 간의 복잡미묘한 감정, 디지털 고립, 세대 간 간극 등을 고려해 큐레이션을 기획하고 홍보하겠죠. 이런 기획이나 홍보 활동에는 통계에 다 담길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직무 분석이 필요하다면, 이런 다양한 사서 업무에 대한 표준화된 작업 지시량과 매뉴얼, 표준화된 서비스 등의 구축이 선행돼야 해요. 그렇게 되면 사서 간의 공통분모가 생기면서 사서들이 어떤 일을 하고 이들의 업무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 미래의 사서, 어떤 모습일까

심민지 \_\_\_\_\_ 사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임민주 \_\_\_\_\_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서는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받기에 고정 업무 위에 변동 업무가 쌓이는 날도 많아요. 이용자 대면 업무와 상시 업무,

사서로서의 고민이 필요한 시간이 균일하게 배분되기 어려운 직업이죠. 반면 아직 그 업무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보니, 중도에 포기하는 사서도 많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서라는 직업에 재미와 가치를 느낀다면 쉽게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앞서 언급했듯 비정형의 업무가 많은 사서는 창의적으로 일하면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에요. 힘든 여건도 없지 않지만, 우리 사서들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황휘현 \_\_\_\_\_

미래의 사서는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다양한 플랫폼에 담긴 정보 전달을 통해 여전히 세상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용자가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도서관의 소장 도서와 정 보자료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각종 플랫폼을 활용해 더욱 진화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민지 \_\_\_\_\_

저도 비슷한 생각이예요. 현재 도서관과 사서는 책이라는 한정된 매체와 정보를 주로 다룹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더욱 다양한 매체로부터 파생되는 폭넓은 정보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또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그만큼 다양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고, 도서관은 그런 정보를 담아내는 기관이니까요. 그리고 오프라인 중심에서 벗어나 온라인으로도 지금보다 더 다양하게 서비스할 수 있게 되겠죠? 미래의 사서 역시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온라인으로도 더욱 활발하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이 될 것 같습니다.

임민주 \_\_\_\_\_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의 형태와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 모두 다양해졌죠. 종이책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디지털화를 통해 책을 그대로 옮긴 '전자책', 디지털 정보를 기간 단위로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 짧고 명료하게 발췌되거나 인용된 정보의 신속한 전달과 피드백이 중심이 되는 '트위터', 제작자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재생산된 영상을 제공하는 '유튜브' 등 정보의 형태가 다양해졌어요.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 역시 다양하고 빠르게 확장되고 있고요.

도서관 현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소장하고 어떤 것을 구독 형태로 제공해야 할까, 소장한다면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전자책과 종이책으로 구분할 것인가 등의 고민은 모두 도서관과 사서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기술 분야처럼 빠르게 변하는 정보들은 그 유효성의 시효가 지나치게 짧아요. 그런 분야는 신속한 업데이트를 위해 정기간행물이나 구독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죠. 미래에 대비하려면 사서들은 소비 흐름은 물론 정보의 변형, 보존과 그 가치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황휘현 \_\_\_\_\_

미래에도 사서는 꼭 필요한 존재겠지요?

임민주 \_\_\_\_\_

현재 수많은 도서관이 변화의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학생이 언급한 것처럼 미래에는 사람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도서관에 방문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사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동료이자 가이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존재일 것입니다. 이용자가 있는 곳이라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 현장에는 당연히 사서가 있어야겠죠.

사람에게는 ‘맥락’과 ‘이야기’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똑같은 상황과 문제를 마주했을 때 사람들은 각자의 경험과 과정, 보이지 않는 목적과 의도에 따라 다른 답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미래의 사서들은 그러한 다양성을 이해하고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은 물론, 적시에 정확한 정보 획득 수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역할과 기능은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감정적 요소들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판단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걸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지 않을까요? 궁극적으로 미래의 사서는 방대한 정보와 다양한 매체가 쏟아지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복합적으로 아우르면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해 제공할 수 있는 더 전문적인 디렉터, 그러면서도 인간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꾀하는 역할을 맡게 되겠죠.

그러기 위해 사서들은 다양한 매체를 학습하고, 생산되고 소비되는 정보들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현업에 있는 사서들이 이 많은 변화를 단기간에 수용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 변화와 목표에 대해 함께 이해하고,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직업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미래에 어떤 사서가 되고 싶어요?

심민지 \_\_\_\_\_

다양한 매체와 정보가 쏟아질 미래를 생각하다 보니 저는 현재도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를 다루기 어려워하는 노인분들과 정보 불평등을 겪는 분들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미래에 사서가 된다면 무엇보다 다양한 이용자가 빠르게 변화하는 매체들 사이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살피는 섬세한 사서가 되고 싶습니다.



황휘현 \_\_\_\_\_

‘알고리즘’ 같은 도서관 사서가 되고 싶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다 보면, 저와 접점이 없는 채널의 영상이나 게시물들을 추천해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듯 이용자의 평소 패턴을 분석해 추천 영상을 제공하는 알고리즘 시스템을 도서관에도 적용하는 겁니다. 지금 도서관의 업무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특정 이용자가 자동차 관련 자료를 찾습니다. 그럼 사서는 이용자가 어떤 목적으로 자동차 관련 책을 찾는지, 어떤 형태의 자료를 원하는지, 얼마나 많은 자료가 필요한지 분석하는 거죠.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자료를 어떤 플랫폼으로 활용하면 더 효과적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플랫폼 이용 방법이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라면 사용 방법을 가르쳐줄 수도 있고요. 오프라인이 아닌 상용화된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이러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미래의 사서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은 물론 사람들과도 한결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민주 \_\_\_\_\_

두 분 모두 머지않아 멋진 사서가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정보 취약계층을 생각한다는 것은 '도서관'이라는 기관에서 우리가 일하게 될 때 반드시 가져야 할 도덕적 소양이자 인간적인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휘현 학생의 말처럼 엄청난 속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시대에, 정보를 기반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적절한 정보를 찾아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겠다는 생각은 정말 훌륭한 것 같네요. 상대의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를 도서관에서도 펼칠 그날이 정말 기다려집니다. 그때가 되면 사서들을 '메타-사서'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설렘이 생기네요. ●



# 추천 자료





총론 **이정수** 전 서울도서관장

### 지능 정보사회의 이해

배영·최항섭 지음/2021년/나남출판

지능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의 삶과 사회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정보사회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정보사회학회가 기획한 이 책은 전과 다른 세계를 살아갈 인간과 사회에 대한 담론을 담고 있다.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 같은 개념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지능 정보사회의 긍정적·부정적 요소들을 균형감 있게 알려준다. 스무 명 가까운 전문가를 알게 될 뿐 아니라 그들의 글을 보고 배우는 즐거움도 준다.



역사 **노영희**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위대한 도서관 사상가들

이병목 기획/2005년/한울아카데미

사서의 역사와 사서의 사상을 알 수 있는 유익한 책이다. 한국 도서관의 아버지 박봉석과 인도 도서관 운동의 아버지라 불리는 랑가나단, 도서관학의 개척자 듀이, 도서관학 이론 정립의 거성 세라 등 세계적인 도서관 사상가들과 그들의 저작이 소개되고 있다.



위인 **이용재**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도서관인 박봉석의 생애와 사상

오동근 엮음/2000년/태일사

이 책은 한국 도서관계의 건국 영웅 박봉석의 삶과 도서관 사상을 보여준다. 박봉석의 성장 과정과 학업, 삶을 잘 알 수 있고, 진정한 사서이자 지도자로서 해방 공간에서 활약하고 한국 도서관과 도서관학의 모든 기초를 다진 그의 생각과 실천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자격 **남영준** 한국도서관협회장,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인간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소통 공간의 확장

나은영 지음/2015년/한나래

도서관 업무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고르라면 서슴치 않고 '정보서비스'라고 답할 수 있다. 또한 정보서비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고르라면 소통과 경청이라고 확신한다. 이용자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과 이용자에게 이해하기 쉽게 해답을 전달하는 능력이 사서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심리학 분야의 전문 서적인 동시에 사서들에게 꼭 필요한 이용자와의 소통과 경청의 중요성을 잘 설명하는 책이다.



관중 **최미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서

### 책은 도끼다

박용현 지음/2011년/북하우스

대학도서관 자료실의 밀집 서가에는 문학에서부터 철학, 과학, 예술 등 전 주제 분야의 좋은 책들이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눈에 띄지 않았던 책들이 이용자들의 시선을 통하여 다시 서가 밖으로 나와 사랑받을 수 있을 바라는 마음으로 추천한다. 광고인 출신의 저자가 광고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어준 책들을 어렵지 않게 소개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며 책 보는 눈을 높일 수 있다.



관중 **여현경**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사서

### 취학 전 1000권 읽기

이지유·여현경·이신영 지음/2022년/성림주니어북

서울 중랑구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화제의 어린이 독서 캠페인 '취학 전 1,000권 읽기'에 대한 사서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책은 취학 전 1,000권 읽기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물론 도서관을 통해 책과 친해지면서 문해력, 어휘력, 사고력의 변화까지 보이는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담는다. 더불어 아이에게 그림책 읽어주는 법, 장르별 어린이책 시작하는 법, 주제별로 읽으면 좋은 책들, 독서교육을 시작하는 부모를 위한 사서들의 전문성이 담긴 팁 등을 담았다.



관중 **박연주** 의정부미술도서관 사서

### 꼭 읽어야 할 예술이론과 비평 40선

도널드 프레이저시 편저/정연삼·김정현 번역/2013년/미진사

미술사, 미학, 기호학, 페미니즘,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 등의 예술이론과 비평의 기본이 되는 글을 모은 선집으로 예술에 관심이 있다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물론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 이 책이 담고 있는 이야기의 깊이는 상당하다. 읽을 때마다 자신이 가진 지식의 깊이에 좌절할 수 있으나 완독했을 때의 기쁨이 더 큰 책이다.



현장 **송현경** 『내일신문』 기자

### 도서관 생태마을에 삽니다

양시모·김용안 지음, 김세진 그림/2020년/학교도서관저널

양시모 전 노원구립도서관 총괄관장이 국어교사 출신의 김용안 씨와 공동 집필한 책이다. '노원휴먼라이브러리', '책 읽는 어머니 학교' 등 노원구립도서관의 도서관 사업은 물론 노원구 독서문화생태계 및 마을민주주의 플랫폼으로서 존재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공공도서관의 현재 활동이 궁금한 독자들에게 추천한다.



진화 **권선영** 한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도서관 미래에 답하다

케네스 J. 바넘 지음/구정화·권선영 번역/2022년/파지트

VR 기기, 3D 프린터 등의 발전과 함께 선구적으로 가상현실을 도서관에 도입하여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던 메리어트와 에클스 도서관 등 해외 사례를 통해 미래 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가상·증강현실을 통해 놀이와 결합된 가상현실 도서관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 흥미롭다.





통권 제396호 | 2022

기획·편집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총괄과  
발행            2022년 9월 30일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02) 590-0799  
팩스            (02) 590-0546  
누리집         www.nl.go.kr  
디자인·제작   plus81studios

비매품

ISSN 1011-2073(Print) 2733-8177(Online)

DOSEOGWAN

Vol. 396 September 2022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 Banpo-daero, Seocho-gu, Seoul, Korea

Tel (02)590-0799 Fax (02)590-0546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러스트레이션 및 사진은 제외됩니다.



# 사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ISSN 1011-2073

발간등록번호 11-1371029-000227-10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



대한민국 지식용

모으고, 넓히고, 잇다